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아는 대로 진실만을 말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2월 19일) 2018년 4월 4일 수요일

불교 뉴미디어 포교 생태계 구축 우선돼야

조계종 포교원 75차 연찬회서 쏟아진 제언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뉴미디어가 사회의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자리하며 불교 포교를 위한 뉴미디어 콘텐츠의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뉴미디어 포교방법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75차 포교종책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모인 각 분야 전문가들은 뉴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불교 콘텐츠 진흥기금 등의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연찬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 종책 담당자들과 유권준 불광미디어 웹콘텐츠 실장, 구희철 BTN라디오 PD, 유은상 BBS뉴미디어TF팀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진흥기금 등 장기 비전 필요

'한국불교의 뉴미디어 전략과 정책과제'를 발표한 유권준 불광미디어 웹콘텐츠 실장은 "뉴미디어 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플랫폼보다 콘텐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교 콘텐츠 유통 과정 파악 △불교 콘텐츠 니즈 분석 △불교 콘텐츠 제작 연구 △불교 크리에이터 인력 배양 △기술 발전에 대한 빠른 접근 등을 제시했다.

이날 공개된 한국콘텐츠진흥원 '장르별 콘텐츠 산업 매출액 규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10조 4000억원 규모로 전년에 비해 4.5% 증가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유 실장은 "불교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불교 지식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대장경 등 구축된 정보가 국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연계 검색과 콘텐츠 창작을 위한 자료 제공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불교계가 해야 한다. 사찰의 스토리텔링 개발을 위해 사찰에서 콘텐츠 진흥기금을 출연해 각 사찰의 문화와 문화재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는 작업도 병행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불교 콘텐츠 제작의 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불교포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뉴미디어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크며 크리에이터들이 제작할 수 있는 환경과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도 창출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찰을 비롯한 불교계가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콘텐츠 보급과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석심 포교원 포교차장은 "불교계는 정부와 효율적인 전통사찰 보존 관리정책수립을 위해 이미 전통사찰 전수조사 사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며 "전통문화 콘텐츠 보존 및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와 협력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상 BBS뉴미디어TF팀장은 "방송사 현장에 있다보니 콘텐츠 개발에 앞서 저작권과 같은 불교 지적 재산권 문제부터 해결되야 함을 느끼고 있다. 요즘 각광 받는 AI스피커를 활용한 TV 큐레이션의 경우 기독교계와 달리 '불교'라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해도 정확한 답변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의 공식 설명이 있어야 한다. 콘텐츠 개발에 앞서 종단 차원의 공식적인 내용 정립, 저작권 확보와 관계기관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개발이 가장 중요
진흥기금 통해 환경 조성을
니즈 분석 · 인력 양성 등
콘텐츠 관련 연구 선행돼야

기존 플랫폼 적극 활용 주문
"뉴미디어 포교, 소통서 시작"

뉴미디어 활용 위한 인식 전환

이날 공개된 뉴미디어 분석자료에 따르면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미디어 트렌드는 모바일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지상파와 종편, 케이블, 웹이 혼합되는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뉴미디어 플랫폼 또한 다변화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다양화의 시기에 불교미디어 플랫폼의 개발보다 사회 트렌드로 자리잡은 플랫폼을 발빠르게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SNS서 뉴미디어 방송을 진행하는 구희철 BTN라디오 PD는 "너무나 많은 뉴미디어 플랫폼이 있다. 공통점으로는 '소통'을 들 수 있다"며 "뉴미디어의 포교 활용은 결국 이러한 '소통'이란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PD는 "온라인에서 젊은 청년들을 모아 오프라인 공간인 사찰에 가도 기존 고령층의 불자들과 어울리기 쉽지 않다. 뉴미디어 포교는 출재가,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뉴미디어 시대에 불교가 인간의 삶에서 관계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다양한 뉴미디어 포교 방법론을 모색해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미세먼지에도 변함없는 佛心

연일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외출과 여가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하지만 불자들의 불심까지 막지는 못했다. 지난 3월 28일 서울 조계사에는 마스크를 쓴 불자들이 유난히 많이 눈에 띄었다. 마스크를 쓴 채 부처님께 향을 올리고, 탑돌이를 하며 불자들은 변함없는 신행을 이어갔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교계, 국민행복 위한 법석 마련한다

종단협, 4월 17일 서울파르나스 호텔서 법회 봉행

한반도 평화 통일 기원
대통령 참석 여부 관심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앞서 국민행복을 기원하는 대규모법회를 서울서 봉행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29일 서울AW컨벤션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국민의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기원하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키로 했다.

종단협에 따르면 기원법회는 4월 17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호텔서 봉행되며,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운집한다. 각 종단 임원을 비롯한 주요사찰 주지스님, 정관계 인사, 재가불자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공식명칭이 변경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불자들의 의지를 모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법석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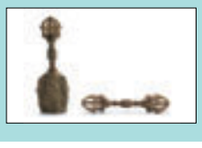
기원법회는 △식전 문화공연 △1부 기원법회 △2부 공양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에서는 연등회 홍보 영상물을 시청하며,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기획한 전통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법회서 명종명고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예불, 봉행사, 축사, 화청, 발원문 낭독 등을 진행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

이 행사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부다. 1981년 전두환 前대통령을 시작으로 2005 · 2007년 노무현 前대통령, 2009년 이명박 前대통령, 2013년 박근혜 前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은 이 같은 불교계 기원법회에 참석했다.

이밖에 종단협은 이사회서 청계천 장엄등 이관의 건을 다뤄 청계천 전통등전시를 연등회보존위원회로 이관했다. 이는 전통등관련 업무 이원화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제기에 의한 것이다. 또한 종단협 소유 장엄등에 대한 소유권을 연등회보존위로 이전, 소유지분을 가진 업체와 협의해 지방봉축위원회에 장엄등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천태종 총무원장 교체에 따라 종단협 수석부회장이 신임 총무원장 문덕스님으로 변경됐다.

2013년부터 매년 진행된 불교성지순례는 올해 7월 16~20일 몽골로 떠난다. 현지 대표사찰인 간단사를 찾아 몽골불교계와 관계를 증진시키는 한편, 한국불교계 지원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복지단체를 방문해 격려한다. 몽골에는 조계종 지원시설인 울란바토르 몽골 드림센터와 지구촌공생회가 건립한 유치원 · 청소년시설이 운영 중이다. 종단협은 몽골을 방문해 각종 복지시설에 약 3000만원에 달하는 성금 ·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시방세계 A5
한성백제博, '영국사와 도봉서원' 특별전

기획 · 불교와 4차산업 A7
⑥ 공유사회와 불교공동체

범종의 명가 성종사가 만들면
풍경(풍탁)도 작품이 됩니다

풍탁과 연꽃 풍경 모두 대·중·소 3가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람판도물고기, 연꽃, 구름 3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선택 가능 합니다.



특징
1. 체인이 동재질이 아닌 스텐레스 재질로 되어 있어 강도와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2. 바람판이 두꺼운 황동재질로 되어 있어 견고하고 바람에 덜 흔들려 소리가 은은합니다.
3. 바람판과 풍경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답습니다.
4. 바람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람판 : 물고기, 연꽃, 구름)

견고하고 아름답고
소리 좋은 풍경(풍탁)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바람에 강하고 아름다운
최고급 명품 풍경(풍탁)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장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3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습지길 35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이제 처마에도 연꽃을 달자!



연꽃 풍경



1) 황금컬러
2) 무늬
3) 민무늬 3종



구입문의
성종사 ☎ 02)733-6141

설봉 스님 '단식 중단'… 갈등은 여전

선학원 이사장 사퇴 촉구,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불투명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며 3월 2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기원정사 창건주 설봉 스님이 단식 7일만에 병원으로 이송됐다. 긴박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설봉 스님은 3월 27일 오후 4시 30분경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단식정진을 풀고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순천향대 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설봉 스님은 목에 깁스를 하고, 황달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머물던 스님과 재가불자들에 따르면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난간서 단식 중이던 설봉 스님은 이날 2층 밖으로 사다리를 설치하려는 선학원 상임감찰 스님들과 한 차례 충돌이 있었다.

이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전국비구니회는 같은 날 열린 정기총회서 올해 사업과 50주년 기념행사 계획 등 다수의 안건을 문건으로 대체하고, 회장 육문 스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선학원으로 향했다. 전국비구니회 구성원 중 1300여 명이 선학원 소속이기에 비구니회 전체의 문제와 다름없다는 인식에서다.

육문 스님은 기념관 출입이 통제된 상황에서 선학원 측과 협의 후 설봉 스님을 만나기 위해 선학원 건물 2층으로 이동했다. 육문 스님은 설봉 스님을 30여분간 설득하며 병원에 갈 것을 호소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육문 스님은 "설봉 스님에게 목숨부터 구하자고 했다. 그런데 스님은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말하며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전국비구니회가 중재에 나서겠다고 설득한 끝에 병원에 가겠다고 답했다. 설봉 스님의 이 같은 의지를 대중이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설봉 스님 설득해 병원行
선학원 앞 시위 철수했지만
소통 부재로 문제해결 난항
선학원-조계종 입장 공방도


선학원 기원정사 창건주 설봉 스님이 3월 27일 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전국비구니회가 선학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육문 스님은 "방법에 대해선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 싸우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설봉 스님이 단식 7일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현장에서 시위 중인 대중도 철수함에 따라 긴박하게 돌아갔던 상황은 잠시 일단락됐다. 다만 시위에 나선 대중은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 모임' 총무 심원 스님은 "아직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전직 선학원 이사스님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견 전달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 범행단(단장 송운)은 기관지 〈불교저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단에 적대적인 조계종 기관지와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저들(선미모)이 조계종의 사주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은 즉각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대변인 금산 스님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허위주장으로 법진 이사장의 범계 행위와 허물을 덮어보려는 불순한 의도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선학원은 종단의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을 명확하게 확인해 허위주장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선학원이 조계종의 종지종통을 봉대하고 여법하게 운영한다면 재산권과 운영권리권 등 법인 고유권한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한편 선학원은 4월 21일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과 전국분원장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으나 1주일간의 시위로 공사 마무리가 늦어져 계획대로 행사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역임한 야부당 초우 스님 원적



제19대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야부당 초우 스님〈사진〉이 3월 26일 원적에 들었다. 법랍 72세, 세납 86세.

분향소는 통도사 설선상에 마련됐으며, 영결식과 다비는 3월 30일 오전 10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초우 스님은 1947년 해인사서 동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효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57년 통도사 전문강원 대교과 수료 후 1958년 3월15일 범어사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주지, 총무원 재무부장, 감찰위원, 중앙종회 부의장을 거쳐 1981년 제19대 총무원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통도사 부방장과 최고 법계인 대종사를 품수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선출 4월 10일

원로회의 소집,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도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을 선출할 제58차 원로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열린다. 원로회의법 제2조에 따르면 원로회의는 교구별 재적승 1인을 원칙으로 17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현재 중앙종회 추천을 받은 원로는 원행(월정사)·현호(송광사)·일면(봉선사)·우송(수덕사) 스님 등 4명이다. 우송 스님을 제외한 세 스님에 대한 선출은 지난해 11월 열린 원로회의 제57차 회의서 안건이 이월된 바 있다. 우송 스님은 3월 20일 열린 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만장일치로 추천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서는 이월 안건인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도 다룬다. 대종사 법계 대상자는 원로의원인 성타·월주·지하·보선·법타·철웅 스님을 비롯해 기림사 주지 덕민 스님, 前교육원장 무비 스님, 봉암사 수좌 적명 스님, 법계위원 경일 스님, 금봉선원장 혜국 스님, 전등사 조실 세연 스님, 계단위원 무관 스님,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 등이다. 또한 현재 공석인 원로회의 사무처장 임명동의안도 다룰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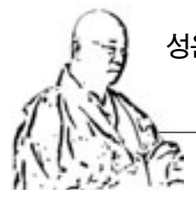
설정 스님 "문화발전 없이 강국 안 된다"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정부예산 중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예산을 확대해 정부가 국민행복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설정 스님은 3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예방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스님은 "정부와 종교 모두 대중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지만 오히려 불만과 갈등이 더욱 심해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부족한 문화예산을 2%정도로 확대해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나종민 차관은 "문체부의 문화예산 목표가 2%다. 아직 부족하지만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불교계가 담당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특히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불교계 전폭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 다만 불교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정책 등에 죄송하다. 힘닿는 대로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해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기도 願을 심고 가꾸는 수행

*기도는 순수하고 간절한 발원입니다. 마음을 모아 한마음으로 염원할 때 응무소주(應無所住)의 자리에서 통로가 열리고 양심의 빛 불성(佛性)이 뿜어져 나와 삼라만상의 부처님 성품과 계합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가피(加被)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비는 것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으로 시작한 기도는 간절할 때 보살심으로 바뀝니다. 칭명 염불을 하거나 경전 독송, 사경, 또는 108배를 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귀의할 때 자기 중심적 기도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기도가 됩니다.


제목 · 기도 그림 · 조향숙

"나와 이웃 복되게 하오리다"
원력성취 간절히 발원
새 삶 다짐 '날마다 좋은날'

*불교는 원력(願力)의 종교입니다. 원력을 서원하고 성취되기를 발원하는 것이 불교의 기도입니다. 모든 법회는 사홍서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자기 수행과 중생 교화를 맹세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사홍서원을 법회 때마다 발원하며 기도 올리는 것입니다. 총원 사홍서원을 비롯해서 아미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대원과 같은 별원이 다 자리이타를 발원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발원을 거듭거듭 불보살님께 올리면서 마음에 새기는 정진이기 때문입니다.

보현보살 10대원은 국악교성곡으로 작곡돼 찬불가로 '보현행원'을 서원하는 불자들도 있습니다.

의상대사 일승발원문, 당나라 이산혜연선사 발원문을 독송하듯 자신의 발원문을 만들어 매일 축원해 보세요. 새 삶이 열립니다. 신구의(身口意) 삼업이 청정해져 날마다 좋은 날(日日是好日)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향기입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침묵의 향기이고 희망이고 자비의 빛입니다.

*삼천사 입춘기도를 소개합니다. 다같이 일심으로 '화엄성중' 정진을 하겠습니다. 화엄성중 명호 속에서 소원이 녹아 이루어지도록 축원합시다. 이제 다 같이 합장하고 눈을 감고 발원문을 선창에 따라 한 목소리로 축원합니다.

"삼천사 사부대중은 새봄을 맞이하여 마음의 푸른초원을 행복의 나무가 자라는 들녘으로 만들어 행복의 열매를 수확하고자 합니다. 이 소원 이루어 지도록 마음으로 보시하고 행동으로 보시하고 말로 보시하여 행복의 나무를 길러 꽃피워서 행복의 과일을 거두고자 하옵니다. 행복의 과일이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만나는 인연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익되고 복되게 하소서. 이 소원 이루도록 일심으로 염불하며 복전 가꾸오니 이 축원 이루어 지이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기도할 때는 원(願)을 심어야 합니다. 푸른 마음의 초원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웃음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웃음으로 인연을 맺으면 웃음 보시이고 얼굴 보시입니다. 말보시 행동보시를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일심으로 칭명염불을 하면 마음의 독이 소멸됩니다. 칭명염불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꿉시다.

이 모든 말씀은 불법에서 가장 으뜸인 연기(緣起)의 가르침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세계에서 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8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 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4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세계비구니,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한다

4월 12일, 서울서 12개국 비구니 모여 '평화대회' 개최

세계비구니회 첫 공식행사
분단국가 평화 위해 나서
조계종 원로·총무원장 참석
대만스님들 판문점 방문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전 세계 12개국에서 활동 중인 비구니 스님들이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을 위해 방한한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회장 보휘, 대만)는 4월 12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서 '남북통일을 위한 세계불교 비구니 평화대회'를 거행한다. 이 행사는 2016년 11월 창립된 세계불교비구니협회의 첫 공식대회로 창립법회 의미도 갖는다. 행사에는 세계 12개국 비구니스님 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주최 측은 내다보고 있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의 첫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된 데는 부회장이자 한국지회장인 평택 명법사 회주 화정 스님〈사진〉의 원력이 큰 영향을 미쳤다. 화정 스님은 3월 28일 열린 간담회서 "대회 개최일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남북통일 염원 100일 기도를 회향하는 날이다. 앞서 지난해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회의서 전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를 위해 비구니들이 나설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많은 스님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대회 개최를 우려했지만 평창올림픽 이후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에 비구니들의 염원을 더하고자 뜻을 모았다"고 한국대회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화정 스님은 "이번 평화대회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분위기를 고취하고, 비구니 스님들이 대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법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대회는 12일 오전 10시 평화를 위한 법고로 시작된다. 이후 국민의례와 삼귀의 등 의식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도문 스님의 법어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치사가 이어진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장 보휘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 등 각국을 대표하는 비구니스님들도 대거 참석할 전망이다. 아울러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뜻에 맞춰 조명균 통일부장관도 참석한다.


세계불교비구니협회 부회장이자 한국지회장인 화정 스님.

이날 세계불교비구니협회는 본대회에 앞서 총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한국지회와 전국비구니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남북통일' '평화'를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서는 통일상에 '여생을 금강산에서 보내고 싶다(법념 스님)', 평화상에 '남북통일의 염원(진홍 스님)', 공존상에 '승가의 청정함은 세계평화의 초석(무진 스님)' '희망 하나, 걸을 의미가 되다(성엽 스님)' '평화통일과 자비(원과 스님)' '남북통일과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한 불교의 역할(혜범 스님)' 등 6개 작품이 선정됐다.

특히 본대회 이후 13일부터는 대만불교계 스님과 재가불자 200여 명이 판문점 JSA법당 참배와 사찰전통문화를 체험하며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계불교비구니협회는 대만 중화불교비구니협진회를 중심으로 창립됐다. 현재 대만과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영국,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 비구니스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설립 취지는 △불법 선양 △국제 자선사업 △빈약계층 어린이 교육 지원 △세계불교 문화 및 예술교류 등이다.

삼다도 천진불이 전한 선법의 하모니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은 3월 24일 제주대 아라뮤즈홀서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열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이 천진불들의 하모니를 사바세계에 전할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 이를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지원장 혜묘)은 3월 24일 제주대 아라뮤즈홀서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주회'를 열고,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 스님의 법어내용으로 작사된 선법가를 비롯해 가요 등 다양한 노래를 대중에게 선보였다.

이날 제주지원 소년소녀합창단은 선법가 중 '마음 밭 농사'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 '마음 밭에는' '나의 주인공'과 동요 '고향의 봄' '오빠 생각' '즐거운 나의 집&친구와 함께' 등을 합창하며 음성공양을 올렸다. 아울러 클라리넷 연주가인 부현정 씨와 드럼·퍼커션 연주가인 이병준 씨 등과 함께 무대를 꾸며 눈길을 끌었다.

연주회에서 한마음선원 재단이사장 혜수 스님은 "선법가를 열심히 부르다 보니 그 마음이 넓어지고 나와 더불어 남을 생각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인연 맺은 소중한 마음들이 합창단 노래로 더욱 밝아지고, 각자 자기 인생의 참 주인으로 당당한 삶을 이끌어나가는 주역이 되길 발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은 "대행선사의 법문을 받들어 어린 시절 마음도리를 알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창단을 창단하게 됐다"며 "아직은 부족하고 서툰 소리들이 많지만 아름다운 하모니를 향해가는 과정인 만큼 기특히 여겨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은 "봄 농사를 잘 지어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듯이 한마음선원 소년소녀합창단도 봄 농사를 잘 지어 제주를 대표하는 멋진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윤호섭 기자

〈1면에 이어〉

"기존 플랫폼 활용, 미디어 포교 1차 과제"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방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텀블러' '블로그' '유튜브' '플리커' 등등 최근 뉴미디어 분야는 하루에도 수십가지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있다. 이들 중 대중의 선택을 받는 플랫폼은 극소수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포교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빠른 변화의 분야인 만큼 전문가 대부분은 기존 플랫폼 활용이 직접 개발보다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3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카카오톡. 종단 플러스친구 등록 등 활용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10~20대 유튜브, 30대부터 카카오톡

앱분석 기관인 '와이즈앱'의 2017년 11월 연령대별 뉴미디어 플랫폼 이용 현황을 보면 10대의 경우 전체 플랫폼 이용 중 유튜브가 1위(51.8%)를, 카카오톡이 2위(17.2%)를, 페이스북이 3위를 차지했으며, 20대는 유튜브가 1위(33.7%), 카카오톡이 2위(32%)를, 네이버 앱이 3위를 차지했다.

30대부터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의 비중이 높아지고 페이스북 비중이 낮아졌다. 30대의 경우 카카오톡(29.7%), 네이버앱(27.3%), 유튜브(26.9%) 순, 40대는 카카오톡(27.6%), 네이버앱(28.1%), 유튜브(28.1%) 순으로 앱사용이 이뤄졌다. 50대 이상의 경우 카카오톡이 압도적인 36% 사용을 기록했으며 유튜브(27.8%), 네이버앱(17.1%) 등을 기록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온라인영상 이용자 환경을 보면 영상을 이용하는 기기에서는 모바일 기기가 대세로 등장해 모바일과 PC를 함께 이용하는 이용자가 67.3%, 모바일만 이용하는 이용자는 27.7%에 달했다. 이에 반해 PC만 사용하는 이용자는 3.2%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바일 미디어 플랫폼, 특히 유튜브와 카카오톡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희철 BTN PD는 "콘텐츠 개발에 앞서 먼저 플랫폼을 고려해야 한다. 불교계 주 신도층인 40대 이상을 위해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PD는 "최근 홍보 등이 진행 가능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이 있다. 종단과 사찰별 플러스 친구 개설을 추진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유명스님 편중, 영상 플랫폼 뒤쳐져

이와 함께 텍스트에 치우친 콘텐츠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유권준 불광미디어 웹콘텐츠 실장이 분석한 미디어 현황에 따르면 텍스트 미디어인 네이버 기사 건수에서는 불교는 8만2887건으로 기독교 3만8572건, 가톨릭 1만7459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영상 미디어의 대표주자인 유튜브 콘텐츠 현황을 보면 '불교' 키워드 콘텐츠는 20만5000건으로 기독교 74만4000건, 가톨릭 9만7000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SNS 중 대표격인 페이스북의 종교계 팔로워 수를 보면 템플스테이 관련 종합이 40만7300여 명, 법륜 스님이 12만8652명 등으로 기독교 다모여 10만370명, 국민일보 10만9037명, 평화방송 2만6681명에 비해 많았다. 네이버 밴드 또한 혜민 스님 관련 종합이 3만7500여명으로 기독교 포럼 4191명, 기독교 교우회 3862명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혜민 스님과 법륜 스님 등 일부 유명 스님에 대한 콘텐츠로 이를 제외하면 기독교계에 비해 뒤처졌다.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국장은 "종단 차원의 뉴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다양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원섭 포교원 전법팀장은 "'카카오 플러스 친구 개설' '사찰 홈페이지와 포털 연결' '위키디피아 관리 인력 배치' 등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인 과세 조세평등원칙 위배"

납세자연맹-종교명성센터, 3월 27일 헌법소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두 단체는 3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소원에는 불교 명진 스님, 도정 스님과 개신교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등 종교인 8명과 일반 국민 613명 등 621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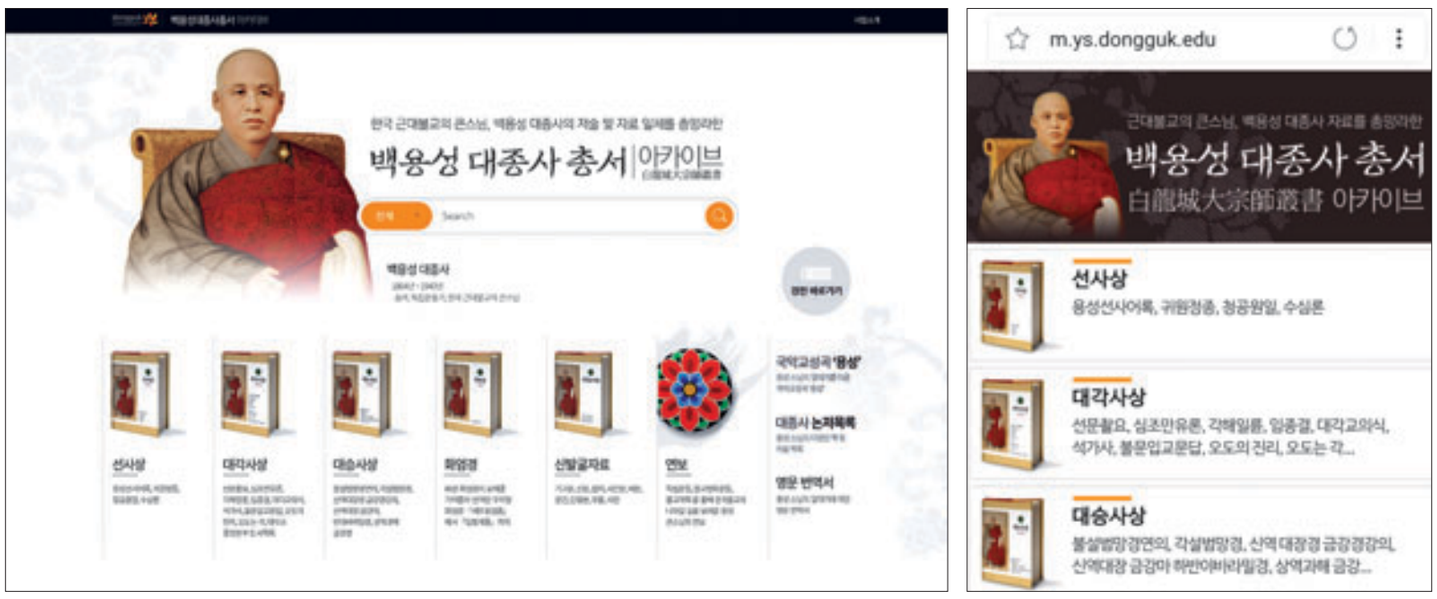
박진형 기자



백용성 스님 모든 것 디지털로 만난다

대각회, 4월 5일 총서 전산화 보고회

2013~17년까지 5개년 추진
작년 발간 총서 모두 수록해
PC · 모바일서 이용 가능 '눈길'
백용성 총서 E-Book 개발도
'총서-아카이브' 문헌 집성 모델



'백용성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 PC버전(사진 왼쪽)과 모바일 버전(사진 오른쪽)의 메인 화면. 백용성 총서를 디지털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 33인이자 한국불교 근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선지식인 백용성 스님(1864~1940)의 저서와 관련 자료들을 모두 디지털로 만날 수 있게 된다.

(재)조계종 대각회(이사장 혜총)는 오는 4월 5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 전산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이어졌던 대작 불사였다. 조사와 연구 · 개발 등은 대각사상연구원이 주도하고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 협력했다.

이들 기관은 5년동안 기존 자료 분석과 신 자료 수집, 현대어 번역, 총서 발간 등의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서 백용성 스님의 기고문 · 서간문 등이 새로 발굴되기도 했다. 총서 발간 이후 최종적으로 모든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총 20권으로 발간된 〈백용성 대종사 총서〉는 스님의 저서와 신발굴자료에 대한 현대어 해석, 그에 대한 영인본까지 전부 수록했다. 보고회를 통해 공개되는 아카이브 시스템은 총서를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또한 웹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총서를 이용할 수 있는 E-Book도 개발됐다.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발간한 학술지 〈전자불전〉 19집에 게재된 '백용성 대종사 총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과 총서 사업의 완료' 보고에 따르면 총서는 목차 및 송서면순의 목록 화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특정어를 검색하면 본문 전체와 레코드 단위로 검색 결과가 요약된다. 단락 보기 기능에서는 목차의 선택 및 이동, 글자 크기 조정, 인쇄, 각주보기 등 다양한 메뉴들이 탑재됐다. 통합 뷰어를 통해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볼 수도 있다.

타임라인 형식으로 구현된 '백용성 대종사 연보' 메뉴를 통해서는 선사의 생애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각회의 전산화 사업은 한국불교 문헌 집성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불교 단체와 학술 연구기관이 협력해 자료를 수집해 이를 현대어로 번역해 총서를 발간하고, 최종적으로 디지털 아카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는 "한 시대를 대표했던 선지식의 사상을 대중과 공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한 자료 수집 · 번역, 총서 발간,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과정은 역사적 인물 연구에 대한 '새로운 문화콘텐츠적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전산화 사업 회향을 알리는 보고회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축사를 비롯해 용성선사 소개 영상 상영, 아카이브 시스템 시연,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된다.

대각회 이사장 혜총 스님은 "한국불교 오랜 염원이었던 '백용성 대종사 총서 발간 및 전산화 사업'을 회향하게 됐다"면서 "보고회에 사부대중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기차로 떠나는 '봄꽃' 템플스테이

봄꽃이 만개하는 4월, 낭만 가득한 기차를 타고 봄꽃을 즐기며 템플스테이에서 심신을 달래는 관광상품이 개발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과 코레일관광개발은 4월 7일부터 22일까지 템플스테이와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나를 찾아 떠나는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시범운영한다. 사찰 접근성을 높이고,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기획된 이 시범사업에는 △구례 화엄사(4/7~8) △하동 쌍계사(4/7~8) △고창 선운사(4/14~15) △예산 수덕사(4/21~22) 등 4개 사찰이 참여한다.

웅장한 사찰 경내와 벚꽃을 즐기고 싶은 이라면 구례 화엄사로 떠나자. 이 코스는 화엄사 템플스테이와 섬진강 벚꽃축제가 특징이다. 화엄사 템플스테이는 '나를 꽃피우는 만다라 체험' '와선' '숲길 포행'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또 다른 벚꽃 관광지로는 하동 쌍계사를 추천한다. 이 코스에서는 쌍계사 템플스테이와 벚꽃 명소인 십리벚꽃길을 중심으로 여행할 수 있다. 쌍계사서는 스님과의 차담, 108염주만들기 등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조금은 색다른 청보리의 푸른 빛을 만끽하고 싶다면 고창으로 떠나자. 고창 선운사 코스는 내소사 탐방 후 선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즐기고, 청보리밭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상세한 정보와 예약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윤호섭 기자

[광고]

正統 養生學 古典
《삼원연수서》三元延壽書 강의

한의사 김재두

15 걸음과 서 있음. 行立。

○書云, 久行傷筋, 勞於肝°久立傷骨, 損於腎。

오래 걸으면 근(筋)이 상하여 간장(肝臟)을 노곤케 한다. 오래 서있으면 뼈를 상하여 신장(腎臟)에 손해를 끼친다.

○養生書云, 行不疾步, 立不至疲, 立勿背日。

양생서(養生書)에 이르기를, 빠르게 걷지 말고 ① 피로할 정도로 서있지 말며 태양을 등지고 서있지 말라. ②

○書云, 奔及走馬, 大動其氣, 氣逆於膈。未散而又飮水, 水搏於氣爲上逆。

달리는 말에 이를 만하게 빠르게 달리면 몸의 기(氣)가 크게 움직여 횡격막위로 솟아오른다. ③ 그 기(氣)가 흩어지지 않았는데 물을 마시면 물이 기(氣)를 때리게 되어 기(氣)가 위로 솟구친다.

○書云, 水有沙風處, 勿浴勿渡。當隨牛馬, 急渡之不傷人。水中又有水弩, 射人影卽死。以物打水, 令弩散急渡吉。

사풍(沙風)이 있는 강물, 바닷물에 목욕을 하지 말며 건너서도 안 된다. 우선 소, 말을 빠른 속도로 건너가게 하여 탈이 없으면 사람이 건너도 된다. 이유는 물속에 수노(水弩)가 있어 사람의 물에 비친 그림자에게만 그 독을 쏘아도 그 사람은 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에 물건을 들고 물을 때려 수노를 흩어지게 한 후 급히 건너면 길하다. ④

○書云, 行汗勿跛床懸脚, 久成血痺, 足痛腰疼。

걸어서 땀이 났을 때 발을 상위에 높이 올려놓지 말라. 장시간 행하면 혈액이 통하지 못하여 발에 통증이 생기고 요통도 생긴다.

○眞人曰, 夜行常咳齒, 殺鬼邪。

진인(眞人)이 말하기를, "밤에 걸어 다닐 때 항상 치아를 부딪치면 귀사(鬼邪)를 죽일 수 있다." ⑤

○沈存中筆談云, 草間有黃花蜘蛛, 名天蛇。遭其螫仍濡露, 則病如癩, 通身潰爛。露涉者愼之。

심존중(沈存中)의 《필담(筆談)》에 이르기를, 식물중의 누런 꽃에 사는 거미가 있는데 이름은 천사(天蛇)이다. 천사가 독충을 만나면 온몸에 진액을 흐르게 하여 자신을 보호한다. 사람 몸에 천사의 진액이 묻으면 온몸이 썩고 문드러져 진물이 흐르는데 증상이 나병(癩病)과 같다. 그러므로 풀 위에 이슬이 있으면 삼가며 지나가야 한다.

○書云, 大霧不宜遠行。行宜飮少酒, 以御霧露。昔有早行三人, 一食粥而病, 一空腹而死, 一飮酒而健, 酒能壯氣, 御霧露也。

짙은 안개가 낀 날에 먼 길을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길을 떠나기 전에 술을 조금 마시면 안개로 인해 생기는 병을 예방할 수 있다. ⑥

옛적에 세 사람이 안개 낀 날 새벽에 길을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은 중도(中途)에 죽고 죽을 먹은 사람은 병이 생겼으며 술을 먹은 사람은 건강하였다. 술은 능히 기(氣)를 장(壯)하게 하여 안개 때문에 생긴 병을 쳐부순 것이다.

註解

① 빠르게 걷지 말고 : 달리거나 빠르게 걷는 방법은 心肺와 근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氣가 산란해져 호흡이 가빠지니 마음까지 불안정해진다. 氣功의 三大要素인 調身 · 調息 · 調心에 위배된다.

② 태양을 등지고 서있지 말라. : 인류최초의 자연숭배는 태양이었다. 古代人의 상식으로 인간을 존속케 하는 天地日月에 대해 몸을 향하지 않는 것은 마음도 향하지 않는 의미로 간주되었다.

③ 달리는 말에 ~ 위로 솟아오른다. : 行 · 住 · 坐 · 臥 · 語 · 默 · 動 · 靜, 언제나 마음은 下丹田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意守丹田하면 氣血이 안정되면서 水昇火降하여 마음까지 寂靜해진다. 동양의 모든 무술에서 수련과 실전 중에 意守丹田을 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걷거나 달리는 중에 이어폰 음악을 듣거나 러닝머신 중에 T · V를 보는 행위는 더욱 氣血을 혼란시켜 유해하다. 이는 心 · 意 · 氣가 一致해야한다는 무술의 內三合의 原理에 어긋난다.

④ 사풍(沙風)이 있는 ~ 급히 건너면 길하다. : 原名은 瘴風 · 瘴瘡이다. 寒冷한 水毒및 이에 의해 생기는 病症을 일컫는 용어이다. 風 · 寒 · 暑 · 濕 · 諸氣에 의해 多發하는데 반드시 紅瘴이 있으며 頭痛 · 發熱 · 神昏 · 痲痺 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쉽게 말하면 바다 · 강 · 습지 · 이상기후에 있는 水毒에 감염된 급성질환을 말한다. 醫書를 보면 오래된 우물, 閉塞에 들어갔다가 가스 중독된 경우도 瘴風症의 범주이며 요즈음 거론되는 地下의 水脈도 사풍증의 원인이다. 최급악성의 紅瘴인 경우는 죽기도 하는데도 의학계에서는 감기 · 몸살 · 급성피부염 · 심장마비로 오인하고 있다.

○역자가 단체관광을 가서 대형 방에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등이 가려워 보니 검붉게 불에 탄 것 같은 손바닥만 한 흉터가 생겨있었다. 그러나 방바닥은 입실 때부터 온기 하나 없는 냉방이었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역자가 잠잔 곳은 온천탕의 바로 위였다.

○역자의 知人은 건강한 30대인데도 어느 날 양수리강변에서 낚시를 하고 와서 3일 만에 죽었다.

○한 50대 낚시꾼은 북한강에 이르러 낚시하려고 앉았다가 1분도 못되어 온몸에 붉은 두드러기가 돋아 3개월 만에 겨우 나았다.

○8월 중순 이후 해수욕장에 다녀온 후 감기몸살로 백약이 무효인 사례를 수십 명 듣고 보아왔다.

○어느 가을 날, 역자가 지방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날 그 동네에만 가벼운 산들바람이 불었다. 그날부터 역자를 비롯한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심한 감기에 걸렸다. 이는 서해 혹은 남해 바다 속에 수만 년 잠복되었던 水毒이 氣流移動을 한 것이다. 이런 일은 기상청에서도 예보할 수 없고 오직 靈能과 易學으로만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한의학에는 醫易이라는 분야가 있어 東西古今과 과거 · 현재 · 미래의 天下 · 國家 · 지역 · 개인의 모든 질병을 推斷한다.

⑤ 밤에 걸어 ~ 죽일 수 있다. : 잡귀 · 鬼邪 · 魑魅魍魎들은 금속성소리를 두려워한다. 승려가 錫杖을 집고 다닌다
거나 무당이 逐邪하기 위해 방울을 흔드는 것도 같은 의미이다.

⑥ 짙은 안개가 ~ 예방할 수 있다. : 역자는 본 구절을 1977년에 읽고 현재까지 金科玉條로 실천하고 있다. 비오는 날, 눈 오는 날, 추운 날, 沙風이 있는 바람 부는 날, 모두에 해당된다. 그러나 더운 날만은 예외이다.
1996년도 11월 중국 하얼빈에서 10일 동안 생활하였는데 매일 영하30℃ 가 넘는 혹한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다. 평소 음주하지 않았으나 이때만은 매일 고량주를 반 홉씩 먹음으로써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귀국을 하루 앞둔 날, 방심하여 음주하지 않았더니 당일로 감기에 걸려 여러 날 고생하였다. 서양의 민간요법으로, 감기에 독한 술을 마신다. 또한 서양인들은 등산 시에 필수적으로 술을 휴대하여 어떤 경우이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마신다.

○술(酒) : 血脈을 通하고 적게 마시면 精神을 壯하게 하며 寒滯를 흩어버리며 瘀結을 열고 음식을 消化시키고 經絡을 流通케 한다. -《本草綱目》

※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031)771-2260

아름다운동행, 어려운 이웃 위한 8만 4천 결사 시작

3월 28일부터 8만 4천 정기후원자 모집



선포식에 참여한 84명의 결사위원이 결사리플렛을 들고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이 한 달에 7,000원 씩, 일년에 8만 4천원을 기부하는 기부결사를 시작했다.

8만 4천 결사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해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는 캠페인으로서 점점 늘어나는 빈곤과 차별,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에 7,000원씩 모아 일년에 84,000원을 기부하는 것이다.

아름다운동행은 모연된 기금을 학교, 병원, 복지센터 건립과 불교시설 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결사 선포식에서 설정 스님은 "불교의 가르침 핵심은 바로 자비"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행보에 불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발원문 낭독과 함께 84명의 결사위원들이 참여해 약정식을 갖기도 했다. (02)737-9595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BTN '불자들의 방송' 위한 봄 개편

4월 2일부터 단행…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가 2018년 새봄을 맞아 프로그램 개편을 오는 4월 2일부터 단행했다.

올해 방송 슬로건을 '불자들의 방송'으로 정한 BTN은 스스로 당당히 불자임을 밝힐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는 교육과 다양한 사찰 순례 프로그램 등을 등을 대거 편성했다.

'내비둬 콘서트'로 대중화 소통했던 일감 스님이 진행하는 '만행(화14:30 · 20:30, 토14:30, 일10:00)'은 사찰 순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 무엇을 얻고 내려놓고자 하는지를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쉬는 법'을 스님과 함께 탐구한다.

새로 편성된 '인연 그리고 법연(수 · 금 9:30 · 14:30, 일17:30)'은 불교계의 선지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봉했던 상좌스님과 제자스님들의 인터뷰를 통한 큰스님 회고 프로그램으로 은사스님과의 인연, 가르침, 수행담 등 대중들에게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진행하는 '철학이 묻고 불교가 답하다(금13:00 · 22:00, 일1:00)'는 불교사상을 현대로 가져와 우리 삶 속에 투영해 봄으로써 21세기에 맞은 불교를 전한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도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초기불교 전문 연구자인 각묵 스님의 '석가 세존의 근본교리(월14:30 · 19:30, 토17:30, 일7:00)'를 비롯해 △내 마음의 부처를 찾다, 목우자 수심결(화7:30 · 16:00, 금2:00, 일12:30) △'청운스님의 재가불자들을 위한 이뭣고 수행법(수7:30 · 16:00, 일11:30)' △'효범스님의 업경타파, 문이 열린다(금7:30 · 16:00, 일20:00) 등의 프로그램들이 새로 마련된다.

이밖에도 BTN에서 국내 최초로 선보였던 부처님 일대기 장편 드라마 '드라마 붓다'가 한글 자막 버전으로 다시 방영되며, 성철 스님의 육성법문을 복원 작업을 통해 다시 만나는 '산은 산 물은 물'도 만날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사원터서 나온 천년 聖寶 진면목 만나다

지상중계 **한성백제博, '영국사와 도봉서원' 특별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2년 도봉서원터 발굴 중에
고려시대 불교 법구 대거 출토
금강령·금강저 등 국보급 평가
最古시기 천자문 석편도 확인

6월 3일까지 한성백제博 전시
기간 중 10회 연속 강좌 '눈길'

2012년 서울 도봉서원터 발굴 현장. 조선시대 유교서원인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발굴 중 유교서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찰에서 사용됐을 불교 용구들이 무려 77점이 발굴된 것이다. 그 중에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금강령, 금강저와 같은 국보급 고려시대 불교문화재들이 있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 불교의 사찰이 유교의 서원으로 탈바꿈돼 운영됐음을 확인할 수 있던 사례이기도 했다.

천년을 땅 속에 묻혔다가 다시 빛을 본 불교문화재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성백제박물관(관장 이인숙)은 오는 6월 3일까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는 '천년만에 빛을 본 영국사와 도봉서원'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가 눈길을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도봉서원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 중 출토된 국보급 문화재인 금동제 금강령과 금강저를 비롯한 고려시대 불교용구 79점을 모두 선보이는 최초의 전시이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문화재는 고려시대인 12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강령과 금강저이다. 이미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도봉서원 출토 금강령과 금강저는 고려 불교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준다.

특히 금강령의 경우 20cm가 채 안되는 크기임에도 오대명왕(五大明王)과 함께 범천·제석천·사천왕 등 모두 11구의 불교 존상(尊像)들이 세밀히 표현돼 있다. 이 같은 불교 법구는 한국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이기도 하다. 오고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금강저 역시 그 조형미가 매우 빼어나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급 불교 성보인 금강령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360도 VR 영상을 제작했으며, 관람객들은 3D 이미지를 직접 돌려가면서 금강령을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도봉산영국사혜거국사비(道峯山寧國寺慧炬國師碑)'의 탁본도 공개된다. 영국사 혜거국사비 비편은 길이 62㎝, 폭 52㎝, 두께 20㎝로 총 281자가 새겨져 있으며,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이중 256자를 해독했다.

혜거국사비는 선조의 아들이며 서화가인 이우가 편찬한 금석문 탁본집인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 1668)〉에 88자의 비문만 전해졌다. 하지만 비문이 발굴·해독되면서 '영동지륵산영국사'로 잘못 알려졌던 혜거국사비의 출처를 정확하게 알게 됐으며, 영국사 혜거국사(慧炬)가 갈양사 혜거국사(惠居, 고려 최초의 국사)가 동일인이 아닌 동시대를 함께한 동명이인인 것도 명확해졌다. 또한, 이를 통해 구산선문 중 사자산문(獅子山門)의 초기 5대 선사의 계보를 밝힐 수 있게 됐다.

함께 발굴된 천자문 석편과 불교 석경들도 주목할 만하다. '천자문 석편'에는 천자문 총 250구 가운데 163구인 '치본어농(治本於農, 다스림은 농사로 근본을 삼는다)'의 '치본', 165구인 '숙재남무(載南畝, 남쪽 이랑에 나가 일을 한다)'의 '숙재', 167구인 '세숙공신(稅熟貢新, 익은 곡식에 구실을 매기고 햇것을 공물로 바친다)'의 '세숙'이 확인됐다. 서풍으로 보아 석경과 천자문 모두 고려 10~11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존 천자문 석편 중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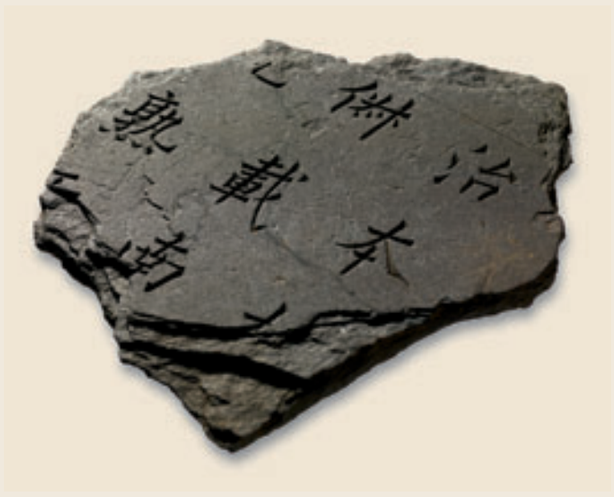
불교 경전을 돌에 새긴 석경은 불교 경전을 돌에 새긴 것으로, 도봉서원 출토 석경은 법화경 '제1 서품'·'제3 비유품'·'제28 보현보살권발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봉서원 석경이 발견되기까지는 통일신라 석경만 확인됐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성보이다.

영국사가 조선시대에서 도봉서원으로 변화·운영되는 면모들도 조명된다. 전시에서는 도봉서원의 건립과 구조,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도봉서원 인식 등을 이이의 〈율곡전서〉, 송시열의 〈송자대전〉, 권상하의 〈한수재집〉 등을 통해서 소개한다.

또한, 도봉서원 및 그 일대를 그린 겸재 정선의 '도봉추색도(한양대박물관 소장)', 현재 심사정의 '도봉서원도(건국대박물관 소장)'도 전시된다.

이와함께 전시회 기간 동안 총 10회에 걸쳐 '고려시대 영국사와 조선시대 도봉서원'에 대한 전시 연계 강연회도 개최된다. 강연은 매주 화요일 열리며 강우방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장, 최연식 동국대 교수, 강희정 서강대 교수, 최응천 동국대 교수, 조미영 원광대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선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한성백제박물관은 "현재 도봉서원터가 고려시대 영국사라는 불교의 도량에서 어떻게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성지로 변화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됐는지를 전시를 통해 조명할 것"이라며 "1000년에 걸쳐 서울의 불교와 유교, 사상의 중심지였던 그 땅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도봉서원터에서 나온 천자문 석편. 10세기 제작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존 천자문 석편 중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사례다.



법화경 '제28 보현보살권발품'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석경. 고려시대 제작됐다. 현존하는 유일의 고려시대 석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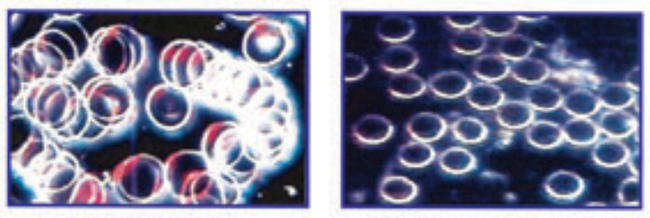
도봉서원터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제작 추청 금강령〈사진 오른쪽〉과 금강저〈사진 왼쪽〉. 고려 시대 불교 금속공예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유물로, 특히 금강령의 경우 20cm가 안되는 크기에도 오대명왕 등이 세밀하게 새겨져 있어 국보급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생혈액 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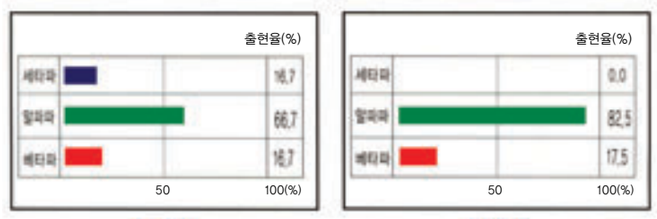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뇌파 측정촬영 (한국원적외선협회 촬영)



사용전 사용후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사용전

발모촉진



사용6개월 후

검버섯



사용전

제거 현상



사용6개월 후

㈜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국립중앙박물관 강의실

"불교 수용한 신라, 佛法으로 권력 견제해"

불교가 한국 사회에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의 경상북도 일원을 무대로 하는 신라 불교가 오늘날 한국 불교의 기원에 해당함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남동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는 3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 역사문화교실에서 불교의 수용과 신라 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남 교수는 "불교가 세속 권력인 국왕권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킨 측면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불법(佛法) 이라는 보편적인 진리로 끊임없이 견제한 측면도 있다"며 "신라 사회의 양대 권력인 왕권과 교권이 상호 견제하고 보완한 과정이 다름 아닌 국왕관의 불교화인데 그것이 불교를 수용하면서 일어난 신라 사회의 중요한 변화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리=박진형 기자

주제 : 불교의 수용과 신라 사회의 변화

남동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남동신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과 학사부터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2009년부터 서울대 국사학과 부교수로 있다. 2009년부터 역사학회 총무이사직을 맡고 있으며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기도 하다.

고구려서 문물과 불교 함께 넘어와
왕권 · 교권 상호 견제 · 보완 역할
7세기에는 '불교대중화운동' 도…
세속권력 의지해 세속화길 걷기도

위로부터의 불교 수용

불교는 중국으로부터 4세기 말에 고구려와 백제에 각각 전해졌으며 신라는 이보다 늦은 5세기 전반에 고구려로부터 전래됐습니다.

신라는 4세기 말 내물왕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대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웃 강대국인 고구려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국가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선진적인 문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눌지왕 때(417~458) 고구려에서 묵호자라는 승려가 처음 선산 지방에 불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뒤이어 아도를 비롯한 몇몇 고구려 승려가 차례로 선산 지방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불교가 신라와 고구려의 우호적인 관계 하에서 왕실까지 전해졌지만 곧바로 상황이 뒤바뀌면서 승려들이 탄압을 받게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불교 초전 관계 자료에서는 묵호자, 아도, 정방, 멸구자 등 고구려에서 온 초전 승려들이 신라 지배층에 의하여 피살되었거나 까닭 없이 종적을 감추었다고 하여 외래 문화인 불교에 대한 신라 사회의 거부감이 상당히 거세었음을 시사합니다. 고구려 계통 불교에 대하여 신라 왕실의 태도가 급격히 나빠진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정세의 급변입니다. 고구려는 장수왕 15년(425) 평양 천도를 계기로 본격적인 남진정책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고구려와 한반도 남부 왕조들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둘째는 불교와 기왕의 이념체계인 무교, 샤머니즘 사이의 사상 갈등이었습니다. 신 중심의 세계관과 차별적인 인간관을 내세우는 무교와 인간 중심의 세계관과 평등한 인간관을 내세우는 불교 이 양자 사이의 충돌은 시간 문제였죠.

소지왕대 들어서면서 고구려계통 불교에 대한 탄압이 한동안 지속됐는데 신라는 외래의 불교를 탄압하는 한편 기왕의 이데올로기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지배적인 문화가 된 통일신라 이후에는 왕실이나 불교교단 모두 불교 초전 당시 왕실에 의한 불교 탄압을 언급하기 꺼렸습니다.

신라는 4세기 이래 내부적으로는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우경(牛耕) 이 실시되면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농업과 함께 상업도 발전했고, 촌락사회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종래의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법흥왕대에는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의 복장을 새로 제정한다든가 정치제도를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문물제도 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문화내지 이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중국 양(梁)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됐고, 당시 양나라의 무제는 불교황제였습니다. 양국을 왕래하던 사신과 상인을 통해 신라 왕실은 불교를 재인식했으며 마침내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들은 불교 공인을 주장하기 시작했지만 전통 귀족세력들은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명분은 불교가 가지는 이질감과 각종 불사에 따르는 막대한 경비지출 및 민력의 낭비였습니다. 불교의 공인문제를 둘러싸고 당시의 정치세력은 국왕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와 대다수의 신하들이 가담한 반대파로 양분됐습니다.

애초에 신라는 체제정비의 일환에서 중국으로부터 선진문물과 제도를 수입하였으니 불교는 그러한 선진문물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즉 불교 수용의 방식을 둘러싸고는 정치세력 사이에 이견이나 주도권 다툼이 있었겠지만 불교로 상징되는 중국의 선진문물 수용은 시대의 요청이었기 때문에 이차돈의 죽음을 계기로 불교는 마침내 공인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짧은 시간에 불교는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5세기 초~ 6세기 중반까지 불교를 주요 이념으로 하여 국가를 경영하는 '불교치국책(佛敎治國策)' 을 견지했습니다. 그 결과 불교는 신라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가는 이념적 지주가 되었으며 마침내 왕실의 권위를 불교적으로 수식해주는 불교식 왕명시대 를 연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불교 사찰은 그러한 정책의 중심지였으며 승려는 그 중심세력이 됐습니다. 이들은 스님으로서 종교적 임무 못지않게 지식인 · 정치가 · 군략가 · 외교가 · 예술가 등의 세속적인 역할도 수행하했기에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교 수용과 국왕관의 변천

이렇듯 불교는 위로부터 한국 사회에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수용 과정상의 이러한 특징이 중앙집권체제 사회와 맞물리면서 한국 불교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일방적으로 국가나 지배층의 이익을 위해 봉사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국왕 또한 불교를 통치의 협력자로 우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불교도들이 갖고 있는 이상적인 군주상에 스스로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불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국왕관 또한 불교화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불교 수용 이후 종래의 천손족설은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신라 중고기 동안 왕실은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것 못지않게 스스로 불교도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은 말년에 스스로 출가하여 법공(法空)이라고 했습니다. 진흥왕은 최초로 승정기구를 설치했고 새로운 점령지를 순수할 때는 승려들을 대동했다. 말년에는 스스로 출가하여 법운(法雲)이라고 했고, 왕비도 비구니가 되어 영흥사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국왕의 출가는 전륜성왕의 출가를 재현한 것입니다.

중고기의 대부분의 왕들은 이름을 불교에서 따왔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불교식 왕명시대 라고도 합니다.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白淨)이고 왕비의 이름은 마야부인인데 이는 석가모니의 부모 이름과 같죠. 진평왕의 딸이 나중에 선덕여왕이 됐죠. 선덕은 전륜성왕의 실제 모델이 된 아육왕의 전생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또 귀족회의체인 화백회의는 석가모니 당시 불교 교단의 운영원리인 상가의 이념을 수용해 만장일치제로 운영했습니다.

국가의식을 고취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법회도 개최됐습니다. 팔관회는 원래 재가신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사찰에 가서 그날 하루 낮밤 동안만이라도 계율을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또 호국적인 법회로서 〈인왕경〉에 근거한 인왕백고좌회가 있었는데 선덕여왕 때에는 여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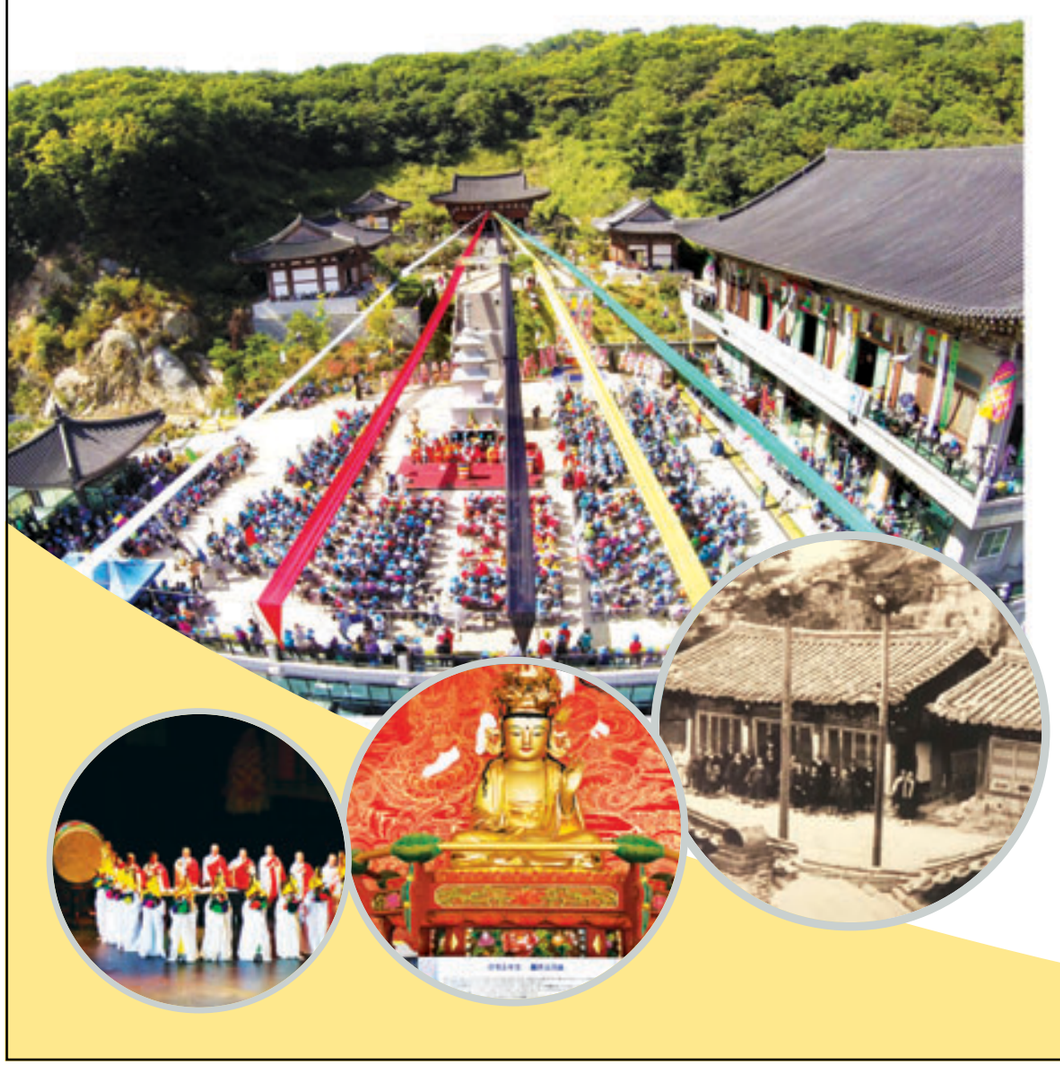
신라 중고기 불교는 진골출신으로서 중국 유학을 다녀와 교단의 상층부를 장악한 승려들이 주도했습니다. 따라서 세속적 역할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승려들은 불교적 이상과 국가적 현실 사이에서 고뇌해야 했습니다. 원광이나 자장은 강력한 출가주의 정신에 입각해 있으면서 동시에 신라 사회의 세속적 요청에 충실히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진골귀족과의 타협 하에 위로부터 이상적인 불교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셈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국가관은 왕실 및 진골귀족 중심이었으며 일반민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소외됐습니다.

불교대중화와 보살위왕설(菩薩爲王說)

7세기 전반기에 접어들면서 종래의 지배층 중심의 불교를 비판하고 일반민에 대해 종교적 관심을 고취하는 이른바 불교대중화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비 진골 출신으로서 중국유학을 하지 못하고 교단에서도 소외당한 승려들이 주도했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불교를 일반민의 입장에서 재해석하고 실천하려는 것이었는데 7세기 중 · 후반 원효와 의상으로 계승됐습니다. 원효와 의상은 기존의 사회질서나 국가체제를 그대로 추인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통일신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불교적 평등사회의 건설에서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소외되었던 일반민과 지방사회에 대하여 더 많은 종교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이들에 대한 지배층의 양보를 촉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상을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의 구현을 위하여 실천에도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중고기 진골귀족 중심의 불교와 분명히 다른 모습이죠.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원효나 의상은 불교적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일련의 진취적인 불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의 현실은 오히려 세속권력이 불교에 대한 통제와 간섭을 강화시키고 있었습니다.

654년 태종무열왕은 김유신의 지원에 힘입어 중대 왕실을 개창하였으며 삼국통일을 완수했습니다. 중대왕실은 삼국통일에 따른 권위를 바탕으로 정치에 있어서 불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정치운영의 원리로 유교를 더욱 중시했습니다. 왕실은 사적으로는 여전히 불교를 신봉했지만 공적으로는 불교교단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결국 중대에 접어들면서 불교교단은 앞 시기에 비하여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승려들은 불교의 치외법권을 망각하고 국왕에 대하여 칭신하게 된다 일체의 권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자 했고 실제로 신라 왕실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선승들조차 고려의 패권이 확연해지자 다시금 고려 왕실에 대한 칭신의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불교교단에 대하여 관료제도에 준하는 세속적 기능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불교 교단은 세속권력에 의지한 채 점점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청련사 창건 119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양주 청련사의 역사와 문화」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천년고찰 청련사에서는 문헌고증을 통해 청련사의 지난 역사를 정립하고 현재와 미래의 종교적 역할을 제시함과 더불어 1200여년 동안 유지, 전승되어온 유형 · 무형 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를 통해 천년고찰 청련사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아 래

일 시 : 2018년 4월 14일(토) 14시
장 소 : 양주 천년고찰 청련사 대적광전
주 최 : 천년고찰 청련사
후 원 :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태고총림 선암사, 양주시청, 장흥면사무소, BTN불교TV, BBS불교방송, 한국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 ㈜ 푸른연꽃마을
문 의 : ☎ 031)836-2439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청련사)

세미나 식순

시 간	내 용
〈입 재 식〉	▸사 회 (철오스님)
14:00 ~ 14:30	▸경과보고 (효능스님)
	▸인사말씀 (천년고찰 청련사 총무 상진스님)
	▸축 사 (내 · 외빈)
	▸축 가 (심향합창단 – 공심공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주제발표〉	
14:30 ~ 14:50	**【제1주제】"청련사의 역사적 변천과 위상"**
	■발 표 : 이종수 (순천대학교)
14:50 ~ 15:10	**【제2주제】"양주 청련사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
	■발 표 : 유근자 (동국대학교)
15:10 ~ 15:30	휴식
15:30 ~ 15:50	**【제3주제】"조선 말기 청련사와 왕실발원 불화"**
	■발 표 : 유경희 (국립중앙박물관)
15:50 ~ 16:10	**【제4주제】"청련사 어산상진 계보와 성음의 특징"**
	■발 표 : 윤소희 (동국대학교)
16:10 ~ 16:30	**【제5주제】"진호사찰 청련사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전통의례문화"**
	■발 표 : 이성운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전체토론〉	
16:30 ~ 17:30	▸좌 장 : 최종남 (중앙승가대학교)
	▸토론자 : 김종진 (동국대학교), 최엽 (동국대학교)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손인애 (서울대학교)

공유기술 발전 맞춰 불교공동체도 발전

⑥ 공유사회와 불교공동체



미세먼지가 며칠째 한반도의 하늘을 흙빛으로 덮고 있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한사람들이 넘쳐난다. 매년 봄이 되면 일시적인 황사로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는 초미세먼지가 계절을 따지지 않고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심해질 텐데 모두들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였다. 20여년전,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과 생명운동을 전개하셨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을 찾아뵈었을 때 하신말씀이 기억에 난다. "앞으로 큰일이네, 중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만들어대면 그 많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을 우리가 다 들이마실 텐데, 걱정이네." 그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제러미 리프킨 교수의 〈한계비용 제로사회-The zero marginal cost society〉에서 언급되었듯이 자본주의 경쟁구조가 치열해질수록, 독점적 기술혁신으로 생산성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자본주의는 한계비용인 마진이 제로에 도달하면서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적 구조와 싼 노동력, 대량생산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로 마진의 경제구조를 향해가고 있는 현재의 독점적 자본주의는 사회를 멍들게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도 많은 상품들로 둘러 쌓여있다. 매일 TV쇼핑몰에서는 너무도 저렴한 물건을 마구 팔아대고 있다. 결국 모든 집에 쌓여가는 것이 상품들이며 이제는 옷들도 일회용품 같이 쓰다가 버리는 세상이 되었다. 특히, 중저가 의류의 경우 현재 80% 이상이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고, 다른 상품들도 거의 중국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세계의 공장지대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세먼지의 고통은 '쓰고 버리는 대량소비, 대량생산의 사회'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 이제, 소비의 시대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용어는 로렌스 레식 교수가 2008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 대신 필요에 따라 서로 공유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008년은 리먼브라더스 투자은행이 650조원의 엄청난 부실대출로 파산하며 세계경제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만들었던 시기이다. 금융자본가들의 부도덕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을 빚더미에 쌓이게 하였다. 결국, 세계의 경제는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빈부격차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하게 되었고,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미국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들은 물품의 교환, 대여, 임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소비운동은 환경운동가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단순히 비용절감 만을 위해 활동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은 이미 1974년 '쓰고 버리는 시대를 생각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40여년 동안 대량소비, 대량생산에 따른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

공유경제는 합리적 소비를 통해 과잉생산으로 인한 잉여물과 과잉소비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운동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면서 공유경제는 한발 더 나아가 협력적 공유사회(Collaborative commons)라는 새로운 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려하고 있다. 즉 21세기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공존과 협업, 수평적 네트워크,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대안화폐,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 사회를 펼쳐나가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시대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유경제는 제품 및 물품교환서비스와 협력적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에서 시작되어 금융, 인력, 교육, 에너지 등 매우 다양한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 내가 처음 체험한 사례는 7년전 마포 성미산에서 시작된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이라는 Share-house개념으로 주택 공유사업이었다. 비싼 집값과 아이 돌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간을 공유하여 비용을 절약하는 멋진 생각이었다. 지금은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어 기업형 셰어하우스, 공유오피스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잉여 생산물 분배 효과 지녀
공동체 상호 이익에 근간
공유 사회는 나눔과 자비실천 사회

특히 세계적인 숙박공유서비스인 에어비엔비(AirB&B)는 외국에 여행가면서 두 번 이용했는데 비용절감 및 색다른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장점으로 2008년에 설립되어 190개국 34,000개 도시에 150만개의 숙소 목록이 있으며, 현재 기업가치가 250억 달러의 플랫폼 회사로 성장했다. 더욱이 2009년에 설립된 우버(Uber)는 차량공유업체로 유명한데 현재 기업가치가 690억 달러로 GM, Ford, Honda 회사보다 더 큰 기업이 되었다. 협력적 소비는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꾸준히 성장해왔다. 영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영국 성인 4명중 1명은 온라인에서 협력적 소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토시 경우 공유경제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40여개 대학이 밀집한 교토시는 13%에 해당하는 빈집을 셰어하우스로 개조해 대학생 및 예술가들이 싸게 활용하고 있으며, 입주자끼리 교류가 늘어나면서 구시가지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이동수단도 커뮤니티 자전거를 활성화해서 대학 캠퍼스에 스마트 앱을 이용한 무료 자전거 공유를 시작했다. 이런 공유경제의 확대는 구성원간의 신뢰를 높이는 공동체 의식을 회복함으로서 사회를 밝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공유경제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민관 공동으로 공유촉진위원회 및 공유허브 사이트를 구축해 공유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물건, 공간, 지식, 정보 등의 공유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건공유는 카셰어링, 공구도서관, 공유서가, 아이옷-정장 공유 등을 시행하고 있고, 공간 공유는 공공시설, 옥상, 주차장, 도시민박, 도시텃밭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지식공유는 서울e-품앗이, 휴먼라이브러리, 여행 및 재능공유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들도 들어나고 있다. 기존의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유자동차 기업인 우버는 개인택시의 기본요금보다 30% 이하로 저렴하게 하면서 기존 택시업계를 흔들고 있다. 또한 에어비엔비 역시 막대한 수수료를 집주인과 이용자에게 받고 있지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면서 수익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협력적 소비모델의 공유사회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 의식을 잃어가고 있다. IT 정보의 독점과 집중화가 공유사회의 본질적 가치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런 IT정보의 독점과 중앙집중식 서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공유기술인 블록체인이 새로운 인터넷 혁명을 불러오고 있다. 기존의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네이버 등의 정보 독점기업들의 중앙집중식 서버운영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해 개인과 개인의 네트워크인 P2P(person to person)를 기반으로 한 분산형 신뢰 네트워크인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공유사회를 꿈꾸며 확산되고 있다. 수수료 없는 사회, 정보독점 없는 사회, 개인의 정보를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우버, 에어비엔비, 은행 등을 대신할 공유기업을 창업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탈중앙화를 내걸고 새로운 디지털 박애주의 꿈꾸며 제러미 교수가 언급한 협력 적 공유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자본주의는 경쟁사회를 기초로 물신주의를 자극하여 외향적인 발전을 해왔다. 물론 인간의 삶을 물질적으로 향상시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의 독점을 가속시키고 경쟁사회를 부추겨서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개인주의 확대와 빈부격차에 의한 정신적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서 고통스런 삶과 경쟁을 위한 분쟁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서양의 물신주의를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동양의 가치관은 농경사회를 기초로 하고 있어 공동체적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특히 불교의 세계관은 모든 개인과 개인, 모든 만물과 만물이 서로 연결된 관계의 인드라망 생명공동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론 역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두 관계되고 순환하여 비록 미약한 티끌이라도 온 우주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경쟁적 자본주의와 중앙집중식의 독점주의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사회인 것이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뇌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모두가 한 뿌리에서 시작되었으며 모두가 서로 연결된 관계의 인드라망 임을 깨달아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적 인식을 가질 때만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또한 2010년 입적하신 법정 스님은 물신주의에 고통받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무소유의 삶을 보여주고 떠나셨다. 고도성장과 쓰다 버리는 물질 만능의 황량한 우리사회에 촉촉이 적셔주는 샘물 같은 모습과 말씀을 남기셨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

내일도 미세먼지와 황사가 다시 우리에게 닦아온다. 그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 퍼져버린 물질문명의 풍요는 이제 불안과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이제라도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생명공동체를 위해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



황도근(상지대 교수)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평화의 불' 밝히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부처님 탄생성지 네팔 룸비니 동산에서 채화하여 구법순례의 길을 따라 한반도로 이운한 평화의 불이 북녘 땅에도 밝혀지기를 촉구합니다.

평화의 불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화합정신만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혀진 불입니다. 이 평화의 불을 한반도에 이운한 것은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 정전 60주년을 맞아 남북의 평화정착과 불법홍포를 발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하며 평화의 불이 북녘 땅에도 밝혀져 평화 정착과 긴장관계 해소에 일조하였으면 합니다. 그 동안 평화의 불은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주관 아래 '평화와 희망을 한반도에'라는 주제로 전국 주요 사찰과 지역, 단체 그리고 군법당, 해외 등 1백여 곳에 밝히고 있지만 북녘 땅에만 한 곳도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평화의 불은 자비와 평화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한 금강산 신계사를 비롯 평양의 광법사 등 북녘의 주요 사찰에 평화의 불을 밝히고 남북의 소통과 평화를 기원한다면 평화 공존을 위한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화합의 상징인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평화정착과 남북화합을 위한 합동법회 봉행함으로서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 인식시키고 불교의 평화정착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한 당국자는 하루 빨리 평화의 불이 북녘 땅에 밝혀 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의 불이 북녘 땅에 밝혀짐은 분단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의 꽃을 피우고 7천만 민족의 새로운 민족화합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평화의 불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곳곳에 밝혀지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합니다. 또한 평화의 불이 북녘 땅에도 밝혀져 부처님의 평화사상을 정착시키고 소통과 화합의 다리를 놓기를 기원합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가 평화와 생명존중 그리고 민족화합을 구현하는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2562(2018)년 3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일동

‘환지본처’ 할 명부시왕 보좌 동자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⑥ 예천 용문사 · 진주 청곡사의 ‘목조동자상’



문화재청 〈도난문화재도록〉에 있는 예천 용문사 명부전에 있던 시왕상과 동자상들의 도난 전 모습(사진 위). 1989년 4월 5일 도난됐다. 점선으로 표시된 동자상들은 한 사찰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것이 확인됐다. 사진 아래는 사찰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동자상이며 모두 도난된 예천 용문사의 동자상으로 추정된다.

주로 명부전에 봉안됐던 동자상
크기 작아 일제강점기부터 도난
일선 수집가 · 박물관에 흘러들어가
도난신고 많지 않아 환수 어려움
관람 대상 아닌 신앙 · 예경의 성보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조각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이동하기 쉬운 크기의 여래상, 보살상, 동자상, 인왕상 등이 대부분이지만. 이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는 존상은 전각에 주불로 봉안된 여래상보다는 명부전 등에 봉안되었던 동자상이다. 동자상은 주로 임진왜란 이후 사찰의 중창과 더불어 명부전 내 시왕상을 보좌하는 시자(侍子)로 봉안된 존상이다. 명부전 내에 봉안된 동자상은 선동자, 악동자로 불리는 데, 대체로 이들 선악동자상은 소조나 나무로 제작되고, 어린 소년이나 소녀의 모습이다.

동자상은 머리에 쌍계(雙)나 길게 머리카락을 딴 형태이고, 양손에는 두루마리, 붓, 벼루, 봉황, 호랑이, 자라, 수박 등 다양한 지물을 들고 있다. 명부전 등 전각 내에 봉안된 동자상 수량은 최소한 10구 이상이 된다.

이 동자상들은 앞에 열거했던 것처럼 동물이나 연봉오리 등의 지물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 형태로, 크기가 60~80㎝ 정도라 운반이 용이할 뿐 아니라 일반 수집가들이 수집의 대상으로 선호하는 유물들이다. 그래서인지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수많은 동자상들이 도난당해왔고, 불법이든 합법적이든 일종의 거래를 통해서 박물관이나 개인들이 소장하게 되었다. 2003년에 국립청주박물관에서 개최한 ‘불교동자상’ 전시는 사찰을 비롯한 박물관이나 개인이 소장한 많은 동자상이 출품된 대표적인 특별전이었다.

이들 동자상을 도난당한 사찰은 한국전쟁 기간에 피해를 입지 않은 사찰이지만, 전쟁이 끝나고 1970~80년대 가장 많은 도난을 당하였다. 현재 문화재청에 도난 신고된 동자상은 예천 용문사(1989년 4월 5일 도난), 해남 미황사(2001년 10월 15일 도난), 통영 안정사(2009년 7월 5일 도난), 진주 청곡사(1988년 2월 6일) 밖에 없고, 도난 동자상의 형태를 알 수 있는 사진도 1~2점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동자상이 대부분 도난을 당해서 완벽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 상대적으로 몇 군데 되지 못하고 있다. 동자상이 완벽하게 남아있는 사찰은 고성 옥천사 명부전과 화성 용주사 명부전이 대표적이다.

도난 동자상 중에 주목되는 사찰은 경북 지역에 있는 예천 용문사이다. 예천 용문사는 한국전쟁 중에 피해를 입지 않아서 경북에서 가장 성보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사찰 중에 하나이다.

용문사는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용문산(龍門山) 중턱에 자리한 사찰로, 조계종 8교구 본사인 직지사의 말사이다. 이 사찰은 〈김룡사본말사지(金龍寺本末寺誌)〉에 의하면, 870년에 두운(杜雲)스님이 절을 창건하여 용문사라 이름을 붙였다. 936년에 태조의 명으로 절을 중건하고, 983년에 청석(靑石)으로 구층탑을 세웠다.

1165년에 자엄(資嚴) 스님 등이 여러 법당과 승방 등을 건립하고, 1171년에 태자의 태(胎)를 보관한 뒤 절 이름을 창기사(昌期寺)로 바꾸고 축성수법회(祝聖壽法會)를 열었다. 1179년에 사찰 중건이 마무리되자 용문사에서는 선문구산의 승려 500명을 모아 50일 담선회(談禪會)를 열었다. 1478년에 소헌왕비(昭憲王妃)의 태실(胎室)을 봉안하고, 다시 사찰 이름을 성불산 용문사로 고쳤다.

임진왜란 이후 피해를 입었는지 1608년에는 혜명(慧明)이 제하당(霽霞堂)을 중수하고, 1636년에 학문(學文)이 적묵당(寂墨堂)을, 그리고 1637년에는 두인(杜印)이 범종루를 지었다. 그리고 1680년대 목각탱과 명부전 불상 등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17세기 후반 사찰의 중창 불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1783년에 문효세자(文孝世子)의 태실을 봉안하고 소백산 용문사로 이름을 고쳤다. 1835년에 사찰이 화재로 모두 타 버린 것을 열파(悅坡), 상민(尙敏), 부열(富悅) 등 여러 승려들이 힘을 합쳐 1840년대에 중건불사를 마쳤다.

조선 후기에 용문사에 몇 구의 동자상이 조성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예천 용문사 재산대장에 ‘동자상(童子像) 토체(土 14’과 1932년 12월에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소장품목록에 ‘동자(童子) 토체도채(土 塗彩) 14 입상(立像) 고(高) 2척(尺)’으로 언급되어 흙으로 만들어진 후, 색이 칠해진 60cm의 14구의 동자상이 있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현재 동자상은 목조로 되어 있어 다른 작품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기본 토대는 나무에 흙으로 옷 주름 등을 붙였는지 목조로 만든 동자상에 비해 입체감이 있다. 현재 사찰에 남아있는 동자상은 1구 밖에 없어 13구의 동자상이 사찰을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교문화재 도난문화재 증보판(2017)〉에 의하면 동자상 9구는 1989년 4월 5일에 도난당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책에 용문사 동자상 4점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용문사에 남아있는 동자상은 머리 위에 상투를 양쪽으로 묶은 쌍계 형태로 머리에서 이마가 차지하는 폭이 넓고, 이목구비가 작은 편이다, 신체비례가 균형이 잡혀 있고, 무릎까지 내려온 붉은 색의 긴 저고리를 입고 양손을 어깨 높이까지 올려 연꽃을 들고 있다. 균형 잡힌 자세와 살이 오른 신체표현에서 어린 아이의 천진함이 보이는 우수한 작품이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도난당한 동자상은 사자의 발을 잡고 있는 동자상으로 사자의 몸이 뒤집어져 있고, 또 다른 동자상은 앞발을 벌린 채 동자의 품에 안긴 청사자상이 붉은 혀를 내밀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동자상과 같이 동자상이 모 사찰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특별전을 통해 공개한 동자상 가운데 두 점은 예천 용문사 도난 동자상과 비교하면 이마가 매우 넓고, 옷깃이 자연스럽게 접혀 있으며, 청색과 녹색의 저고리, 사자를 잡고 있는 자세가 똑같다. 이 동자상이 성보박물관에 소장된 경위까지 밝힐 수 없었지만, 도난 이후 기증이나 거래를 통해 사찰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외 용문사에서 없어진 11점은 정면 사진만 확보된다면 언젠가 소장처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도난 동자상 중에 주목되는 사찰은 진주 청곡사이다. 〈불교문화재 도난문화재 증보판(2017)〉에 의하면 1988년 2월 6일에 동자상 10점을 도난당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아쉽게도 도난 동자상 사진은 1점만 문화재청에 신고돼 있다. 그러나 청곡사 성보박물관 입구에는 도난된 동자상 10점이 촬영된 사진이 걸려 있어서 대체적인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도난백서에는 전체가 올라가 있지 못한 것은 사찰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문화재청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월아산로에 위치한 청곡사는 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말사이다. 879년에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창건하였는데, 월아산 남쪽 남강변으로 청학(靑鶴)이 날아오니 서기(瑞氣)가 충만해 그 자리에 절을 지었다고 한다. 1380년에 실상사(實相寺)의 상총(尙聰)이 중건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선종(禪宗)에 속하였다.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되었던 것을 1602년에 계행(戒行)과 극명(克明)이 중건하였고, 1612년 대웅전을 중건한 후, 1657년에는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좌상이 조성된 것으로 보아 업경전(業鏡殿)이 17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전각 내 봉안된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과 ‘진양동월아산청곡사불상개금시왕개채기(晉陽東月牙山靑谷寺佛像改金十王改彩記)’에 의하면 업경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은 1657년에 화공(畵工) 인영(印迎), 탄준(誕), 지변(智邊), 학렴(學廉), 서명(瑞明), 법률(法律), 종탄(宗誕), 선우(善祐)가 만들었고, 1750년에 지장보살의 개금과 시왕상의 개채가 이루어졌다.

업경전 내 봉안되었던 동자상은 쌍계와 연잎을 뒤집어 쓴 상으로 나눌 수 있고, 연화가지를 든 상이나 지물을 든 상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깃을 Y자형 좌임하고, 얼굴은 지장보살과 같이 살이 많이 쪄서 옆으로 넓적한 얼굴형을 하고 있다.

사찰에서 외부로 유출된 동자상은 박물관이나 개인의 수집과 관람 대상이지만, 동자상은 조선후기 명부신앙과 작가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존상이면서 예배 대상이다. 동자상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각에 봉안되었던 존상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단순히 관람과 수집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면 한국불교미술사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찰에서도 도난당한 동자상이 찍혀 있는 이전의 사진을 찾아서 가급적 빨리 도난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첨부해서 동자상이 제 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결국은 잃어버린 성보를 되찾는 일은 소임을 맡은 스님이나 종무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것은 동자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이들의 후원과 보시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에 15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사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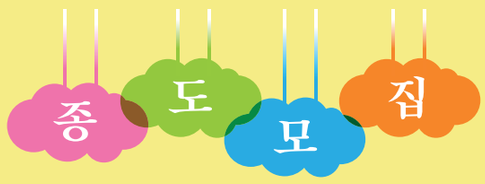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본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법회 불사의 꽃, 법문 법회의 꽃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⑥ 법회의 현대화



2017년 5월 봉축법요식에 운집, 종정 진제 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대중들. 법회 현대화는 보다 많은 이들을 사찰로 이끌 것이다.

왜 불자들은 사찰에 오는가. 불자들이 사찰에 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러 오기도 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으러 오기도 하고, 수행을 하러 오기도 하고, 불교대학을 다니러 오기도 한다. 이 이외에도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사찰에 오는 불자들에게 줄 수 있는 궁극의 대답은 불법(佛法)이어야 한다. 안녕과 안정 그리고 수행과 교학에 대한 불교의 대답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찰의 가장 중요한 모임은 법회(法會)가 되어야 한다. 법회는 말 그대로 법을 설하고 듣는 자리이다. 불자가 불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자 불자로서 생활을 점검하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중요한 신행활동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회에는 신(信) 해(解) 행(行) 증(證)이 녹아있어야 한다. 삼귀의와 찬불가를 통하여 믿음[信]을 고양시켜야 하며, 법문을 통하여 불법의 이해[解]를 제고시켜야 하며, 사홍서원과 산회가를 통하여 불법을 실천[行]하고 그 불법이 사라지지 않도록[證]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회는 그 자체가 불교신행의 순차적 과정이기에 종교적으로 경건하면서도 활기찬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불법을 믿고[信], 실천하고[行], 증득[證]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대한 이해[解]가 전제되어야 하다. 불자들에게 불법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법문이다. 법회의 꽃은 법문(法問)인 것이다. 법문은 불법에 대해 설하고 묻고 답하는 행위이기에 법회의 으뜸인 것이다. 또한 사찰은 불제자들이 모인 공간이기에 사찰의 모든 일 중에서 법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이다.

경건성과 생명력 있는 법회

법회는 경건성과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종교적으로 엄숙하고 장엄하면서도 활기차야 하는 것이다. 법회가 엄숙하고 장엄한 종교적 의례 속에서 활기차게 불법을 접하는 시간이지만 어수선함 속에서 지루하고 따분한 요식 행위로 흐르고 있음도 사실이다. 법회가 보다 종교적이기 위해선 스님과 신도가 모두 법회를 생로병사의 고를 벗어날 수 있는 불법을 접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법회가 경건하고 생명력이 있기 위해선 법문에 감동이 있어야 한다. 법문이 감동적이고 살아있다면 신도들이 지겨워할 수 없다. 어린아이에게는 모유가 최고인 것처럼 불자에게는 수승한 진리인 불법의 가르침이 최고의 양약이 되어야 한다. 만일 그 가르침을 듣고서도 불자가 성숙되지 않고 사찰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설법자는 자신의 법문이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문은 현실적일 때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법문을 통하여, 현실의 고를 자각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들을 수 있을 때, 불자들은 감동하는 것이다. 그러했기에 부처님은 당장 중생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셨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들은 눈앞에서 볼 수 있으며, 눈앞에서 증명될 수 있는 것, 때를 기다리지 않고 효과가 있는 것,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능히 열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지자(智者)가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 〈장아함경〉 권8, [부루나경] 권215 권2, p.54中.

〈율장대품(律藏大品)〉에 의하면, 부처님의 설법에 대해 제자들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듯이', '덮인 것을 깨끗이 걷어내듯이',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리키며 보여주듯이', '캄캄한 어둠에서 등불을 켜서 눈 있는 사람은 보라고 하듯이' 법을 현시하셨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날 행해지는 법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불타의 순수정법을 해명하지 못한 채 편협한 자기주장(自己主張)을 고집하거나, '심청정(心淸淨)'만 반복하는 관념의 유희에 빠져 있거나, 사람들의 일상에서 유리된 허황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의 경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100년 전에도 법회 혁신 목소리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듯하다. 박한영의 1912년 〈불교강사와 정문금침(頂門金針)〉을 보면 백여 년 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요즈음 조선 불교계는 어느 곳을 막론하고 문명시류에 자극을 받은 탓인지, 예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포교소와 연구회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음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가만히 그 정곡을 살펴보면, 대부분 순수한 진리와 갖춰야 할 덕성에 위배되는 바가 적지 않을뿐더러,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방향으로만 치닫기 일쑤여서, 정작 현재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며, 민중들의 생각은 어디쯤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불교의 이치를 어떤 방면으로 탐구하고 전달시켜야 할 것인가에는 도무지 어둡기만 한 형편이다.

법문 현장성, 부처님 가르침에 기반
편협한 자기주장의 반복 말아야
관념 · 비현실적 주제 법문 자제를

백 년 전이나 현재나 현실과 동떨어진 법문으로는 감동을 줄 수 없다. 실재적 인간인 불자들은 현실과 떨어진 이야기에 대해선 공감하는 바가 적을 수밖에 없다. 공감하지 못하면 감동도 없다.

종교인들은 흔히 현실 밖에 있는 추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세계에 관계된 법문을 거부하였다. 〈여시어경(如是語經)〉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나는 아는 것, 보는 것에 대해서와 번뇌의 소멸에 대해서 말한다. 알려지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남녀노소가 다 겪어야 하는 현실 문제인 고의 해탈을 설하였다. 만일 불교에서 고의 가르침이 빠진다면 불교는 존립할 수 없다. 불교의 근본목적이 고의 해탈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법문이 일체의 고를 설한 것이기에 현실성이 있었던 것이며, 오늘날의 법문 또한 그러해야 한다.

청법자 이해가 가장 중요

설법자가 현실적인 법문으로 감동을 주고자 한다면 우선 청법자를 이해하고 그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법문의 전형으로 꼽히는 대기설법(對機說法)의 전제이다. 법문에 앞서 설법자는 청법자의 연령과 직업, 그리고 지적 수준과 관심 사항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청법자의 근기에 맞추어 설하는 것이 곧 부처님이 설한 대기설법이다.

설법자가 청법자의 여건을 감안하지 하고 일방적인 법문을 하게 되면 현실성이 없게 되고 감동도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신도들이 스님의 법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스님이 신도를 이해하지도 이해시키지도 못했다는 표현이 보다 더 실정에 부합한다.

그런데 설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의 현장성과 감동성이 궁극적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현장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여타의 강연과 불교의 법문을 가르는 차이점이다. 여타의 강연에도 삶에 대한 현장성과 감동성은 존재한다. 법문은 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해결해줌으로써 감동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설법의 현장에서는,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법문이라고 설하거나, 경전상의 전거(典據)도 없이 회자되는 불교교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설하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감동을 주더라도 그것은 여법한 설법이라 할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여법한 설법은 현실과 불법에 통달한 법문이어야 한다. 현실에 통달함이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해야 함을 말한다. 불법에 통달함이란 불법에 대하여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이해해야 함을 말한다. 즉 부처님 가르침에 여법한 설법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불법에 기반을 둔 온전한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법한 설법의 궁극적 목적은 중생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이다. 설법은 고의 해결을 통하여 중생들이 이익되고 행복하고 안락해주도록 해주는 법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부처님께서 '제자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조리와 표현을 갖춘 법을 전하라. 또한 원만 무결하고 청정한 범행(梵行)을 설하라.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더러움이 적은 이도 있거니와 법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도 악에 떨어지고 말리라. 들으면 법을 깨달을 것이 아닌가' 라고 전법을 선언한 것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봉 행

진각국사 혜심 탄신 제840주년 기념
제12회 추모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는 예향의 고장 화순을 세계적으로 빛내신 선문염송의 저자이시며 고려후기 2세 국사이신 **진각국사 혜심 탄신 840주년을 맞이하여 제 12회 추모 다례제 및 경로위안잔치**에 귀하신 시간 함께 하신 인연공덕으로 가내와 명품 화순의 화합과 무궁한 번영을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 일 시 : 2018년 4월 20일 (금) 오전 11시
■ 장 소 : 화순문화원 들국화 공연장
■ 주 최 : (사) 진각국사선양회
■ 후 원 : 화순군 화순군의회 화순문화원
■ 협 찬 : 화순초교 37회 동문, 보리밥전문 벽오동 화순점

사단법인 진각국사 선양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20
전화 061)372-0108 / H·P 010-2971-4646

제 99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8년 4월 13일 개강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하화중생의 대서원이 담긴 경전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⑫ 천수경1 – 천수천안관세음보살의 등장

모든 법회에서 불자들의 다함께 외우는 경전은 〈천수경〉과 〈반야심경〉 딱 2개뿐이다. 〈천수경〉은 우리들이 불교를 어떻게 믿고 신행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맹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법회시간에 독송하는 모습을 보며 숙연해진다.

〈천수경〉은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담은 것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시아문' 스타일의 경전은 아니다.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담고 있기 때문에 경이라 하기도 했고, 〈천수경〉을 탄생시킨 모본이 이미 있다.

바로 〈불설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애대비심 다라니경〉 혹은 줄여서 〈천수관음경〉이다. 한역경전은 중국 당나라 삼장 가범달마가 번역했고 한글대장경 제197책 P289에 실려 있다. 이 경전을 통해 우리가 의무감으로 독송하는 〈천수경〉의 세계를 자비심을 지니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관세음을 향한 마음이 깊어졌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 때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보타낙가산 관세음궁전 보장엄도량에 계시사 보배로운 사자좌에 앉으셨다. 부처님은 그 곳에서 총지다라니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한량없는 보살마하살들과 함께 하였다.

그 때 관세음은 법회가운데 있다가 가만히 신통을 나투는데 머리에 쓴 화관 속 정수리에서 광명을 놓으니 시방세계와 삼천대천세계가 밝게 빛나 해와 달, 그리고 별까지 빛을 잃을 정도였다.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총지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오, 놀라워라. 이 멋진 광명을 연출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부처님이시가요? 보살인가요? 범천인가요? 혹시 마왕인가요? 저희는 너무 궁금합니다. 부디 어찌된 사연인지 부처님이 알려주세요."

"오냐, 오냐, 기특하구나, 네가 대비심으로 여기모인 대중들과 미래의 대중 모두를 대표해서 묻는구나. 내 기꺼이 말해주리라. 이 자리에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관세음자재'다. 그는 오랜 세월 대자대비를 성취하고 무량한 다라니문을 닦은 결과 이제 모든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자 신통력으로 광명을 나툰 것이니라. 자, 관세음은 이리 나오시라."

"거룩하신 부처님, 저에게는 대비심다라니주가 있어서 지금 빨리 말하고 싶습니다. 모든 희망과 서원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고자 함이오니 부처님이시여. 설법할 수 있게 속히 허락하여주소서!"

"선남자여, 장하다, 그래, 지금이 바로 그 때니 어서 속히 전하라."

"부처님이시여, 과거 무량겁 전에 계셨던 천광왕정주여래께서 어느 날 황금빛 손으로 저의 정수리를 만지시며 이 대비심주를 가지고 미래세상에 죄업이 무궁무진한 중생들을 위하여 이익이 되는 일을 하라셨습니다. 제가 이 다라니를 들을 때 초지(十地중 환희지)에 머물렀는데 한 번 듣고는 바로 8지(부동지)까지 순식간에 뛰어 올랐습니다. 저는 가피를 받자 용기내어 부처님께 청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는 세상에 중생을 다 이롭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몸에 천개의 눈과 천개의 손이 생기게 해주소서. 그 말을 하자마자 즉시에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제 몸에 광명을 놓으시니 천수천안이 구족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언제나 이 다라니을 수지하고 환희용약하였더니 이후로 저는 어머니 모태에 들지 않고 항상 부처님 앞 연꽃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누구든 이 다라니를 수지하려는 이들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자비심을 일으키고 저의 이름을 부르며 다음과 같은 원을 발하여야 합니다."

바로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지일체법'으로 시작하는 열가지 원(十願)과 '아약향도산 도산자최철'로 시작되는 여섯가지 향(六向)이다. 이제 저희들이 일체법, 지혜안, 일체중, 선방편, 반야선, 월고해, 계정도, 원적산, 무위사, 법성신이 성취되어 중생을 위한 삶을 살아갈 기반(상구보리)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게 해주시고, 육도에 살아가는 이들을 돕게(하화중생)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불자들의 기본자세라는 것이다. (계속)

〈서울 반야사 주지〉

일체(一切)는 다 유심조(唯心造)다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⑫ 마음법

마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가 보다. 색성향미촉법을 보는 마음을 안식, 이식, 비식……. 법식 등으로 이야기 하는데, 이러한 마음들을 현재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제6식이라고도 한다. 전에 말씀드렸던 반지에 대한 애착심, 사람에 대한 애착심은 현재의식이요 제6식의 마음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현재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도 있다. 잠재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 더 깊숙한 곳에 불성(佛性)이라는 마음도 있다. 이 불성을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이라고 하시지 않았던가.

무엇이 잠재의식인가? 우리나라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열길 물속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겉마음, 즉 현재의식을 말하는 것이고,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사람의 마음이 곧 속마음, 즉 잠재의식인 것이다.

현재의식, 즉 안식, 이식, 비식 등 6식의 겉마음은 색성향미촉법에 붙어 각종 알음알이를 내는데, 그 알음알이를 부처님께 바치게 된다면 속마음이 드러나게 된다. 현재의식을 겉마음이라 한다면 잠재의식을 속마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사람의 속마음 이것은 곧 7식이 된다. 평소에 아주 부드럽게 느껴졌던 사람도 꿈속에 가끔 무서운 얼굴로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이때 사람들은 저 부드러운 사람이 어째서 꿈속에는 그리 두렵게 보일까? 라고 하며 의아해 한다. 부드러운 얼굴은 그의 겉마음이라면 꿈속에 보이는 무서운 얼굴은 자신의 선입견이 소멸된 지혜로 본 상대의 모습이요, 정확히 말하면 그와 맺은 전생의 업보가 되는 것이다.

현재의식은 우리의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에 무력하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하여도 이 원하는 마음은 주위에 영향을 미치어 어떤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 특징의 이 마음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 있다. 잠재의식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이룬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주위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기에 변덕스럽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은 마음은 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의 말씀처럼 심여공화사(心如工畵師) 능화제세간(能畵諸世間)인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한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시시각각으로 소원성취하는 것이며, 늘 자신의 길흉화복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보살의 마음은 우리의 현재의식처럼 변덕스럽지도 아니하고 잠재의식처럼 이기적도 아닌 것이다.

현재의식도 잠재의식도 초월한 마음 곧 불성이 드러난 마음, 이것이 보살의 마음인 것이다. 보살의 마음은 모든 상(相)을 떠난 마음, 모든 사람과 사물에 붙은 마음을 다 떼어낸 마음이기에 부처님처럼 길흉화복을 좌지우지하고 산하대지를 마음대로 배치하는 것이다.

자신이 극본을 잘 쓰는 사람이고, 또 돈도 많이 있어 영화를 제작 하며 감독까지 한다고 상상해 보자.

보살과 중생은 어떻게 다른가? 보살은 자신이 쓴 극본에 의해 이 세상이 전개됨을 알고 세상을 사는 것이며, 중생은 자신이 쓴 극본에 의해 이 세상이 진행된 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세상이 자신의 마음이 극본을 쓰고 감독을 하고 연출을 한 허상의 세상이라고 알게 되면 그에게는 일찍이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모든 불행은 일시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모든 무지무능은 다 허상임을 알게 될 것이며 자신은 비로소 되돌아온 탕자임을 깨닫게 되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는 곧 깨달음

보제존자께서 말하시길 염기염멸(念起念滅) 위지생사(謂之生死) 당생사지제(當生死之際) 수진역재기화두(須盡力提起話頭)라 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함을 생사라 부르니, 모름지기 모든 힘을 다해야 화두(이 뭣고)를 든다"는 말이다.

화두순일(話頭純一) 기멸즉진(起滅卽盡) 기멸즉진처(起滅卽盡處)는 말도 있다. 즉 "화두(이 뭣고)가 순일해지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곧 다한다"는 뜻이다.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이 곧 다한 곳을 이르되 이를 고요함(寂)이라 하니. 위지적(謂之寂) 적중무화두(寂中無話頭) 위지무기(謂之無記)라고 했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이 뭣고)가 없으면 무기라 하고, 적중불매화두(寂中不昧話頭) 위지영(謂之靈)이라, 고요한 가운데 화두(이 뭣고)가 매(昧)하지 아니하면 영(靈)이라고 이른다는 말이다. 즉 차공적영지(卽此空寂靈知) 무괴무잡(無壞無雜) 여시용공(如是用功) 불일성지(不日成之)라는 말로 귀결할 수 있다. 이 공적영지가 무너짐도 없고 섞임도 없어서 타성일편이 되면 며칠 안 가서 성취할 수 있다는 의미 아닐까?

물이 없이 물소리가 있을 수 없고, 물 흐르는 소리가 나는 곳에 물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니,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을 굳게 믿고 '이 뭣고'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면, 번뇌 망상이 다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관음도량에 가면 관음이 되는 것처럼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며, 생활속에서 용서 참회 초조 불안 근심 걱정 등 각종 스트레스의 뿌리를 한칼에 잘

"모든 중생 불성 있어 그것 굳게 믿고 '이 뭣고' 항상 함께하면, 번뇌 망상이 모두 다 떨어져"

라버리는 유일한 금강보검(金剛寶劍)이 바로 '이 뭣고'인 것이다.

심즉시불(心卽是佛) 불즉시각(佛卽是覺)이라는 말을 음미해 보자. 마음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깨달음이라는 의미이다. 깨달은 성품은 중생과 부처가 평등해 차별이 없으며, 신령스럽게 밝아 만덕을 갖추고 있으며, 묘용이 항하의 모래알과 같아서 수행과 증득을 빌리지 아니하며, 이미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깨쳐야 할 내가 없는 것이고, '이 뭣고' 또한 생사가 없는 본각(本覺)자리인 것이다.

〈금강경오가해 함허서문〉에 아가문(我迦文) 득저일제자(得這一諸子) 보관중생(普觀衆生) 동품이미(同禀而迷) 환왈기재(歎曰奇哉)라, 향생사해중(向生死海中) 가무저선(駕無低船) 취무공적(吹無孔笛)하시니 묘음동지(妙音同地)하시고 법해만천(法海漫天)이라, 어시(於是) 롱애진성(聾?盡醒)하고, 고고실윤(枯고悉潤)하야 대지함생(大地含生)이 각득기소(各得其所)하니라고 했다. 세존께서는 이 한 물건을 깨닫고 중생들이 모두 똑같이 이것을 받아 지니면서도 미(迷)한 체 있어 널리 살펴 탄식하시며 기이한 일이라 하시며 생사의 바다 한 가운데로 향해 밑바닥 없는 배를 몰고, 구멍없는 피리를 불어 묘음이 땅을 진동시키니 법의 바다가 하늘가득 함이로다. 이에 귀먹고 어리석은 범부들이 깨어나고 마른 나무들이 다 윤택하게 되며 대지의 모든 생명들이 다 그 살 곳을 얻으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한 물건이 '이 뭣고'이며, 그 묘음(妙音)이 바로 '이 뭣고'인 것이다.

불시일번한철골(不是一番寒徹骨) 쟁득매화박비향(爭得梅花撲鼻香)이라는 말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한다. "뼛속에 사무치는 매서운 추위가 아니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향기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생사를 걸고 오직 '이 뭣고'를 생활속에서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성불이라는 이름으로 보답(報答)하게 되어 있다. 오늘도 '이 뭣고'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길….

〈남양주 선재사 주지〉

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종도모집

귀의 하옵고.

불제자로서 수행과 전법 포교만을 위해 함께 하실 제방의 큰스님들을 모십니다.

입종안내

❶ 입종 구비 서류 (승가원 비치)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 1부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진 ····· 1매
□ 주민등록 등본 ····· 1통
□ 반명함판 사진 ····· 3매
□ 사찰 법당 내 · 외부 사진 ····· 각1매
□ 귀 종단 계첩 및 승려증 사본 ····· 1매

❷ 발급 증명서

□ 승려증
□ 사찰등록증
□ 주지 임명장

■ 문의 : ☎ 053)654-0408. 010-5051-34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현충로 5길 99 원광사

(전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남 · 녀 행자 수시 모집 합니다

※ 본 종단은 문광부 허가 제2010호-4호

※ 법인등록 274321-0029935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승가원 승가원장 고암 정인 합장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마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파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상대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010-2813-8008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51)405-9402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010-8642-7733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011-870-0021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010-9373-3778

일 주 문



군승 안거 · 포살법회

선묵 혜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스님은 3월 27~2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2018년 군승 안거수행 및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불국사 글짓기 대회

종우 경주 불국사 주지 스님은 4월 29일 오전 10시 범영루 앞 광장에서 '제33회 불국사어린이 글짓기 · 그리기대회'를 연다.



전등사기 게이트볼 대회

승석 강화 전등사 주지 스님은 4월 8일 오전 8시 강화군 온수리 길상공설운동장서 '제13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



선기공명상지도사 과정

심산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스님은 4월 27~29일 동국대 정각원서 '청소년선기공힐링명상 지도사 과정(2급)'을 실시한다.



불교공뉴스-불국토상조 MOU

혜철 불교공뉴스 대표 스님은 3월 27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서 BTN불국토상조와 상조서비스 업무체휴를 체결했다.



제5회 불교미래포럼

심익섭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4월 18일 오후 6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서 남북불교 교류를 주제로 제5회 불교미래포럼을 개최한다.

달마도 대가 범주 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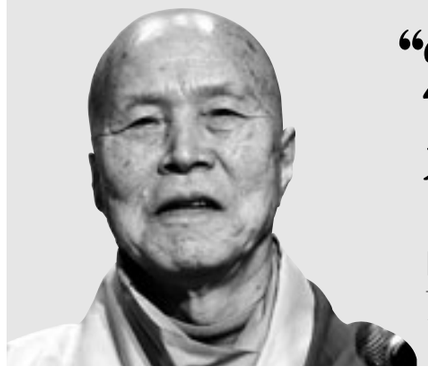
법납 52세로… 27일 영결식 엄수



한국 달마도와 선화(禪畵)의 대가인 상주 선문화예술원장 범주 스님〈사진〉이 3월 25일 오전 7시 입적했다.

1966년 전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범주 스님은 10년간 제방선원에서 수행정진 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숭산 스님을 시봉하며 LA 달마사 주지로 해외포교에 진력했다. 또한 '선묵일여(禪墨一如)'를 화두로 선묵을 통한 포교활동을 펼치며 국내 전시 및 초대전, 해외 전시 등을 30여 차례 펼쳤다. 특히 1m가 넘는 붓으로 대형 선화를 그리는 퍼포먼스로 세간에 화제가 됐다. 2006년 부산 APEC 정상회담 당시에는 세계 영부인들 앞에서 달마도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스님의 분향소는 서울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2호와 속리산 달마선원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3월 27일 엄수됐다. **신성민 기자**



"21세기 화랑정신 필요 청소년 심신 위해 진력"

Interview

청소년교화연합회 제 6대 총재 동광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3월 27일 추대, 단체 도약 다짐

청소년 윤리 · 도덕 갖추도록 지원

회장 선일, 사무총장 마가 스님

"시대 참불자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정의를 실천하는 청소년들을 배출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대표적인 단체인 청소년교화연합회 제6대 총재에 서울 도선사 회주 동광 스님이 추대됐다.

동광 스님은 청소년교화연합회가 3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개최한 추대법회에서 새로운 청교련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 문화부장 종민 스님, 서울 도안사 주지 광복 스님, 유영학 청담종합사회복지관장 등 1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동광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교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청소년들이 시대의 참 불자로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정의로운 이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청교련도 일익을 담당해 이런 청년들을 배출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이어 "시대에 맞는 청소년은 신라 화랑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시대에도 이 화랑정신을 되살려야 한다"며 "훌륭한 정신과 신체를 고루 갖춘 청소년들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동광 스님은 5대 총재를 역임한 故현성 스님을 추모하는 묵념과 함께 청교련에 대한 현성 스님의 애정도 털어놨다. 현성 스님은 30년간 청교련 총재로 발전의 기틀을 닦고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매진했다.

동광 스님은 "현성 스님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오늘의 청교련이 있었다. 제2의 도약의 출발점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청소년 포교에서 큰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교원장 지홍 스님도 축사를 통해 "동광 스님의 6대 총재 취임을 축하드린다. 창립 52주년을 맞은 청교련이 동광 스님을 중심으로 교계를 대표하는 청소년 단체로서 포교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단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광 스님은 1970년 청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86년 청소년교화연합회 지도법사를 역임하며 청교련과 인연을 맺었다. 1994년 청담학원 이사장과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부터 청담장학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데 매진했다.

이와 함께 1966년 출범한 청교련은 50년 동안 전국 사찰단위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를 개최하며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왔다. 매년 전국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사업과 체험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총재 동광 스님은 인천 부루나포교원 주지 선일 스님을 청교련 회장에, 서울 현성정사 주지 마가 스님을 사무총장에 임명하고 청교련 발전을 위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만에 알린 한국불교 전통문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만서 韓불교 알려

한국불교 대표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대만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양국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에 나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설정)는 3월 20~24일 한국문화체험사업 일환으로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대만에 소개하고, 대만불교계를 탐방했다. 종단협은 까오슝 불광산사를 시작으로 불타기념관, 불광산 타이페이도량, 법고산사 세계불교교육원을 방문했다. 행사에는 한국서 진각종 · 관음종 · 대각종 · 삼론종 등 각 종단 대표단 스님과 정사, 불교계 활동단체 실무자 등이 동참했다.

21일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주지 심보 스님은 "불타기념관은 1000곳이 넘는 사찰과 100만 명이 넘는 불자의 힘이 합쳐져 세워진 곳"이라며 "불법은 모든 이들의 것이다. 한국대표단 방문을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종단협 한국대표단이 불광산사 주지 심보 스님, 부주지 혜전 스님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에 한국대표단장 지민 스님은 "앞으로도 한국불교와 대만불교가 상호교류하면서 문화 우수성을 알리고, 대만불교의 장점을 받아들여 양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대표단은 오는 5월 열리는 2018 연등회에 대만대표단을 초청했다.

한국대표단은 대만 방문기간 동안 불광산 사찰활성화 사례 강연 등을 듣고, 대만불교에 대한 소감과 토론 등을 진행했다. **윤호섭 기자**

정읍 내장사, 무술년 산신대재



전국적인 단풍 명소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는 3월 24일 새 봄을 맞아 삼성각과 명부전에서 7일간의 산신기도를 회향하고 산신대재를 봉행했다. 내장사 회주 대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150여 불자들이 동참한 이날 산신대재는 명원문화재단 정읍지부 샘골다례회의 육법공양과 영산작법, 시련, 관욕 등이 진행됐다.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은 "대한민국과 지역불교 발전, 내장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 산신대재를 봉행했다"며 "올해도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안 대종사 14주기 다례재



김천 직지사 중암(주지 도진)은 3월 25일 '관응당 지안대종사 14주기'를 맞아 경내 영산대보전에서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는 직지사 주지 법등 스님과 통도사 前주지 원산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날 관응문도회는 〈관응대종사 황악일지록(黃岳一旨錄)〉을 봉정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관음사 신입생 1500명 입학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회주 우학)는 3월 23일 2018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나눠 개최했다. 올해 신입생은 1500명이며, 대구 큰절을 비롯해 경산, 구미, 칠곡 등 국내도량과 미국 뉴욕, 중국 칭다오, 호주 시드니 등 국외도량서 사찰 예절을 포함한 기초교리 과정이 진행된다. 더불어 경전수업 등은 회주 우학 스님이 주1회 직접 강의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피부·치아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건조, 임플란트 틀니 하시고 잇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피부건조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가야사 도량 약사여래 부처님을 친견하세요

가야사 약사여래 부처님 도량에 지극지성으로 불공드리시면서 소원하시고, 백병의 난치병과 연관된 차를 드세요.
성태산 성수 부처님 원력으로 가피가 바로 옵니다.

가야사 도량에 오시면 언제라도 숙박이 가능하며 불공차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각종 종양 차법

- 위 암 : 미후도 괴전우 요자 옴지 차
- 폐 암 : 인동화 천문동 백합 길경 차
- 신장암 : 목통 옴지 토사자 불수 차
- 간 암 : 인진 제조 다슬기 연교 달래 차
- 유 암 : 산자고 조각 화고초 차
- 뇌 암 : 불환금 강황 옴지 불수 차
- 장 암 : 괴화 지실 루로 옴지 차 가자 차
- 직장암 : 괴각자 지실 괴전우 가자 차
- 식도암 : 권백 차, 불수 차
- 혈액암 : 불환금 연교 루로 옴지 차
- 자궁암 : 금은화 포공영 유근피 옴지 차, 불수 차
- 당뇨합병 : 생지황 옥발 여주 불환금 불수 차
- 피 부 : 연교 조각자 옴지 차
- 조갑암 : 권백 차, 불수 차
- 통 풍 : 요자 옴지 불수 차

문의 전화 : ☎041-943-5505
도량 주소 :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608-1번지 가야사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 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 총 사 010-6560-9117

“행복한 삶 궁금하다면 이 App을 써봐요”

(사)행복한마을, 공동체 콘텐츠 담은 공공생활 앱 출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삶의 기본 요소 의(衣)·식(食)·주(住). 부처님 법을 따르는 불자들에게 삶의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 최근 불교 공동체가 불자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고자 명상과 채식, 공동체 주거 등을 주제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눈길을 끈다.

사단법인 행복한마을(이사장 은산)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요소를 바른 명상(意), 바르게 먹기(食), 대중 공동체(住), 나누는 삶(共)으로 정의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의식주공(意食住共) 생활 애플리케이션 공공생활’(이하 공공생활)을 개발했다.

공공생활은 (사)행복한마을의 대표 브랜드다. (사)행복한마을은 사부대중 수행공동체로서 행복으로 이끄는 일상생활을 강조하며 대중이 함께 성장하는 삶을 지향한다. 공공생활은 (사)행복한마을의 공동체 삶을 보여주며 안내하는 앱이다.

공공생활 앱에는 기본적인 카테고리가 의(意)·식(食)·주(住)·공(共) 총 4가지로 나뉜다.

카테고리 ‘의(意)’는 행복한마을 나랑명상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명상 활동을 공유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무경계 스터디수업 △일반인명상 △청

의식주공(意食住共) 주제 나눠
명상·채식 등 불교문화 담아
공동체생활 속 성장기 비롯해
체험자 모집해 체험단 운영도

소년명상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린이명상 △먹기명상 △집중명상(더깨달음) 등이 있다. 또 (사)행복한마을 공동체는 하루 7분 명상을 오후 2시마다 진행한다. 공공생활은 알림 프로그램을 제공해 하루 일과 중 7분 명상에 동참하도록 이끈다. 알림기능과 함께 공공생활은 명상에 도움이 되는 글귀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생활앱 초기화면. 공공생활의 의미부터 각종 불교콘텐츠 등을 사용자에게 전한다.


공공생활앱은 ‘의식주공(意食住共)’을 주제로 명상과 채식 등 불교문화를 담았다. 행복한마을 이사장 은산 스님을 비롯해 공동체생활을 하는 대중이 스마트기기로 앱을 소개하고 있다.

카테고리 ‘식(食)’은 발우공양을 기본 정신으로 제공하는 채식음식 서비스 창구다. (사)행복한마을은 전문 채식음식점인 베지나랑을 거창과 부산에서 운영 중이다. 베지나랑에서 제공하는 채식음식을 공공생활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반찬 쇼핑몰과는 달리 발우공양 정신을 담아 음식을 통한 행복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 구성했다. 음식은 조리된 것을 배송하며, 무오신채 사찰 요리지만 일반인이 접해도 거부감이 없도록 다양한 메뉴를 선보인다. 특히 모든 음식은 하루 한 끼 양만 제공해 남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사)행복한마을 이사장 은산 스님은 “세상에 여러 반찬 가게는 많지만 먹는 것조차도 깊이 있는 삶으로, 우리는 모든 삶을 깊이 있게 만들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주(住)’는 공동체 주거 공간을 엿볼 수 있다. (사)행복한마을은 현재 거창과 부산 등에서 주거 공동체를 운영 중이다. 현재 거창에는 공동체 마을이 조성 중이며 부산에는 미혼자들의 주거 공간이 새롭게 준비 중이다. 카테고리 주(住)에서는 함께 사는 주거 공간의 장점을 알 수 있고 대중생활을 통한 성장기도 볼 수 있다. 앞으로 (사)행복한마을은 공동체 체험 공간을 소개하고 체험자도 모집할 예정이다.

‘공(共)’은 나눔에 관한 안내로 (사)행복한마을에서 진행하는 △만클릭 기부프로젝트 △일상의 깨달음을 전하는 콘텐츠 서비스 아침의 소리 △명상문화체험 명상콘서트 △오픈강좌 등을 만날 수 있다.

이사장 은산 스님은 “행복한 삶을 위해 수행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돼 수행 때문에 기본적인 삶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일상생활의 변화로 수행하는 삶, 행복한 삶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공공생활 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에 동참하고 참된 성장에 이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생활 베타버전은 3월말 출시되며 5월초에 정식버전을 만날 수 있다.

은산 스님은 “행복한마을 콘텐츠뿐 아니라 세계각지에 있는 공동체 소개 및 연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채식음식도 현재 체험단을 통해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며 “정식버전을 통해 더 많은 내용을 담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전주 금선암 니까야 천일독송 입재

2020년까지 4부 니까야 독송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이 니까야 독송 천일기도를 입재했다.〈사진〉

3월 24일 극락보전에서 열린 입재식에는 조계종 前포교원장 도영 스님, 대전 죽림정사 주지 대진 스님, 군산 상주사 주지 도연 스님, 전주 보문사 원감 혜원 스님, 안준아 룸비니 산악회장, 반재상 전북불교대학 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덕산 스님은 “대단한 신심을 가지고 출가했지만 번뇌와 욕망 속에 수행자의 목표를 망각하고 헤매고 있다”며 “입재식을 통해 받은 경책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처음 출가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 원만회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영 스님은 법문을 통해 “번뇌 망상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의 모든 시간에 일념으로 정진해서 천일결사를 통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니까야 독송 천일기도는 2020년 12월 19일까지 천일간 매일 새벽과 사시, 저녁예불 등 세 번에 걸쳐 디가 니까야, 맛지마 니까야, 상윳다 니까야, 앙굿다라 니까야의 4부 니까야를 독송하는 기도를 봉행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년의 신비 ‘팔만대장경’ 속으로

해인사 4월 13~14일 대장경 기리는 정대행진

법보종찰 해인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려팔만대장경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이고 해인법계도를 도는 정대요잡에는 수많은 대중이 함께 참여해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해인사(주지 향적)는 4월 13~14일 이틀 동안 해인사 경내에서 ‘제58회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58년째 이어오는 ‘해인사 고려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는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수호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온 누리에 펼치기를 기원하는 법회이자 문화행사다.

13일은 오후 4시 식전행사인 시련행사로 시작한다. 시련행사는 해인사 입구 비석거리에서부터 불보살, 옹호신중, 역대 조상영가를 모신 가마를 들고, 나무대성인로왕보살의 인도로 도량으로 모시는 행렬이다. 행렬에서는 인로왕번, 오방번, 향로, 오색기불기, 태극기와 십바라밀기, 청사초롱 등을 만날 수 있다.


팔만대장경 기념행사 정대행진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예불 후에는 대령관욕과 회심곡 공연이 진행된다. 이어 마음치유학교장인 혜민 스님의 초청법문과 국악그룹 이상의 공연,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대장정을 알 수 있는 영상 상영 후에는 철야정진으로 산사의 밤을 밝힌다.

14일 본행사에서는 새벽예불과 아침공양 후 대적광전 앞 탑마당에 괘불을 봉안하고 법보전에 봉안된 팔만대장경 조성·장경판전 건립·고려팔만대장경 수호 공덕주들을 기리는 위패를 이운한다.

특히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법회와 천도의식 후 진행되는 팔만대장경 정대행진은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된 팔만대장경판 모형을 머리에 이고 해인법계도를 따라 도는 사람들의 행렬을 연출한다. 정대행진은 행사일 해인사를 찾는 모든 이가 참여 가능하다.

그 외 부대행사로 팔만대장경 인경체험, 석고방향제 만들기, 단청나무 컵받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부대행사는 3월 30일부터 시작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영도구불교합창제 4월 7일 영도문화회관서

따뜻한 봄, 불음(佛音)으로 지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화음 세상이 펼쳐진다.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4월 7일 오후 6시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영도구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영도구불교합창제는 부산 영도에 위치한 사찰 소속 미룡사 바라밀 합창단, 한마음 부산선법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이 참여한다.

합창제는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관세음보살’ ‘그 마음 그대로’ 등 찬불가 무대와 찬불동요 메들리, 자유곡 등으로 진행되며 BTN불교TV 남성중창단 특별무대도 마련된다.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은 2001년 창단됐으며 정화양로원 위문공연, 부산종교인평화예술제 등 교계행사에서 포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마음 부산선법합창단은 1990년에 창단돼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담은 선법가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은 어린이 합창단이며, 합창단을 통한 어린이 포교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을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

– 잡아함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신묘방편력
사찰, 포교당, 대지,
건물등 속히 매매성취
010-2896-6689
광명 공덕
터 / 자리도 봐 드립니다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일단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범음범패 학인,회원모집
염불을 여법하게 하고 싶은 분
염불 내용을 알고 싶은 분
사찰행사 함께 공유하고 싶은 분
사물,바라,작법을 배우고 싶은 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
사찰행사 문의 환영
(살풀이, 극락무, 지전무, 관음무)
055-744-5300
010-5243-3587
진주 여여불음원 법일 합장

관상 (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점안식 49재 천도재
불공 사찰행사 전문
범음범패 실전위주교육
바라나비무, 법고, 화청, 풍수, 명리, 육효, 주역, 작명 (학인모집)
남여 결혼 성사 접수 중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031-953-3328
010-8893-8361



비법전수 사주 강의
3개월 완성(주1회)으로 구성
비법 역학을 공개 강의합니다
장소 : 충남 논산
시외버스터미널옆 2층 /
회비 : 월 50만원
010-6473-1569 남전

밀법체험
불보살의 가피, 불광에
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예약필수)
禪 마음공부, 화두타파 검증
053-652-2714
010-9616-2477 우송 스님
묘진사 우송 합장 (대구 내당동 소재)

조선소나무 판매
목재용, 건조기간 9년
수량 14000사이 (상태A급)
건축면적 : 약 28~30평내
010-2294-4747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역학·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 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위 패 몰
www.위패몰.com
염주 마이크목걸이 /
사찰합동위패 / 영가전대
051-244-2040

칡 심마니 모집
산수 좋은 곳에서 수행하며
조용히 자립하고 싶은 분.
1일 5만~30만원 능력제.
건강하고 나이제한 없음
010-5060-3265

각종 제의식 및
방편술 보유한 세납59세
승납 25세 된 비구승
성운 입니다.
오래도록 인연처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010-4876-104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수성구, 60세이하)
(출 퇴근)
053-755-9817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충남 아산)
010-6266-46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초보자도 가능, 60세이하)
041-673-8385

함께 기도수행 할
스님을 모십니다
참신한 공양주 모십니다
010-9421-0730
010-8620-4303

–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주상담 가능하신 분)
– 공양주 모십니다
(숙식가능)
(부산)
010-2630-6082
010-5777-1906

도깨비를 마음대로 부린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중풍, 당뇨, 고혈압, 치매, 손발저림
예방, 치유가능
네이버 '현오스님' 검색
010-9229-3801 약손스님 현오

사찰행사 전문
점안식. 천도재. 사십구재. 터 고사 등
각종 재의식 상담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지전춤, 극락무, 회심곡
(불교무용, 한국무용, 남사당풍물)
010-2277-795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근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비술
• 손 하나만으로도 몇년 전, 몇월, 몇일의 운세점
검 몇년 후, 몇십년 후, 몇월, 몇일, 몇시의 일도 예측할 수 있는 작법
• 명리를 배웠어도 시원치 않은 분
•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단체접수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현대식 불교문화를 선도하는 포교원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수련법!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을 통해 누구나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수련법입니다.
지도자 수련생 모집 : 출가스님, 법사, 포교사 등
(사)소승불교조계종. 티벳, 인도, 요가 명상호흡협회
붓다선원 혜웅 합장 (서울 성동구 홍익동)
02-2296-3001. 010-4740-3001

교육학 박사

진각 스님의 명리상담학
• 지금은 명리상담학이 제도권학문이 되어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이 있음.
• 또한 명리상담분야의 비학위과정도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많은 개설과 보급으로 신도 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였음.
• 이러한 현상이 현대는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상담분야로써 필요성이 더 절실하기 때문 임.
• 이제는 명리상담학을 필수학문이라 생각하고 방편 삼고자 큰마음을 내신 스님만을 위한 초급입문과정을 개강.
• 한자(漢字)는 22자만 알면 가능하고, 명리상담법과 작명법
• 부산 송광정사 부설 문화대학 교육학박사 진각
•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도 10년간 강의 · 강의경력 23년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하차 4번 출구.
부산 ☎ 051-868-8438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이메일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헛된 삶으로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진다.

– 아함경 –



논산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 한옥 법당. 산신각. 요사채. 토지 400㎡
- 논산 IC부근 운영 잘되고 교통 편리.
- 양도 : 1억 2천만원 (타지방 불사로 양도함)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사찰안내가람"(인터넷 검색창에 입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 (상봉동127-15호)

서울 사찰(급)안내
- 뒷편 산사찰
- 토지 120㎡. 이층법당. 1층 요사채
- 전망좋은기도사찰. 산책로입구
- 깨끗하고 30년된사찰
- 양도 : 5억5천만원(융자가능함)

010-7347-1010(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이박사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정릉유원지 근처
- 대지 : 734평(국유지) 인법당 10평 정도
- 방8개, 화상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 가능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

010-8709-5813
02)941-4247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사찰부지 ◎ 위치 : 서울북한산
◎ 대지 : 70평,부지 400평 ◎ 부지 : 100평 사용
◎ 합 470평 ◎ 인법당 : 약 60평
◎ 산및바다조망 ◎ 산속, 무허가건물
◎ 양도가 : 1억 1천 ◎ 양도가 : 5천 5백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구서동에 위치한 작은암자 (지하철에서 도보로 3분거리)
- 크기는 작지만 50년 된 기도처
- 도심 한가운데 멋진 숲속 풍광
- 구거(溝渠) 약 100평(산신각 포함)
- 직접 보시면 만족하실 조건 위치
- 인연 닿는 스님께 양도 원함

010-7121-3030
010-3574-3303

도심속 작은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
- 건물 : 1층 단독 주택
- 아담하고 예쁜사찰, 법당, 요사 실내화장실, 실외화장실, 세탁실 창고, 포교, 철학 상담하기 좋은 사찰
- 난방 도시가스, 심야 전기
- 가액 : 1억 9천 5백만원 (대출 7천5백만원안고 1억2천만원)

010-7188-7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 (불상, 불화 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도시가스, 상수도 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연락처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근교
- 임야 4천평, 대지 약1천평 법당 35평, 요사 60평
- 1천 3백년 고목 있고, 산세수려, 교통 편리 지하약수 천혜의 명당지리
- 가액 : 12억

010-4547-4990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1,500평 남짓
- 법당, 목조 20평, 관음전, 종각, 차실, 요사채, 공양간
- 모두 방 10칸, 외부, 부속사 등등 대형주차장 등
- 가액 : 모두 2억 9,500만원 (대출 7,500만원 승계도 가능)

010-4628-5699
(부득이한 사정)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삼장면 소재
- 600평 건물 6동
- 법당 53평 그 외 용왕당, 산신각, 요사채
- 가액 : 전화 상담

010-8957-8089

사찰 및 요양원 안내
사 찰
- 1층 30평, 칠보관음, 천불상 용왕대신
- 2층 25평, 삼존불, 관음소불 130
- 요사채 40평, 큰방 3, 황토방 1

요양원
- 1층 90평, 2층 90평. 대지면적 약 900평
- 정원 25명, 현입소인원 25명
- 신축건물 월매출 약 4천5백만원(요양원만)
- 뒤에는 높은 산이요 앞에는 큰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최고의 명당터
- 위치 : 경남 밀양
- 가액 : 18억(융자 5억 5천 포함)

010-9567-08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전시 용전전화국 옆
- 제반시설완비 : 법당, 주방, 상담실, 방×3개, 60평
- 2층건물 2층,옥상 60평 사용가능
- 교통요지,터미털 도보 4분거리 대전역 5분거리
- 보증금 1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3452-1123

사찰(포교) 안내
- 위치 : 김천시 면소재 (차편 10분 거리)
- 사찰 건물 : 32평 독채 등기필
- 법당, 주방, 방 2, 세면장
- 시가지 대로변 포교사찰 남향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 소유임)
- 가액 : 5천 8백 만원

010-7295-1259

사찰(토굴)안내
- 위치: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손맞이길 107
- 사찰건물 : 법당, 방2, 주방, 다용도실, 독채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1년 35만원 넓은 마당 및 텃밭 200평 사용 <건물은 지상권 등기되어 개인소유임>
- 가액 : 4천 8백만원

010-8525-1959

별장같은 토굴
- 위치: 김해 선암다리에서 5분거리
- 새 인연을 찾습니다
- 창건 20년 모든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 뒤에는 산, 앞에는1,500세대 아파트
- 대지 : 270평
- 가액 : 평당 300만원 (은행 2억천 안고) 6억

010-9906-363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백양산 밑 전망 좋은 곳
- 대지 45평
- 4층 건물
- 총 92평
- 가액: 5억 5천

010-9881-7363

사찰 포교원안내
- 위치 : 진주시 중앙시장 앞
- 2층 70평 정도
- 각단 탱화 및 삼존불 시설 완벽, 즉시 법회
- 가액 : 보증금 시설비 보신 후 결정

010-6208-5555
055)747-9874

토 지 안 내
- 위치: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563
- 864평, 평당 170만, 2차선 인접
- 주택 복지사업, 종교시설 가능함
- 연락처는 문자로 남겨주세요

010-3540-77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8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 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한 옥 안 내
- 위치 : 지리산 산청 단성 IC에서 5분거리 지방도 2차선접 토지 1,700평, 한옥 50평
- 정원수 백여종 다량, 식용가능 야생초 다량 식재
- 용도 : 사찰, 영수원, 동호인주택, 펜션, 찻집 음식점 가능
- 주변도시 진주시내와 20분거리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5분거리
- 가액 : 13억

010-5923-3388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면 갈산리 447번지
- 대지 : 전 343평, 종교용지475평, 임야 507평
- 건평 : 40평 1동
- 방2개,큰거실1개,주방,창고방3개
- 가액 : 5억(절충가능)

010-5403-773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팔공산
- 토지 457평 하우스 내
- 법당 20평
- 방 2개, 해우소 2개 CCTV, 공양간 50평
- 가액 : 토지 1억 2천 시설비 6천(융자 8천만원)
- 몸만오시면 법회 가능합니다

010-4504-7809

사찰(급)안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소방서 앞 (100년 넘은 사찰 대지 187평,종교시설임) 이외 주차공간 넓음
- 법당20평 5년전 신축불사 하였음 산신각,칠성각,용왕당(9평), 요사채 25평
- 가액 : 2억 2천만원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010-3881-640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연봉정길 161-3번지
- 종교 부지 570평, 주차장 44평 텃밭 278평, 임법당 32평, 삼성각 10평, 창고 겸 요사채 17평
- 가액 : 이억 칠천만원 (급양도) 정남향

011-369-3859 (스님직통)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네비게이션 전화 033)744-3859번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상면
- 대지:110평,2층법당29평,1층요사채35평 외 약 5평 정도 공양간 시설되었음
- 신도로와 구도로 교차로변(근처) 국민관광지역. 절 앞까지 서울시내 좌석버스 30분간격 운행중
- 가액 : 3억7천만원(융자1억 포함)
- 자세한 것은 전화주시면 건물,법당, 사진,메시지나 카톡으로 전송하겠습니다

010-9259-0108번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 121평, 법당 20평, 삼성각 4평, 용왕당3평
- 호신불당 : 소불600불 봉안
- 공양실 : 15평,종무소,주지실
- 주차장 : 3대 주차
- 창건 : 120년
- 가액 : 4억 2천만원

010-2720-158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 4층 건물 중 3층 60평
- 법당, 방 3개, 공양간, 창고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즉시 입주, 몸만 오시면 됨

010-8842-422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 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7,8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차령산맥 세종 천안 각 20분
- 대지 : 3만 5천평, 건물 4동
- 지방문화재보유한 100년 도량
- 가람 불사금 20억 동참 도반 원함

010-4448-5998

사찰터 기도원 안내
- 위치 : 경산 용성면 용천리
- 임야 : 12,000평
- 수목 : 소나무 참나무 진달래 약초, 고사리 참옻나무
- 작은 연못도 있으며 산정상으로 등산로 탐방길 되어 있습니다
- 가액 : 2억 2천

010-4953-1728

상가주택 포교원 안내
- 투자가치도좋음(대한방직150m거리143층 초고층타워와아파트 신축예정)
- 위치 : 전주시내. 앞도로변. 좌로4차선. 앞으로 2차선
- 주변환경.전북경찰청.도청.아파트.상가.주택. 밀집지역.공원.천변산책로
- 대지 61평.뒷마당있음.건평90평.각30평.3층건물
- 1층.방3개해우소 / 2층.법당.수미단원목조성. 소불300불.연등.700.인등.영가인등. 해우소 3층.주택,방3개.화장실2개.외부.내부 뼈대의 올리모델링 CC카메라10대.상담을 해주시는 분이면 최고의 위치
- 가액 : 4억3천만원(불사관계로)

휴대폰 : 010-5904-8608

사 찰 안 내
- 위치 : 큰강이 보이고 비룡산 중턱 차량 가능
- 전통사찰 법당 20평, A동 30평 B동 10평, 삼성각, 범종 5백관 땅 5백평 신도땅. 도지세 1년 10만원
- 위 모든 건물 법당시설비만 3천 9백만원 전체 드림
- 은사 절 급한 사정 때문

010-7637-125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개금동
- 단독주택 1층 40평
- 법당 20평, 큰방 3개, 후원, 화장실(실외1, 실내1)
- 시설완벽.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시설비 1천3백만원
- ※사진 보내줄 수 있음

010-3389-8133

포교원 안내
인수하실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 서울 불암산 아래
- 총평수 70여평(법당30평,종무소(사무실)20평, 주지실 및 공양간10평,세면장,보일러실,창고10평)
- 별도 옥탑방 있음.
- 보증금 : 2천만원,월60만원 시설비 2천만원(조정가능)
- 법당 및 모든 시설물 설치되어 있으니, 몸만 오셔도 됩니다.

010-3659-707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 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상담후 결정)

010-3262-100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 1동 아양교지하철역 2분거리
- 3층 상가 건물 2층. 약 50평
- 아미타삼존불 모셔져있음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가급 2천 절충가능)
- 계약 즉시 입주가능

010-9823-589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 603번지
- 법당 27평, 구 건물 11동
- 산사에 대지 660평, 현재사용부지 2,000 평
- 매실 350그루 외 다수 유실수
- 현재시세 4 ~ 5억정도 형성 사정상 급 안내
- 가액 : 3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평수 265㎡(80평) 2층 법당 15평, 산신각 1동 1층 요사채 27평
- 아랫체 창고 방 1개
- 산자락 및 아담한 암자
- 가액 : 융자 4천 안고 1억 2천만원(가격절충)

010-8794-1257
010-6222-5835

사 찰 안 내
- 법당 : 20평
- 산신각 : 10평
- 요사채 : 40평
- 몽땅 : 1억 2천

010-8861-1785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최상의 위치
- 건평 70평 완벽한 시설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등)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즉시 법회가능(몸 만 오시면 됨)
- 시설비 조정

043-845-812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내동 137번지 2층
- 삼존불 및 대형탱화 2점 및 지장원불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8541-560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약 25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체 및 공양간 : 약 35평
- 요사체슬라브 공양간 판넬-대지총면적 : 약 43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4억5천만원(약간의 절충가능)

연락처 0505-308-2111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세요.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010-5424-4969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대병면 유전리 소재
- 부지: 666평 중 사찰부지 조성 210평
- 건물 : 부지조성한 아래 종전 가든한 건물3동32평 1동 25평 2동
- 특징 : 건물 3동위 산밑 210평 사찰부지로 조성 지하수 1급수 면소재지 2~ 3분거리 합천읍 20분 영화테미파크 10분거리 현재 울산-함양간 고속도로 건설중 대병(IC 5키로 이내) 국토변에 위치한 합천댐위 명당자리
- 추천용도 : 사찰 연수원 요양원 팬션 식당(허가있음)
- 가액: 3억 3천만원 최저가액(대출금 있음)

주인직 010-2544-484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
- 평수 : 20평, 3층 건물
- 삼존불 조성
- 몸만 오시면 언제든지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1,000만원 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010-3866-592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 답 1100평 중 대지 300평 법당(대웅전) 25평 요사채 15평 석가모니불
- 기백산 등산로입구 차량 진입가
- 가액 : 1억 7천 5백만원 (은행융자 9천만원)

010-3806-3271

주택안내(토굴하실분)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옥산서원길
- 대지 380평, 전 290평
- 전통한옥ㄱ형 본채, 별채(2채)
- 약 70평 (부속 건물 포함) 준공일 2012년, 12월
- 가액 : 10억 (답사후 절충가)

010-7449-29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장목면 대금산 자락
- 전체부지 1,100평 주택 1동 심야전기 보일러
- 임법당 24평, 산신각 종교부지 300평,
-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5억 5천만원 (은행융자 2억 포함)

010-9113-0015

사 찰 안 내
- 위치 : 수원시 동수원 사거리 중심 그린상가
- 건물 : 1, 2층 전체
- 대지 136.5평 건평 149평, 법당 75평
- 1층 요사채 겸 식당 주차장 완비
- 가액 : 평당 천오백

010-3752-2601

도심속 산중암자
- 위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 단독 주택 시내가 한눈에 보임
- 방3칸 인법당. 산신각 1동. 넓은 텃밭
- 화장실 2개. CCTV 유
- 가액 : 8,000만원

010-5628-9338

토굴식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문백면
- 모든기도 성취 영험도량
- 평수 253평, 2필지
- 대웅전, 삼성각, 요사채, 별채 포함합니다
- 가액 : 2억 8천(융자 1억 2천 8백만) 시세조정가능

010-5496-6417

“얼음 불탑으로 지구온난화에 경종을”

인도 라다크 조각가들, 잔스카르 계곡에 얼음으로 탑 조성해

지구온난화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만년설이 녹고 있는 인도 히말라야의 라다크(Ladakh) 잔스카르(Zanskar)계곡에 얼음으로 만든 불탑이 조성 됐다. 평균 해발이 4,000m가 넘는 라다크 지역은 연평균 강우량이 100mm를 넘지 않아 생활용수는 물론, 80%가 넘는 농업인들이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은 물을 끌어와 사용한다.

그러나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되면서 생존에 절대 필수적인 강설량이 줄어들고 있다. 라다크 지역의 언론인 니베디타 칸데카르(Nivedita Khandekar)는 “인도기상청이 측정한 강설량에 따르면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라다크의 수도인 레(Leh)의 평균강설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불규칙한 강수량과 기온이 올라가자 라다크인들 사이에선 눈이 많이 녹는 봄과 여름에 물을 길어 저장하는 것이 점점 표준화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라다크의 토목기술자이자 교육가인 체왕 노르펠(Chewang Norphel)과 소남 왕축(Sonam Wangchuk)은 인공빙하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자는 새로운 해결법을 찾아 실행했다.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강에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제외하고 흘러가버리는 물들을 다시 얼려서 재활용 하는 것이다.

먼저 말라 죽은 나무덤불들을 모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모아 쌓고, 강에서 물을 끌어와 뿌리기를 반복하면 물이 얼어붙으면서 약 40m의 얼음산이 생긴다. 이 얼음산들은 평균 1억 6천만 리터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얼음으로 탑을 조성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구온난화가 해결되지 않고, 최근 이상기후들이 발생하면서 세 명의 젊은 라다크 조각가들이 문제에 경종을 울리고, 자연재해들이 생겨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인공빙하 프로젝트와 함께 얼음으로 불탑을 조성하기를 발원했다.

전통적으로 라다크의 모든 마을에는 입구에 하얀 돌과 흙으로 불탑을 세운다. 베스트셀러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이 조형물은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연기법을 상징한다. 모든 삶과 생명이 하나로 연결 되어 있으며, 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각각의 개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탑 조성의 의미를 설명했다.







1 완성된 얼음탑(쟝춥최텐). 2 얼음불탑을 조성한 작가들. 앉아있는 인물 왼쪽부터 체링 규르메, 치메 도르제, 땐진 캉사르. 3 탑을 조성하고 있는 작가들.

체링 규르메(Tsering Gurmet)를 리더로, 체메 도르제(Chemet Dorjay)와 텐진 캉사르(Tenzin Khangsar)로 구성된 조각팀은 모두 20대 중후반의 젊은 조각가들로 인공빙하 프로젝트의 책임자 소남 왕축과 상의 끝에 인공빙하의 안에 방을 만들고 3m높이의 얼음탑을 조성했다. 조성하기로 한 탑은 쟝춥최텐(Jangchub Choeten; 菩提塔)으로 지난 1월 조성이 시작됐다.

얼음으로 탑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지역여론은 좋지 않았다. 종교적으로 거룩한 상징인 탑을 전통적인 의식과 절차 없이 얼음이라는 소재로 만든 다는 것과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이 불만을 표했다. 조각 팀의 리더 규르메는 “먼저 모든 공동체를 위한 작품이라고 설득해야 했다. 탑이 완성되고 가장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탑이 여름에 녹아 다시 강으로 돌아가면 다시금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점, 미술작품은 시각적인 즐거움과 함께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얼음불탑을 조성한다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조각가들과 인공빙하의 중요성에 동감하면서 갈등은 쉽게 해결되었다. 인공 빙하 속에 만들어진 방안에서 조각 팀은 영하 12도를 견디며 2월 첫 주에 탑을 완성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소남 왕축은“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빙하와 만년설을 보존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미래에는 중국의 얼음축제와 같은 컨텐츠로도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얼음으로 작업을 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서 “또 이 얼음들이 다시 녹아가는 모습을 보고 지구온난화를 해결 하기 위해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우린 큰 재난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얼음탑과 인공빙하들을 보기 위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보통 여름에 집중되는 라다크 관광을 동계에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겨울에는 라다크의 다른 지역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인공빙하와 얼음탑을 만들 예정이다.

박영빈 객원기자

선택과 결단 위한 1분의 깨달음

망설이는 현대인을 위해…



일상에서 선택과 결단으로 망설이는 현대인들을 위해 짧은 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선택지를 일러주는 책이 일본에서 발간돼 화제다. 일본 인터넷 매체 ‘니코니코 뉴스’는 3월 22일 도쿄의 고찰 미츠조인(密藏院)의 주지 나토리 호겐(名取芳彦, 60) 스님이 발간한 책 〈1분 깨달음, 사진〉을 특집 보도했다.

지금까지 6권의 스테디셀러를 출간한 호겐 스님은 “나 역시 30대 초반에는 무엇을 할지 헤매다가 포기하고 방치했던 경험이 많다. 그런 불쾌한 경험을 되풀이 하는 인생을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며 책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호겐스님은 “어째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또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한다”고 말했다.

일상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찾는 것, 이해와 받아들임을 통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는 것은 2,500년간 이어져온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호겐스님은 역설했다. “이 책은 경전에 나오는 경구로 가르치기 보단, 일상 속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에 목적이다”고 말한 스님은 각 장이 끝날 때 마다 1분 깨달음의 명상법을 소개한다.

먼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이것이 좋아’라는 마음이 아닌 ‘이것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질 것을 말한다. 스님은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1분 명상을 제안했다.

1.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본다.

2. ‘이것이 좋아’가 아닌 ‘이것도 좋아’라는 선택지를 찾는다.

3. ‘이것도 좋아’라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한다.

이렇게 명상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좋아’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에서 결단력에 대한 1분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이다.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를 원하면서도 항상 ‘고집’이라는 것에 묶여있다. 당장 자연이 사계절로 변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며 고집에 대한 1분 명상도 제안한다.

1.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을 떠올린다.

2. 고집을 부려 생겨나는 불편함과 부자연스러운 것을 바라본다.

3. 고집을 버리고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이미지화 한다.

스님은 이렇게 경전의 경구나 현학적인 예를 들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의 삶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의 진정한 활용 방안이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워싱턴 D.C.서 만나는 부처님 숨결







워싱턴 D.C. ‘아서 M. 새클러 갤러리’서 진행 중인 옻칠불상 특별전시회가 현지서 뜨거운 반응을 모으고 있어 화제다.

‘워싱턴 포스트’는 3월 8일 ‘아서 M. 새클러 갤러리’의 ‘옻칠불상의 비밀(Secrets of the Lacquer Buddha)' 특별 전시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6, 7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옻칠불상 3개가 전시되며, 이 전시는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세 불상은 각각 워싱턴의 프리어갤러리(Freer Gallery of Art), 볼티모어의 월터 아트 뮤지엄(Walters Art Museum),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에서 빌려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세 미술관이 아서 M. 새클러 갤러리에게 불상을 빌려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워싱턴 D.C.의 현지 사람들은 “워싱턴 D.C.에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전시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프리어갤러리에서 온 불상〈사진①〉은 중국 당나라 시절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금과 안료로 채색됐다. 월터 아트 뮤지엄의 불상〈사진②〉은 중국 수나라 시절의 불상 모습을 보여준다. 마지막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불상〈사진③〉은 당나라 시절의 불상 모습이다. 특히 이 세 개의 불상들은 보석, 금, 향나무, 경전 두루마리와 같은 복장물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박진형 기자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마인드풀니스

조셉 골드스타인

〈2〉 〈염처경〉 정형구

지혜 얻기 위한 마음챙김 토대



〈염처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다. 경전에서는 13회가 나온다. 반복되는 구절인 정형구는 네 가지 마음챙김의 토대에 대한 명상의 가르침 뒤에 반드시 뒤따라 나온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몸[느낌 · 마음 · 법]에 대해서 몸을 내적으로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외적으로 관찰하며 머무르거나, 내외적으로 관찰하며 머무른다…"

정형구의 반복을 통해서 붓다는 수행의 본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 자신의 체험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내외적으로 관찰한다.

• 무상의 현상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일어남, 사라짐, 그리고 일어남과 사라짐이 따른다- 을 관찰한다.

• 순간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순히 아는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정신적으로 아무 것도 붙이지 않는다- 단지 일어나고 있는 그것만 알아차린다.

• 자신의 체험 영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머무른다.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몸에 대해 내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수행하는 방식이다. 몸에서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이 호흡할 때 느껴지는 감각일 수도 있고, 또는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아니면 꽉 조이거나 답답한 느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몸을 외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명상 수행자들이 흔히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점이 있다.

외적으로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주의를 끄는 다른 사람의 몸동작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판단하거나 그 행동에 반응하는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단지 그의 행동을 보면서 단순히 행동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는 것에 머무른다. 다른 사람이 걷거나 먹는 행동을 할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길 수 있다. 그들이 빠른지, 느린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경솔한지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 나 자신의 수행 경험을 돌이켜 보면 역설적이면서 유익하지 못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마음을 잘 챙기고 있지 못한 것-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에 신경을 쓰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의 수행을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사실은 전혀 마음을 챙기고 있지 못한 상태임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대개 이런 어리석은 습관이 오래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이런 습관을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런 정신적인 약점을 유머러스하게 넘기는 것은 여러 모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외적으로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리면 여러 다양한 번뇌로부터 자신을 지키게 된다.

마지막으로 내외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을 살펴보자. 아날라요의 견해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체험을 자기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객관적인 체험 그 자체로 관찰해야 한다는, 보다 심오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내외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마음챙김 수행이 갖는 포괄적인 점을 잘 보여준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든 아니든 모든 것을 알아차리라는 뜻이다. 결국 이런 모든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 안과 밖 모두 관찰하며
번뇌로부터 스스로 지켜고
평정된 마음상태 중심으로
마음챙김 집중력을 높여라

일어남과 사라짐

정형구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일어남의 현상, 사라짐의 현상, 일어남과 사라짐의 현상 모두를 관찰하며 머무르라고 했다. 미얀마 명상 수행의 위대한 스승과 학자들 중 한 사람인 레디 사야도(Ledi Sayadaw)는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지 않는 것은 무지이지만, 모든 현상을 무상으로 보는 것은 통찰과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개념적 이해가 아니라 직접 체험한 이해-하게 되면, 무한히 깊은 통찰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섯 명의 첫 제자들에게 행한 첫 설법에서 붓다는 무아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계속하여 5온-물질 요소 · 느낌 · 지각 · 형성 · 의식-들 하나하나가 무상하고, 무상한 것들은 믿을 수 없고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또한 믿을 수 없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진정 '나' 또는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다. 이런 가르침을 들은 다섯 제자는 바로 깨달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가르침이 갖는 해탈의 힘은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깊이 보게 되면, 마음은 환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감정에 좌우되지 않게 된다. 그 좌우되지 않음을 통해서 마음은 해방된다.

영어로 표기되는 disenchanted(환상에서 벗어난), disillusioned(환멸을 느끼는), dispassionate(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는 부정적인 함의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자유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환상을 부수고 현실을 좀 더 제대로,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게 깨어난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수많은 위대한 신화와 동화의 해피엔딩이다. 환멸을 느낀다는 것은 위축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것과 다시 연결되고 망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은 '냉담하거나', '무감각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문을 더 크게 열고 평정된 마음 상태에 있는 것이다.

무상에 대한 관찰

무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현실을 체험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지각되는 것과 지각하는 것 둘 다 고정된 존재라는 망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본다. 명상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전복시킨다. 이런 힘을 갖고 있는 명상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러 단계에서 무상을 마음챙김할 수 있다. 무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지혜가 발생한다. 이미 무상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간과한다. 자연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변화를 알 수 있다. 말하자면 기후 변화, 매일의 날씨 변화, 종(種)의 진화와 소멸이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사회에 거대한 규모의 변화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문명과 문화의 발생과 소멸 같은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다. 뉴잉글랜드의 숲길을 걷다 보면 수 마일의 돌로 된 벽과 오래된 주춧돌을 만나게 된다. 그 사이에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것일까? 생생한 어떤 삶들이 있었던가? 무엇이 남았는가? 우리는 인간관계 또는 일터에서, 아니 가장 친근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이런 변화를 볼 수 있다.

마음챙김과 집중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세한 차원에서 무상을 더 명확하게 그리고 더 깊이 보게 된다. 단단하고 안정되게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실체가 없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보게 된다. 변화에 대한 지각은 너무나 빨라서 대상을 보는 순간 그 대상은 이미 사라져버린다. 이럴 때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챙김이 약해서 충분히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변화에 대한 지각을 연마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은 거기에는 마음을 기울일 만한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명상 수행을 할 때, 특히 앉아서 할 때 무상 중에서 어떤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주목해 보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된다. 마지막 것이 사라지기도 전에 새로운 것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는가? 끝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고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고 있지 못한가? 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똑같은 정도로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수행을 하면서 어떤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변화에 대한 지각 방식을 알아차리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주의를 연마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붓다는 어느 경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자각하는 마음챙김의 확립과, 마음챙김 확립의 계발을 구별하였다. 이 계발 단계에서는 무상을 알아차린다는 그 자체가 대상 자체를 알아차리는 것보다 더 지배적이 된다. 이것은 내용의 마음챙김에서 과정의 마음챙김으로 이동하는 출발점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띠빳타나의 단계이다. 왜냐하면 체험한 것이 여전히 불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무위의 열반으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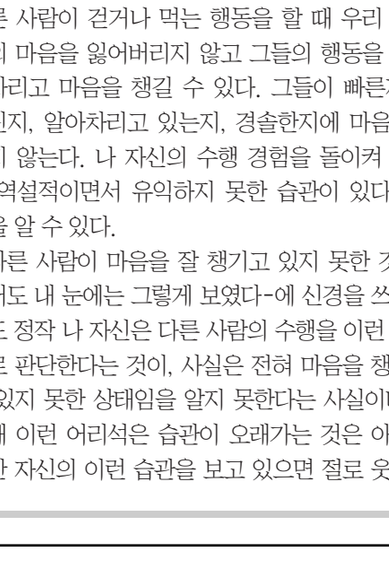
이런 이해는 비구 또는 비구니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붓다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가불자들이 심오한 깨달음에 도달하였다. 붓다는 이런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해 재가불자인 마하나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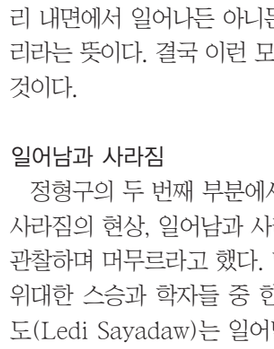
"마하나마여, 여기 지혜로운 재가 신도가 있다. 그에게는 일어남과 사라짐에 대한 지혜가 있다. 그 지혜는 성스럽고 철두철미한 것이며, 고통의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재가 신도는 지혜를 성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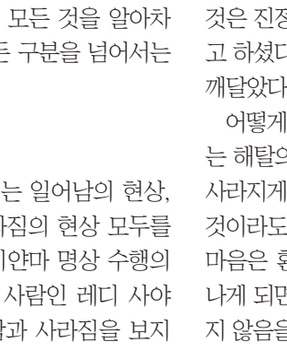
이 글은 깨달음으로 가는 실용적인 마음수행 안내서 〈마인드풀니스〉 (도서출판 민족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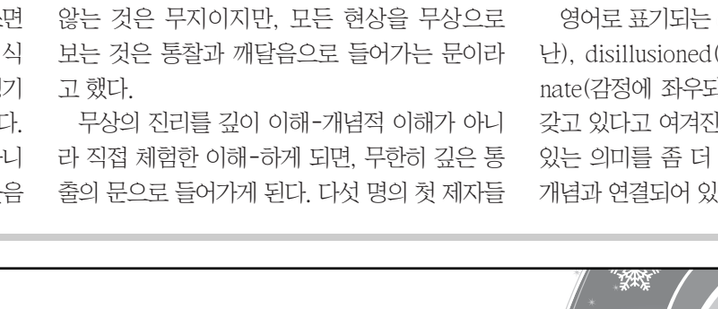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법당의 구형앰프 설비를 "80만원 보상해" 최고급 『800W 파워드믹싱 앰프(USB내장)』 셋트로 단160만원에 교환 설치 / (월 8곳만 예약순 설치 가능)

(기본제공 : 800W 앰프 + 450W 스피커 + 900메가 무선마이크 1대, 사용중인 앰프설비는 회수합니다!)


• 대출력파워드 믹싱앰프
출력 : 800W USB내장
가격 : 1,200,000원


• 대출력스피커 1조
최대입력 : 450W
가격 : 700,000원

염불용 초고성능 마이크 출시


• 60Cm 이상 거리에서도 장엄하고 맑은 소리 보장!
• 오래된 앰프와도 잘 맞아 뛰어난 소리가 나옵니다
• 가격 : 175,000원(홀더 포함)
2개 구입시 : 305,000원

마이크용 목걸이 증정

주지스님 전용
•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 조절

신상품 삼신각(명부전,전용) 앰프 세트


전체 1세트(SET) 580,000원
(엠프〈USB용〉+스피커+마이크스탠드 포함)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가격 : 300,000원

가격 : 1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300호)

소장 김문화
무선설비기사, 음향연구가
제1급 아마추어무선기사

주문 계좌 : 우리은행 김문화 1002-610-963886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그대로 우리가 여여하게 놓고 가는 거니 걸림 없어라!


그림 · 최주현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외국이라는 데를 한시도 쉬지 않고 비행기를 십여 번을 갈아타면서 돌았습니다. 그것이 다 여러분의 염원에 의해서 한마음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다녀오지 않았나 하는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은 한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깐요. 만 명이든 수십만 명이든 전부 각(覺)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한 도량의 한 부처니까요. 진리가 하나지 둘은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한테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더불어 사는 내 몸이 혹성이듯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바로 우리의 집이자 혹성입니다. 이 만법의 기틀과 기본을 모른다면, 우리는 마음을 낼 수가 없어서, 항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도 해 보지 못해서, 집도 망가지고 또 저 혹성의 집도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몸이 망가지듯 말입니다.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주지 않는다면 내 몸인들 견뎌 나겠습니까? 사는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옷을 벗고 싶을 때 벗어야죠. 그러나 옷은 벗지만 그 마음의 근본은 영원하죠.

우리가 미래에서 본다면 현재가 과거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래이자 과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 자체가 공(空)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공부들을 하셔야 되겠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어디를 막론해 놓고 지금은 인공위성으로 인해서 전파가 두루 하고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보다 더 빨리, 빛보다 더 빨리 전파를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 대로 이것이 우주 법계에 두루 입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몸뚱이가 이렇게 있지만 또 정신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정신세계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면 도저히 정신세계의 나를 맛보지 못합니다.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같이 있지 않고, 같이 있지 않으면서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가 심오하고 그 뜻이 너무나 엄청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엄청나다는 걸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질질 끌려 다녀야만 하는 노예가 돼야 되겠습니까? 정신세계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현실세계에서 자유스럽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시고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고가 닥칠까?' 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병고와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안다면 내가 어디에서 온 것도 알 것이고,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것도 알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도리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십구 년을 설하시며 그 뜻을, 마음의 도리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저버리고 항상 이론으로만 '마음, 그거.' 하는데 그렇게 이해만 해서 마음을 증득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만 해 가지고 '내가 알았다. 나는 그만하면 됐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알아.' 이런 그 자기의 아만과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 깊이를 알며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서 햇빛이 들어오는 걸 알겠습니까? 그리고 허공에 불바퀴가 돌아가는 거를 어찌 걸리지 않고 앞뒤 없는 불바퀴를 넘나들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밝혀서 정신세계로 치달아야 하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 바쁜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은 것도 머리 깎은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망한 게 아니라 무상(無常)하다고 해서, 길고 짧은 게 두루 무상하다고 해서 무명초(無明草)라고 이거를 깎아 버린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한테 표현이고 또 공부하는 데 방편이자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그대로 실상임을 깨닫는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래의 세계도 여기에서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도리가 전부 법계에 정보가 돼서 정신세계의 미래도 개척을 해 나가면서 현실에서도 개척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도리가 됩니다. 우리의 이 몸뚱이만 내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중생이 살고 있습니까. 그 중생 속에 부처가 있음으로써 그 부처가 원자라고 한다면 바로 그 원자 속에 또 입자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생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다면 미래의 정신세계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높고 낮은 게 없이 모두가 벗이고 모두가 한마음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우뚝하게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마음과 마음이 말입니다. 이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한마디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무르는 데서 생각하지 말고 머무르지 않는 데서 생각하는 도리는 무엇인고?"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 당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무른다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꾸어서 말한 거는 바로 '고정됨이 없으니, 그대로 우리가 여여하게 놓고 가는 거니 걸림 없어라' 하는 소리나 똑같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누가 살아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몸뚱이가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정신이 여러분 몸뚱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안의 의식들을 지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불성의 기둥, 불기둥과 더불어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 생각을 해서 바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니 지배하는 동시에 그 마음과 의식들을 전부 한꺼번에 둥글려서 한마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뭣고' 화두를 갖는 것보다도, '이게 뭣고?' 하고 십 년이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셨으니까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에 여러분이 있는 거죠. 또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생명도 둘이 아니요, 마음 씀씀이도 둘이 아니요, 몸도 모습도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이 도리를 한마음으로 뭉쳐서 안다면 바로 여러분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바로 그게 둘이 아닌 까닭에 '너'가 뚜렷하게 있고 '나'가 뚜렷하게 있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리에 걸림이 없다면 누가 뭐래도,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너는 못 쓴다 쓴다, 너는 이쁘다 밉다, 지위가 높다 낮다 하더라도 여여하게 마음 씀씀이를 쓰는 거죠. 이런 공부하는 데는 모든 것에 걸리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아집을 갖지 않고, 항상 겸손하면서 뜻보시와 법보시, 부드러운 말보시를 해서 뜻으로나 말로나 마음으로나 모두가 자비하고 인의롭고 폭이 넓게 이렇게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무르는 데에 생각을 내지 말라' 이 뜻이 뭡니까? 모든 것을 '이쁘다. 밉다. 너는 잘못했으니깐.' 그렇게 고정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강도질을 하다가도 회개를 하면은 참 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다,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한생각 돌린다면 그 사람은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어떠한 경우에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 또는 착하지 않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말라. 이런 것을 머무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면은 바로 머무르는 것이 되고 걸린다 이 소리죠.

인생이라는 것은 한 철 캠핑을 왔다가 한 철 나고 한 철 막을 거두고 가는 건데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 세상, 지금 사는 이게 과거가 됩니다. 미래의 정신세계로 가서, 즉 말하자면 세 갈래가 주어집니다. 하나는 악, 하나는 그저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는 각(覺)을 이룬 사람, 이렇게 해서 단계가, 그러니까 모든 게 이름을 옥황상제라 하고 모두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한자리, 한 마음, 한 발 딛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은 과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의 정신세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계발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잘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세계를 둘 아니게 다스릴 수도 있죠. 우리는 자유스럽게 내가 될 수 있고 나툴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 도리를 알아야 나 아님이 없는 도리의 그 활용(活用)을, 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지, 둘이 아닌 도리를 모르고 부처님 말씀처럼 여기에 머무르고 저기에 머무르다가는 내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더디며 정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조금도 각자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자기의 불성을 믿어야

☞ A17면에서 계속

신세계의 맛을 못 보며 항상 끄달리면서 아마 노예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여기서 오늘은 질문을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질문을 하시면 자상하게 여러분과 같이할 것입니다. (삼배를 올리는 질문자를 향하여) 인제 삼정례(三頂禮)를 일정례(一頂禮)로 하십시오. 우리는 몸을 수련시키는 게 아니라 정신을 수련하는 겁니다.

질문자1(남) 삼처전심(三處傳心)에 대해서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종선감』에 이르기를 선(禪)은 불심(佛心)이라 했고 교(敎)는 불화(佛話)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가섭존자(迦葉尊者)에게 세 곳에서 전심한 것을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하는데 첫째, 염화미소(拈華微笑) 둘째, 다자탑 전분반좌(多子塔 前分半座) 셋째는, 곽시쌍부(槨示雙趺)가 있습니다. 한 마음 도리에 비추어 큰스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큰스님 첫째, 염화미소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법을 전하신 겁니다. 그 법이 둘이 아닌 까닭이죠. 둘째, 석존이 가섭에게 반자리를 내 준 것은 바로 한도량에 한자리다 이겁니다. 반자리를 내 주신 것도 한자리다 이거야. 한자리면서도, 거기 붙어 돌아가는 것은 한자리면서도 '네가 있고 내가 있구나' 하는 그 도리에서 이 세상만사가 다 거기 붙어 돌아갑니다. 세 번째, 석존께서 관 속에서 두 발을 내보이신 뜻은 바로 한 땅에 한 발이다 이 소립니다. 그 뜻으로 생각한다면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중생이나 부처가 한마음임을 돌려 깨달으면 이 도리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것을 가르치려고 방편으로 보여 주신 겁니다. 실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조금도 각자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불성을 믿어라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야지 거기다가 뭘 물어보고 자시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실로 믿는다면 하늘이 깨져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여하게,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 여여하게 아마 일하러 나갈 겁니다. 요새 외국에 가니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 지구가 망가질 일이 생기고 뭐, 생명이 다 위태할 일이 생기고 2000년대는 무슨 뭐가 어떻다고 그러던가요? 나 듣고도 잊어버렸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뭐, 종말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노예로 사니깐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종말이지만,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안다면 둘이 아닌 까닭에 종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이 있다 하더라도, 흙만 있다 하더라도 종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명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 존재가 생명이 없고 불 존재가 생명이 없다면 우리 생명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겠습니까?

지수화풍으로 된 이 몸뚱이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흩어졌으면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한데 뭉쳤으니깐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라고 존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처라고 존칭하는 여러분이 지금 지수화풍을 갈래갈래 갈라놓고 먹습니다. 그러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치라도 불성이 없다고 하며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까 질문하신 것 가운데 이 세상만사 살림살이가 다 나옵니다. 석존께서 다자탑(多子塔)의 반쪽을 내줘서 같이 앉은 자리라는 그 뜻이 말입니다, '이어지지 않음이 없이 이어지는 까닭에 네가 있고 내가 있느니라,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니라.'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생들을**
> **다스릴 수 있는 진짜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다면**
> **미래의 정신세계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참, 외국에서도 이 천주교나 기독교나 또는 티베트 불교, 통일교, 원불교 이런 데 말입니다, 우리 그 교재, 항상 다달이 나오는 법문 회보가 그리로 다 갑니다. 그것을 안 보내면 오히려 가지러 옵니다. 설법할 때 그걸 위주로 해서 하고 거기서 빼서 또 교재를 만든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순간 '급하구나.' 이 경전이 급한 거보다도 '이거를 한데 모아서 엮는 게 아주 급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계적으로 청소년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료가 없다고 자료를 청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동시에 한 마음이 되니까 좋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뭉쳐 줘서 늘 감사하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도리를 모르면 내 몸도 이끌어 갈 수 없고 가정도 이끌어 갈 수 없죠. 사회도 이끌어 갈 수 없고, 그리고 국가도 이끌어 갈 수 없습니다. 국가를 이끌어 가려면 세계를 알아야 되고, 세계가 내 손 안에 들어야만이 국가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너 나 할 거 없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내 가정을 지켜 나갈 수 있고요. 다른 질문 없습니까?

질문자2(남) 저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큰스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업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고 이생에서 심은 습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둔한 저희들은 아직도 마치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업이란 무엇이며 우리의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진화를 할 수 있는지, 영(靈)과 불성(佛性)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영(靈)이라는 것은 불성(佛性)하고는 다릅니다.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모습 없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불성은 아닙니다. 혼(魂)이라는 것도 '영'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혼(靈魂)"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릇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 따라서 작은 그릇이면 작은 그릇의 영혼일 것이고 크면 큰 대로의 영혼일 것입니다. 불성은 그대로이면서도 갖가지로 다르게 마음을 내는 것, 즉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데 비유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렇게 하는 것을 이름 붙여서 영혼이라고 하죠. 그 영혼 하나가 만사를 잘못되게 할 수도 있고 잘되게 할 수도 있죠. 영혼이 불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고 잘되는 거를 이끌어 가는 그 자체가 돌고 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불성이라는 자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돼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주에 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불성에 이끌려서 우리도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면서도 꿈쩍도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도 돌아감이 없는, 더하고 덜함도 없는 그것입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의 그릇이, 그릇 없는 그릇이 있어야 한 찰나에 드셔서 묘법의 설법을 하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 이런 게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미래에서 볼 때는 현실이 과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서 다시 올 때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에서 볼 땐 여기가 과거고 여기서 볼 때는 그게 미래입니다. 우리가 정신세계의 차원을 삼차원으로 볼 때, 영혼이 잘못된 일들을 했을 때에 자기 그릇대로 노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 똑같습니다마는 생각이 모자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반면에 악도 있고 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옥황상제가 지배인이라면 그 지배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즉 악이 선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배자가 될 양으로 그 정신세계에서도 싸움 아닌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지금 현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이 부부가 참 좋은 아들을 달라고,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다 자비하게 사랑하면서 이끌어 주는 그런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빌고 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을 낳자마자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서 아들을 기르다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마저 죽어 버렸습니다.

그 엄마는 정말이지 부처님한테 진심으로써, 항상 마음의 인등을 켜면서 염원하다가 그대로 앉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턱 가 보니까 너는 지금 낳은 아들을 또다시 가서 낳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이 성해서 이 세상이 모두 혼란이 와. 그러니까 너는 빨리 나가거라." 그래서 또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명을 받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벌써 죽어서 미래의 세계로 갔습니다. 그래 미래의 세계에 가서 보니까 애당초에 부처님의 뜻을 받아서 각(覺)을 이룬 사람이라, 생시에도 그렇게 마음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대로 미래의 세계로 전파를 보내고, 그러는 한편 미래의 세계에서도 그 사람이 있으면서 지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야 할 텐데, 이 악에서 볼 때는 그 여자를 꼭 죽여야만 옥황상제가 또 지배를 하지 않게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 여자를 택해서만이 그 영혼을 낳을 수 있고 배를 빌려야 하니까. 그래서 여자를 죽이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선에서 그거를 알고선 또 이쪽으로 구하러 보냈습니다. 미래의 세계에서, 즉 말하자면 정신세계에서 이 여자를 보호하고 살려야 된다는 뜻을 청했습니다. 내가 지금 급하니 당신의 그 전자의 아들의 뜻을 바로 이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대신 그 여자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또 낳아 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간파했습니다. 보면서 들으면서 또 이 누진(漏盡)으로서 결정을 내면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고 또 연방 그렇게 살피는 동시에 한 찰나에 과거와 미래를 드나드시니, 여기 가만히 앉아서 지배를 했다 이 소립니다.

그것이 부처님 세계의 한자리의 도리, 아주 차원 높은 도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선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선의 주인공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살기가 어지럽게 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 되니 이 몸뚱이 혹성이 많이 죽게 되고 살기가 극난해지죠. 불안을 조성하고 방황을 조성하고 또 싸움을 조성하고 그러면 세상만사가 어지러워서 지구도 그렇고 모두 소멸되는 그런 작전이죠. 악이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거를 풀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각자 너부터 알아야만이, 이 세상을 알고 이 세상을 알아야만이 네가 그렇게 지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앉아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미래의 세계와 과거의 정신세계와 같이 한자리를 하고 돌아가니까, 너 나가 없이 같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악을 전부 선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걸 용광로에 다 넣으면은 새 쇠가 아주 다양하게 나가듯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악도 선도 그렇게 다 넣으라 하신 반면에 그중에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어찌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것은 자기가 마음을 잘못 내서 저절로 독사 소굴에 태어나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옥도 이 자리에 있고 천당도 이 자리에 있고, 편안하게 자유 세상을 보내는 것도 이 자리에 있고, 부처도 이 자리에 있고 중생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도 공했으니까 없다." 한 그 뜻을 가르쳐야만이 미래와 과거와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세상을 똑바로 이끌어 가기 위한 방편이자 실천이죠. 여러분에게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 마음내고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 몫이니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4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 골 조
사찰신축전문



사찰지붕개량
천년와 기와 지붕개량
공사기간단축(3분의1)
공사금액 목조보다 60%절감

010-3911-1775 / 011-9726-9288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新春隨想

봄, '침묵 여행' 떠나자



승한 스님
서울 낙산 금산사 주지

내게 침묵 여행은 자기 연금술
그 여정은 나를 새로 담금질한다

긴 침묵의 여행을 하는 동안에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며
삶을 정리하며 자신을 마주한다

봄날 훌쩍 떠날 침묵 여행길에서
존재만으로 행복할 '나를' 만난다

공연히 마음 뒤숭숭한 춘수(春愁)의 봄이다. 생명의 명멸에 상관없이 이런 봄날엔 아무렇게나 문득 자지러지고 싶다. 그래서 그럴까. 나의 봄은 또 몸이 마르는 춘수(春瘦)의 봄이기도 하다. 봄만 되면 나는 까닭 없이 오목가슴이 보대끼고 푸른 봄바람 속에 더욱 파리하게 몸이 말라간다.

해마다 봄이면 찾아오는 나의 이 춘수(春愁)와 춘수(春瘦)의 정체는 무엇일까? 해보지 못한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살아보지 못한 삶 때문일까? 대책 없는 이 생의 충동 앞에서 나는 긴 침묵에 들어간다. 그리고 지난겨울의 침묵 여행을 생각하며 혼자만의 또 다른 침묵 여행을 준비한다. 삶에 침묵이 필요할 때 여행은 최고의 양식이 된다.

지난 겨울, 나는 강원도 양양 낙산사로 침묵 여행을 다녀왔다. 침묵의 겨울 날 그곳에 갈 때마다 먼 수평선에서 불어오는 시린 해풍은 나의 정신성을 매섭게 다져준다. 해마다 겨울이면 내가 양양 낙산사를 찾는 것은 또 어느 겨울 바닷가보다도 푸르면서도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물어뜯을 듯이 달려드는 파도의 역동성이 정신성의 고양으로 이어지는가 하면, 끊임없이 밀려드는 푸른 물결과 바닷바람이 날카롭게 얼어붙은 심장의 정신성을 더욱 다져주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나에게 있어서 침묵 여행은 자기 연금술이다. 백전백패한 삶에 지쳤을 때 침묵 여행은 죽어있는 내 삶의 정신성을 새로 담금질해준다. 들길을 걷고 바닷가를 걸으면서 마음과 침묵의 긴 대화를 나누다보면 내 마음도 어느덧 들판과 바다로 연금되고, 그럴 때마다 지리멸렬한 내 삶의 들판도 희망의 씨앗을 배아한다.

그런 까닭에 여행은 또 나에게 있어서 내 안의 철학으로의 초대이기도 하다. 가슴을 횡단하는 내 존재 의미에 대한 탐색과 성찰로의 초대이기도 하다. 침묵의 긴 여행을 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기도하고 명상하며 내 삶의 원초적 조건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공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나는 그 동안 돈과 명예와 욕구와 사회적 겉치레와 권력과 애욕과 분노에 가려 보이지 않던 내 젊은 날의 삶의 원초적 조건들과 이젠 웃으며 조우할 수 있다.

침묵 여행은 또 내 삶에 휴식과 각성이라는 보너스를 준다. 그리하여 내 정신의 오랜 기갈에 단물을 흠뻑 적셔준다. 짧지만 달콤한 그 휴식과 각성은 내 삶의 작은 교두보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백전백패하고 지리멸렬한 삶일지라도 침묵 여행을 통해 나는 휴식과 정신의 각성제를 흡입하고 또 다시 험난한 인생 절벽을 타고 오를 사다리를 준비한다.

공연히 마음 뒤숭숭하고 몸이 말라가는 춘수(春愁)와 춘수(春瘦)의 이 봄날, 내가 은밀히 또 하나의 침묵 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느 봄날 훌쩍 떠날 혼자만의 이 침묵 여행길에서 나는 우선 매화꽃을 만날 것이다. 다음엔 동백꽃을 만나고 산수유 꽃을 만나고 목련꽃과 벚꽃과 배꽃도 만날 것이다. 그리하여 매화꽃을 만나면 매화꽃으로 연금되고, 동백꽃과 산수유 꽃을 만나면 동백꽃과 산수유 꽃으로 연금되고, 벚꽃과 배꽃을 만나면 벚꽃과 배꽃으로 담금질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봄, 나를 공연히 뒤숭숭하게 하고 마르게 했던 내 삶의 원초적 춘수(春愁)와 춘수(春瘦)들과 다시금 미소지우며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이대로 존재하는 존재감만으로도 행복한 나를 만날 것이다. '이대로 OK'인 '무한 나'를 만날 것이다.

社說

비구니 대사회 역량 세계로 뻗길

전 세계 12개국 비구니스님들의 연합체인 세계불교비구니협회가 공식 첫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대회 주제 또한 '남북통일'로 정해져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 평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확정된 만큼 이에 앞서 열리는 비구니스님들의 평화대회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남북 화해무드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처럼 눈길을 끄는 비구니스님들의 대사회활동은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다. 사회복지를 비롯해 인재양성, 불교문화 등 다양한 분야서 밑바탕부터 내실을 다지며 활동해온 씨앗이 싹튼 것이다. 이미 비구니스님들은 국내 불교복지 중 호스피스·노인복지 등 곳곳에서 선도하는 데다 불교통역과 사찰음식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비구니스님들의 대사회활동은 비구스님들과 달리 오래 전부터 자격에서 암묵적인 제한을 받았다. 부처님이 설한 비구니 팔경계로 인해 마치 비구니가 비구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되는 풍토가 불교계 저변에 깔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비구니에게 더 많은 계를 설했을 뿐 비구와 비구니 존재의 가치에서 차이를 두진 않았다. 결국 왜곡된 경전 해석이 비구니스님들의 대사회활동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비구니스님들은 굴하지 않고 사회에 법향을 전했다. 그 법향이 점차 사회를 맑히면서 비구니스님들의 대사회 역량도 인정받게 됐다. 이제는 비구니스님들의 역량이 국내뿐만 아닌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기대한다.

뉴미디어 포교 '소통'이 키워드

1980년대 뉴미디어는 'TV' 등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2010년대에는 '어플리케이션' 등이었다. 매 시기마다 이른바 '뉴미디어'는 존재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 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뉴미디어의 의미는 '소통' '상호영향'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뉴미디어 시대의 불교포교에 대하 종단 안팎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뉴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해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론을 따지기에 앞서 2018년 뉴미디어 포교의 키워드가 '소통'란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유튜브 등이 각광받는 이유는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공급자간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골자로 한 미디어 활용이 바로 뉴미디어다. 그렇기에 뉴미디어 불교 포교 또한 이러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한다.

수행을 점검받고, 도반끼리 신심을 높이고, 사찰의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하는 이러한 상호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교계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입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찰을 찾는 일반 시민의 눈에서 보아야 한다. 비불자의 입장에서 불자들의 행동을 바라보아야 한다. 재가자의 입장에서 출가자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 허심탄회 소통하며 변화해야 한다.

조계종은 콘텐츠 진흥을 위한 제도와 플랫폼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그 이면에 상호 소통,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별기고

세계불교비구니협회 한국지회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주최한 평화에세이 공모전서 통일상에 선정된 경주 흥륜사 한주 법념 스님의 글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여생을 금강산서 보내고 싶다



법념 스님
경주 흥륜사 한주

텔레비전에서 "고향의 봄"이 흘러나온다. 탈북해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 만든 합창단의 울림이다. 얼굴이 드러나면 북에 있는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모두 다 가면을 쓰고 노래한다. 새해를 맞이해 고향에 가고픈 마음을 담아 한과 꿈이 서린 소리를 토해낸다. 분단국가의 서러움이 절절히 전해진다.

은사이신 혜해(慧海) 스님은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다. 흥륜사에서는 우리 스님이 거처하는 요사를 법기암(法起庵)이라고 부른다. 출가본사가 금강산 신계사(神溪寺) 법기암이어서 북녘 땅을 바라보며 늘 그리워해 법기암이라 새겨 현관 입구에 걸어드렸다. 금강산은 아니지만 현판이라도 보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이 될 것 같아서다.

금강산이 개방되었을 때 제일 기뻐한 이는 우리 스님이셨다. 오매불망(寤寐不忘) 그리던 금강산.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허가증까지 제공받아 얼마동안은 그곳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쁨도 잠시 잠깐. 몇 년 안 돼 절망으로 바뀌었다. 금강산을 계기로 통일의 물꼬가 트일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기뻐하셨건만…. 은사스님이 원하는 남북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지려나. 가슴이 쓰리다.

한국동란 때 불타 없어진 금강산 신계사의 복원불사를 할 때였다. 우리 스님은 구십이 가까운 노구를 이끌고 화주하러 나섰다. 오로지 남북통일을 위한 일념으로 1억여 원을 거둘 정도로 출가본사가 있는 금강산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지금은 신계사를 꿈에서만 다시 볼 수 있으니 그 안타까움이 오죽하겠는가. 그러기에 다른 뉴스거리엔 도통 관심이 없으면서 남북통일이나 금강산에 관한 소식만 나오면 유난히 눈을 반짝이며 귀를 열어놓고 들으신다.

이제라도 기다리던 통일이 오면 '금강산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푸념하듯 말씀하시는 은사스님의 염원은 오늘도 계속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은사스님의 발원은 오로지 남북통일이다. 사시마지를 올릴 때 빼놓지 않고 하는 축원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비는 모습은 뒤에서 보기만 해도 숙연해진다. 올해 구십하고도 여덟으로 백세가 내일 모레지만 매일 빠트리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늘 새롭다.

〈중략〉

오늘도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스님도 여생을 금강산에서 보낼 수 있기를. '나무 석가모니불'이라고 염불하며 두 눈을 살포시 감고 두 손을 고이 모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오늘따라 유난히 푸르다. 저 하늘이 이어진 북녘 땅에도 이곳처럼 하늘이 푸르리라. 동서남북이 없는 하늘이 부럽다. 아직까지는 남북이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 오갈 수 없어서다. 그 부러움이 현실이 될 그 날을 꿈꾼다.

지면 관계상 에세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현대불교 신문 홈페이지(www.hyunbulenws.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부산지사 : (051)405-9402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전북지사 : (063)910-8977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나
또한
세상을
바꾸는
힘
깨달음 종교
팔만대장경을 6강사상으로 압축하다.
BTN불교TV의 각설하고를 이 책에 담다.
팔만사천 법의 덩어리를 관찰하고 이 책을 쓰다.
저자 진귀장자
<깨달음 종교> 책은?
1. 팔만대장경을 6강사상으로 압축하다.
2. BTN불교TV의 각설하고를 이 책에 담다.
3. 팔만사천 법의 덩어리를 관찰하고 이 책을 쓰다.
제1강 사성제 제2강 법화사상
제3강 반야사상 제4강 유식사상
제5강 화쟁사상 제6강 화엄사상
※ 전국서점 및 인터넷서점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NAVER 깨달음 종교 검색
Daum 진귀장자 검색
•문 의 : 1899-9532

불교로 소설 쓰다 소설로 불교 썼다



등단 후 50여 년 동안 불교적인 작품을 써온 소설가 한승원 작가는 지난 3월 산문집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를 출간하며 쉼 없는 글쓰기를 이어가고 있다.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부친이기도 하다. 사진=박재완 기자

산문 밖의 禪

한승원 작가 (79 · 소설가, 시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승원 作 〈사람의 맨발〉과 〈원효〉

문학과의 인연

중3 때 독서가 문학의 길로
고2 때 문예반으로 문학 인연
특활 시간 숙제로 문학 시작
대한일보 신춘문예 '목선' 등단

올해로 등단 50년을 맞은 작가는 20여 년 전, 글만 쓸 수 있는 삶을 위해 '서울 생활'을 접고 자신의 고향인 전남 장흥으로 내려간다. 바닷가 '해산토굴'이라는 집에 자신과 자신의 삶을 고정시킨 그는 그 동안의 성찰에 깊이를 더해 쉼 없이 글을 써왔다. 최근 인생 말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 작가는 지난 삶을 반추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삶과의 이별도 준비하고 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별을 염두에 두고 바라보는 삶은 어떤 것일까. 소설, 시, 산문 등 그의 글은 그렇게 쉼 없는 성찰의 회향이다. 그 성찰은 그의 문학 50년의 변함없는 원소였으며, 그 원소의 근원지는 부처님이었다. 지난 3월, 산문집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로 또 한 번 깊은 소식을 전해온 작가 한승원이다.

친구 따라 간 강남, 문예반

작가 한승원. 그가 한국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학교 시절의 옆집 여학생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한 작가는 그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책이 귀한 시절이었다. 두 살 아래였던 옆집 여학생이 책을 좋아했다. 여학생은 자신이 읽은 책을 한 작가에게 빌려주기 시작했고, 한 작가는 책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삼총사〉, 〈톰소여의 모험〉, 〈춘향전〉, 〈홍길동전〉 등 그는 한창 배고픈 감성을 문학으로 채우며 성장한다. 목적이 따로 없는 독서였다. 그러나 그 작은 날갯짓이 먼 훗날 '작가 한승원'이라는 큰 바람을 만들어 낸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한 작가는 많은 독서를 할 수 있었다. 옆집 여학생의 정성도 그쯤 되면 작은 마음은 아니었다. 깊은 마음에서 비롯된, 높은 온도와 분명한 빛깔을 지닌 마음이었다. '인연'이었다. 한 작가는 그렇게 회고했다.

한 작가가 2학년이 되었을 때였다. 그때, 처음 '특활(특별활동)'이라는 시간이 생겼다. 한 작가는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망설이고 있을 때, 문학병에 걸려있던 그의 친구가 찾아와 '문예반'을 권했고, 그는 친구와 함께 문예반에 들어갔다. 그리고 첫 숙제가 있었다. 다음 시간까지 작품 하나씩을 써오는 것이었다.

다음 특활시간이었다. 한 작가는 생애 첫 단편을 들고 수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숙제를 해온 학생은 한 작가뿐이었다. 담당 선생님은 다른 학생에게 한 작가의 숙제를 낭독하게 했다.

"이 학생은 장차 훌륭한 소설가가 될 것이다."

학생들과 함께 한 작가의 소설을 읽은 선생님의 소견은 그랬다. 훗날 그 소견은 그대로 적중했다.

"큰 생각 없이 했던 독서였지만 아마도 그 독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의 소양과 능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2 한승원은 선생님의 그 말 한 마디에 바로 문학병에 걸린다. 문학의 꿈을 품기 시작한다. 그 문학병의 기원은 독서였으며, 그 독서의 진원은 옆집 여학생이었다.

처음 듣는 목탁소리와 염불소리

한 작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대신 가업을 도왔다. 농사를 짓고, 김 양식도 하고, 고기도 잡았다. 그리고 밤엔 책 속에 있었다. 부친이 사고로 인해 거동이 편치 않았다. 누군가는 아버지를 대신해야 했다. 한 작가가 아버지를 대신했다. 한 작가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문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무더운 어느 여름 날, 한 작가는 동생과 나란히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다. 어머니도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한 작가는 잠결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잠을 깼다. 처음 듣는 목탁소리였다. 그리고 목탁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또 다른 소리가 있었다. 햇살을 인 밀짚모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청아하고 맑은 소리는 염불소리였다. 그 역시 처음 듣는 소리였다.

한 작가는 처음 듣는 목탁소리와 염불소리에 넋을 뺏겼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그 뜻 모를 소리에 한 작가의 가슴은 커지고 있었다. 그 때 잠에서 깬 한 작가의 어머니가 작은 아들을 불러 스님께 시주를 하라고 일렀다. 그때, 한 작가는 쌀독을 향해 일어서는 동생을 막아 세웠다. 목탁소리와 스님의 염불소리를 더 듣고 싶어서였다. 염불을 하던 스님은 시주가 없자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문 밖으로 사라진다. 어머니의 꾸중이 날아들었다. 한 작가의 동생은 얼른 바가지에 쌀을 담아 스님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길에도, 옆집에도, 또 옆집에도 스님은 없었다. 아래 골목까지 가보았지만 스님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스님은 분명 탁발을 나온 스님이었다. 그런데 그 스님은 한 작가의 집 말고는 어떤 집의 문도 두드리지 않았다. 한 작가의 귓전에는 한 동안 그 목탁소리와 염불소리가 맴돌았다.

천관사 가는 길

늦가을이었다. 한 작가가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운 지도 3년이 되어갔다. 한 작가는 천관사로 가는 길 위에 있었다. 어느 날 만났던, 어느 날 들었던 스님과 염불소리가 한 작가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한 작가는 고요한 곳에서 소설을 쓰고 싶었다. 그리고 염불소리를 들려준 스님을 만나보고 싶었다. 그는 30리 길에 있는 천관사로 향했다. 그는 천관사에 가면 혹시 그 스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다. 천관사로 가는 자드락길가엔 마른 억새들이 숲을 이루고, 차가운 땅에서 불어온 북서풍이 억새를 흔들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 선원총림의 감원(監院)과 고원(庫院)
B5 문화 — 이종송 '숲의 춤' 展
B6 학술 · 문화재 — 마이클 코모교수 초청 해외석학 강연

“부처님은 제 영혼의 스승이죠”



1981년 가족사진. 맨 왼쪽이 한승원이고, 맨 오른쪽이 한승원의 딸인 〈채식주의자〉의 저자 한강이다.



제10회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한 한승원과 그의 가족(좌측 두 번째가 한승원, 맨 오른쪽이 한강).

한승원 작가는?

1939년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 서라벌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교사생활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다가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목선’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그 뒤 소설가와 시인으로 수많은 작품을 펴내며 한국 문학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소설집 〈앞산도 첩첩하고〉 〈안개바다〉 〈미망하는 새〉, 장편소설 〈아제아제바라아제〉 〈화사〉 〈초의〉 〈원효〉 〈보리 닷 되〉 〈사람의 맨발〉, 산문집 〈허무의 바다에 외로운 등불 하나〉 〈강은 이야기하며 흐른다〉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시집 〈열애일기〉 〈사랑은 늘 혼자 깨어있게 하고〉 〈이별 연습하는 시간〉 등이 있다. 현대문학상, 한국문학작가상, 이상문학상, 대한민국문학상, 한국불교문학상, 미국 기리야마 환태평양 도서상, 김동리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한승원 작가’ B1면에서 계속

불교적 삶, 작품 50년 한 길

탁발승의 염불소리로 불연 시작

대학서 도안 스님 만나 불교공부

천관사 가는 길의 불교적 영감

평생 작품의 모티브로 작용

출세작 〈아제아제바라아제〉 비롯

〈초의〉〈원효〉〈사람의 맨발〉 등

50여 년 동안 불교적 작품 발표

지난 3월 〈꽃을 꺾어~〉 출간

억새와 바람이 빚어내는 소리는 뜻이 있는 말(言)처럼 들려왔고, 그 풍경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전생의 기억처럼 한 작가의 깊은 곳을 지나갔다.

천관사는 초라했다. 허허벌판에 서 있는 작은 전각과 맞은 편 요사채가 전부였다. 그 옆으로는 까만 구들장과 타다만 기둥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전쟁의 증거들이었다. 한 작가가 기거할 수 있는 방은 없었다. 만나보고 싶었던 스님도 천관사 스님이 아니었다.

“끝내 그 스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 스님이 혹시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죠. 저도 모르는 불연 속에서 일어난 신이한 경험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관사를 내려오는데 서걱서걱 억새들이 내는 소리와 그 모습들이 왠지 저에겐 흔히들 말하는 ‘뮤즈’처럼 내 마음을 지나갔어요.”

그랬다. 한 작가는 천관사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훗날 그의 작품을 이루는 뼈대와 혈관은 그 때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배우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지워지거나 수정되지 않는, 이미 한승원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그 시절의 인연들로 깨어나기 시작했다. 책에서 배울 수 없고 스승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각자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한 작가는 그 인연에서 만난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것이다. 그 문제와 답은 다름 아닌 부처님 말씀에 모두 있었다.

도반을 만나다… 도안 스님

주머니에 송곳을 넣어두면 언젠가 주머니는 뚫어진다. 한 작가의 주머니 속엔 문학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한 작가를 문예반으로 이끌었던 친구가 한 작가를 찾아왔다. 그 친구는 대학에 진학해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친구는 다시 한 작가를 문학의 울타리로 잡아끌었다. 친구는 한 작가에게 진학을 권했다. 그리고 한 작가는 우여곡절 끝에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한다. 그곳엔 〈무녀도〉, 〈역마〉, 〈등신불〉로 유명한 김동리 선생이 있었다. 훗날 그는 〈원효〉라는 작품으로 김동리문학상을 수상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학교에 들어가 보니 문예창작과에 저보다 한 살 많은 스님이 있었어요.”

서울 성북동 적조암 주지 도안 스님이었다. 한 작가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자신의 자취방을 나와 스님을 찾아갔다. 한 동안 먹고 자고 했다. 이유 없는 불연은 없었다. 부처님 방에서 자고 부처님이 내어준 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처가 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한 작가가 50년 동안 쏟아낸 작품들은 그 시절의 회향이다.

한 작가는 도안 스님과 지내면서부터 경전을 읽기 시작했다. 불교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작가에게 그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공부’라기 보다 그저 비가 내리는 길에서는 비를 맞고, 바람 부는 길에서는 바람을 맞는 일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것이 ‘한승원’의 ‘실존’이었다.

등단, 귀의, 그리고 전법이 된 소설

한 작가는 교사생활과 작품 활동을 병행하다가 1968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목선’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온다. 본격적으로 작가의 길에 들어선 한 작가는 비구니 스님을 소재로 한 장편을 써야겠다는 원을 세웠고, 원력엔 인연이 찾아왔다. 한 작가는 창간된 〈불교사상〉에 소설을 연재하게 되었고 그 소설은 그의 출세작이 된다. 한국문학의 대표적 구도소설인 〈아제아제바라아제〉다.

“〈아제아제~〉는 소설로 쓴 ‘화엄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작가는 ‘불교’로 자신의 소설을 쓰고 시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한승원의 글이라고 생각했다. 〈초의〉·〈원효〉·〈사람의 맨발〉 등 그는 지금까지 수십 권의 쉼 없는 출간을 이어왔다. 그 작품들 전반에 흐르는 한승원의 테마는 처음 들었던 목탁소리와 염불소리, 천관사 가는 길에서 맞았던 억새의 바람소리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그렇게 불교를 소설의 재료로 써오던 한 작가는 어느 순간부터 소설로 불교를 쓰고 있었다.

“저는 작가가 종교와 너무 가깝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교적인 소설이나 시를 쓰지만 그것이 저의 신앙과는 별개여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늘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그냥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불교적인간이더라고요.”

불교로 소설을 쓰던 한 작가는 언제부턴가 자연스러운 ‘불자’가 되어있었다. 다른 불자들처럼 신행으로서 법당을 찾고 삼배를 올리고 불경을 외게 된 한승원은 2014년 석가모니부처님의 삶을 다룬 소설 〈사람의 맨발〉을 발표한다.

“제 영혼의 스승인 석가모니부처님의 삶을 소설로 써보는 것이 오랜 원이었죠. 길 위에서 태어나 평생 맨발로 길을 걸으며 길에서 열반하신 부처님의 맨발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맨발 속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생각과 실천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

“내가 하늘을 보는 까닭은/ 말을 하긴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 / 말 / 하나가 거기 있어서입니다.” 지난 3월 출간한 산문집 〈꽃을 꺾어 집으로 돌아오다〉의 ‘작가의 말’ 중 일부다.

1996년, 고향으로 돌아간 한 작가는 지금까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태어난 자리에서 ‘한승원’을 회향하고 있다. 그는 어느덧 삶을 회향해야하는 시간을 맞고 있다. 오랫동안 사유와 성찰의 습을 익힌 한 작가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이야기 한다. 이번 출간이 그것의 일 절로 읽힌다.

작가의 성실함과 치열함이 꼿꼿하게 살아있는 이번 책은 ‘아버지의 의지와 상반되는 쪽으로 황소처럼 나아가던 아들’의 나날에서 자꾸만 ‘슬픈 눈이 되어버리는 늙은 아비’의 시간까지 작가가 통과해온 세월이 오롯이 담겨있다. 책의 제목처럼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꽃을 꺾어 들고. 그 ‘꽃’은 아마도 ‘한승원’이 아닐까. 바다를 바라보며 ‘말’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한승원’이 아닐까.

그의 이름 앞에는 요즘 또 하나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작가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이다. 딸의 유명세로 붙여진 그 이름이 그는 좋다고 했다. 딸 한강의 작품에 대해 “흉내 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는 부모를 넘어선 자식을 보는 것은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라고 했다.

작가 한승원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 말을 언제 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말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때가 아닐까. 우리도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닐까.



감원은 총림 일 관리, 고원은 장소적 본부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⑦ 선원총림의 감원(監院)과 고원(庫院)


일본 영평사 고원(庫院) 전경. 고원은 주방과 식자재 창고, 종무소 기능을 하는 곳이다. 고원에는 위타신이 모셔져 있다.

〈감원(監院)〉

감원(監院)은 오늘날 총무와 같은 소임이다. 당대(唐代)에는 '원주(院主)' '원재(院宰)' '사주(寺主)'라고 불렀고, 당말 오대(850-960)와 북송시대(960-1126)에는 '감원'이라고 불렀으며, 남송(1127-1279)·원대에는 '도사(都寺)'라고 불렀고, 명대에는 다시 감원, 또는 '감사(監寺)'라고 불렀다.

감원은 동서(東序) 4지사(감원·유나·전좌·직세) 가운데 서열 제1위이다. 남송시대에는 감원 소임이 도사·감사·부사로 3분되었으나 여전히 총 감독권은 도사(감원의 후신)가 가지고 있었다. 감원은 서무·행정·재정·살림 등 사원 관리 일체를 총괄·감독하는 소임으로, 승당(僧堂, 선당)의 책임자인 수좌(首座)와 함께 선원총림의 양대 요직이다.

6-7 년 전 오대산 월정사 스님들과 함께 일본 조동종 양대 본산 가운데 하나인 영평사(永平寺, 에이헤이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영평사는 도겐(道元, 1200~1253)이 24세-28세까지 영파 천동사로 가서 천동여정으로부터 조동선을 배우고 돌아와서 세운 도량으로, 중국 전통 선종사원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영평사는 후쿠이(福井)의 깊은 산악에 위치하고 있는데, 4월 10일인데도 잔설(殘雪)이 있었고, 상큼한 선기(禪機)가 육근(六根)과 오음(五陰)으로 물든 육신을 청량하게 했다. 미리 연락을 취한 덕에 답사 후 귀빈실에서 다과를 했는데, 외빈을 맞이하는 대표 스님의 직함이 감원이었다. 영평사에서 감원은 관수(貫首, 방장) 다음 직책인 것을 보면 고풍이 잘 전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감원은 수좌의 직무 영역인 승당(僧堂, 선당)과 관련된 일을 제외하고는 총림의 모든 일을 총괄·감독한다. 감원의 임무에 대하여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감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선원총림의 모든 일을 총괄한다. 관청에 나아가는 일, 관리나 시주들이 찾아오면 영접하는 일, 길흉 등 경조사, 그리고 재정의 출입과 회계, 금전과 곡식의 유무(有無), 수입과 지출 등을 모두 담당한다."

또 "감원은 어진 이와 대중을 받들며, 상하를 화목하게 하고 대중이 늘 환희심을 갖게 해야 한다. 권세를 빙자하여 대중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또 그 책무에 대해서도 "고사(庫司, 창고)에 재용(財用)이 부족하면 스스로 힘을 다하여 대책을 강구하되, 주지(방장)에게 알려서 마음을 쓰게 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그 실정을 대중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감원과 관련한 유명한 선문답이다. 법안문익(885~958)이 주지로 있던 총림에서 감원 소임을 맡고 있던 현칙(玄則 監院)과 법안 사이에 있었던 문답 내용이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납자 지도 시스템 가운데에는 '입실' 혹은 '독참'이라고 하여, 개별지도 방식이 있었다. 수행승과 방장을 독대하여 자신의 공부를 점검, 지도받는 것으로 5일에 한번 씩 있었다.

그런데 당시 감원 소임을 맡고 있는 현칙은 단 한 번도 입실 독참에 오지 않는 것이었다. 제도를 위반한 것인데, 승당의 일반 납자도 아니고 감원이 독참을 하지 않는다고 방장이 뭐라고 하기도 곤란했다. 그래서 법안문익은 참다못해 하루는 그를 불러서 물었다.

"(현)칙감원(玄則監院)! 그대는 어째서 입실(入室) 독참(獨參)하러 오지 않는가?" 현칙이 말했다. "화상! 저는 이미 청림화상(靑林. 靑峰이라야 맞음) 처소에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입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법안이 말했다. "아, 그런가? 어디 한번 말해 보게." "제가 청림 화상께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었고, 청림화상이 "병정동자 내구화(丙丁童子 來求火)"라고 답했는데,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법안 화상이 말했다.

"좋은 법문이네. 그런데 혹 그대가 잘못 알까 걱정이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볼 수 있겠소"

"병정(丙丁)은 (목·화·토·금·수 5행 가운데) 불(火)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불이 불을 찾고 있다(以火求火)'는 말로서, 곧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인데 다시 부처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법안 선사가 말했다. "칙감원, 그대는 과연 잘못 알고 있었네."

현칙은 매우 화가 났다.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감원 소임을 사직하고 법안의 문하를 떠나가 버렸다.

법안 화상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만일 현칙이 다시 돌아오면 구할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네."

감원·오늘날 총무 소임
선원총림의 모든 일 총괄
고원은 선종사원의 본부

그런데 현칙이 가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 법안 선사의 문하에는 무려 5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납자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나를 속일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발길을 돌려 법안 화상을 찾아갔다.

법안 화상이 말했다. "다시 내게 물어보게. 그러면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해 주겠네." "화상,무엇이 부처입니까" 법안 선사가 말했다. "병정동자 내구화(丙丁童子 來求火, 불이 불을 찾고 있다." 현칙은 언하에 대오했다.

현칙은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관념적 지식으로만 이해했을 뿐, 정말 자기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법안 선사의 일갈(一喝)에 비로소 진정으로 자기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똑같은 말도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에게는 매우 다르게 들린다.

〈고원(庫院)〉

고원(庫院)의 어의(語義)는 '창고'라는 뜻으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식자재 창고 기능, 주방 기능, 사무실 기능.

고원은 칠당(七堂)의 하나로 불전(대웅전) 좌측에 있고 건물도 매우 크다. 주방(廚房)과 식자재 창고, 그리고 총림의 모든 살림살이와 종무소도 고원에 집결되어 있고, 감원·도사·감사·부사·전좌의 거처도 고원에 있다. 따라서 고원은 선종사원의 본부라고 할 수 있다.

고원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소임자는 감원이다. 물론 감원은 선원총림 전체를 관장한다. 그리고 주방 책임자(주방장)는 전좌(典座)이다. 이들은 모두 6지사인데 그 가운데 감원이 수장이다. 전좌 밑에는 밥 짓는 소임으로서 공두(供頭)·공양주(供養主)가 있고, 또 반찬 만드는 소임인 채공(菜供) 등이 있다.

고원에 대한 이칭은 매우 많다. 고리(庫裏)·고당(庫堂)·고주(庫廚)·향적주(香積廚)·향적당(香積堂)·향적실(香積室) 등. 항주 영은사 가람배치도에는 '고당(庫堂)'과 '향적주(香積廚)'를 동시에 써 놓았다.

'향적주'라는 말은 〈유마경〉 향적품에 나오는 말로서, '향기가 가득한 주방'이라는 정도의 뜻이 된다. 또 향적품에는 '향반(香飯)'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향기 가득한 음식'이라는 뜻이다. 이런 음식은 일반에서는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선정사원에서만 가능한 음식이다. 명대(明代)에는 고원 옆에 재당(齋堂, 식당)이 신설되어 거기서 공양을 했지만, 당송시대에는 승당이나 중료(衆寮, 대중방)에서 발우공양을 했다.

여기서 〈유마경〉 향적품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볼까 한다.

유마 거사의 처소에는 곧 문수보살과 유마 거사 사이에 벌어질 법전(法戰)을 방취하기 위하여 많은 대중들이 운집(雲集)했다. 가히 입추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전은 막상막하의 공방전으로 인하여 곧 정오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리불의 걱정은 태산 같았다.

"정오가 다 되어 가는데 이 많은 대중들이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꼬"

그 때 유마 거사는 법안으로 사리불의 걱정을 알아채고 그에게 말했다.

"지금 청법(聽法) 중인데 먹을 것을 걱정하시다니요."

이렇게 핀잔을 주고 나서 유마거사는 신통력으로 향적국(香積國)을 보여 주었다. 향적국에는 향기 나는 맛있는 음식[香飯]이 가득히 쌓여 있었다.-앞의 향반(香飯)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 말이다.-

사리불은 깜짝 놀라서 그만 토끼 눈이 되었다. 유마 거사는 화보살(化菩薩, 변화보살)을 향적불(香積佛, 향적국의 主佛)께 보내어 일발(一鉢)의 공양을 얻어 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그 일발(一鉢)의 공양을 신통력으로 수만 그릇으로 변화시켜서[變食], 그 자리에 운집한 대중들이 공양하도록 했다. 사리불은 유마 거사의 신통력에 또 한 번 토끼 눈이 되었다.

'향적주(香積廚)'란 '향기 나는 음식이 가득 쌓여 있는 주방'이라는 뜻으로 조선 후기의 명필이자, 불교와 차(茶)문화의 대가였던 추사(秋史 金正喜, 1786~1856)의 시에도 나오는 말이다. 추사가 활동하던 당시 쌍계사 육조탑 아래에 차 만드는 솜씨가 남달리 뛰어났던 만허(晩虛) 스님이 있었다. 5월 어느 날, 만허 스님이 추사 선생에게 정성스럽게 만든 우전차를 보내 드리자 추사 선생은 그 정성과 차 맛에 감동되어 "향적주에 있는 음식 가운데 아마 이보다 더 묘미(妙味) 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香積廚中, 恐無此無上妙味)."라고 답서를 써 보냈다. '묘미(妙味) 가운데서도 스님이 보내준 차(茶)가 최고'라고 극찬한 추사의 이런 감사의 편지를 받고 아마도 만허스님은 하루 종일 흐뭇했을 것이다.

선종사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아름답다. 그 가운데서도 주방을 '향적주'라고 하고 그 음식(공양)을 '향반(香飯)' '향적반(香積飯)'이라고 한 것은 특필할 만하다. 음식을 대할 때 항상 '향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음식은 최고의 맛,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나라 사찰의 고원, 즉 주방(부엌)에서는 조왕대신을 모신다. 그러나 중국 사찰에서는 위타천신상(像)을 모신다. 당나라 때 위타천신이 도선율사에게 귀의한 이후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는 율종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당 중기 백장 선사에 의하여 선원이 독립하기 전에는 선승들이 율종사원에 의탁해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청나라 후기의 문인(文人)으로 소주(蘇州)에 살았던 심복(沈復)의 〈부생육기(浮生六記)〉에는 "원각사에 갔더니 가운데는 불전이 있고 위에는 방장이 있으며, 그리고 왼쪽에는 주방인 향적주가 있었다."는 대목이 나온다.

백양사, 금산사, 계룡산 동학사 등 우리나라 사찰에서도 주방의 명칭을 향적당·향적실이라고 붙인 곳이 있다. 또 공양할 때 외우는 게송이 오관게이기 때문에 오관료(五觀寮)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런 명칭과 비교해서 '공양간'이라는 명칭은 그다지 향기 나는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포교열전,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 조계종 포교사단 엮음/모과나무 펴냄/1만 2천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41명 포교사들의 삶과 수행, 전법 이야기를 엮어 〈포교열전-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를 펴냈다. 포교사는 '포교는 수행이요, 수행이 포교이다' 라는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포교와 전법의 현장에서 겪는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유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또한 포교사들은 이러한 포교활동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얻었다. 자신들이 얻은 기쁨과 행복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희망을 준다. 개인들이 일상생활서 겪는 어려움과 번뇌를 핑계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스스로의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을 전한다.

김주일 기자

"죽으려고 들어간 선방이 오히려 나를 살렸다"



선원일기

지범 스님 지음/사유수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기 2554년 경인년 대승사 동안거 기념촬영 모습. 사진 맨 앞줄 오른쪽서 두번째가 저자인 지범 스님.

40년 제방의 선원 풍경 가감없이 한권에 담아
저자가 만난 한국불교 대표 60人 선지식 인연담도
"중생 위한 자비심 없으면 수행도 한낱 헛된 행위"

"한국불교가 침체되고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하지만 화두 하나에 천착해 치열한 구도열정을 펼치는 수행자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의 치열한 구도역정을 목격하면 아마도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딱 그칠 것입니다. 참 수행자들이 전국 제방선원에 많아요. 40년 선방(禪房)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수행자들의 숨소리까지 고스란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진 스님을 은사로 1979년 범어사서 입산해 출가 이후 1980년 전북 부안 월명암 동안거를 시작으로 봉암사 태고선원, 하동 쌍계사, 구산선문 동리산 태안사 선원, 해인사 선열당 선원, 설악산 백담사, 화엄사 선등선원 등 전국 이름난 선원에 두루 방부를 들인 지범 스님〈사진 위〉.

이번에 펴낸 〈선원일기〉는 입산 출가부터 현재까지 40여년 간 수좌 지범 스님(상도동 보문사 주지)이 제방선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수행담과 인연 있는 선승들이 몸을 던져 좌복서 치열히 정진한 삶의 현장을 오롯히 기록한 책이다. 저자 지범 스님은 전국 선원과 처처에서 신심과 원력으로 묵묵히 정진하는 수좌들의 모습을 기록함으로써 이 땅에 다시 간화선이 꽃피고 혼탁한 세상의 빛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범 스님은 "돌이켜보면 나의 20대 때 공부는 신심과 열정은 있었어도 자세하고 섬세하지 못해 늘 들뜨고 자리를 못 잡았다. 방황도 많이 했고, 객기도 부리면서 때론 손가락질도 받았다"며 "부산서 과로로 쓰러진 후 고운사 100일 용맹정진서 공부의 기틀을 잡았고, 대자암 무문관과 진귀암 무문관서 낮에는 좌복서 애를 쓰고 밤에는 전강 노사의 법문을 들으면서 화두를 점검하는 수좌로서 호시절 이었다"고 회고했다.

지범 스님은 출가 이후 모친의 당부를 항상 가슴에 새기며 수좌로서 정진했다. 모친은 "꼭 서산대사 같은 선지식이 돼 달라"고 지범 스님의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했다.

깨달음을 위해 쓰러지고 넘어질때마다 좌복서 승부를 걸면서 몸을 던진 지범 스님은 1993년 여름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던진다. "계룡산 대자암 무문관이 개원됐다고 제방에 알려지니 가슴이 뛰고 꼭 살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벌써 선원에 나온지 15년이 넘었고, 세속 나이도 40세가 가까워졌다. 이렇게 살다가는 공부 시늉만 하고 죽는 것이 아닌가 급한 생각이 들었다. 역대 조사들은 20대에 일찍이 이 일을 마쳤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인가 하는 자책이 들어 괴로웠다"고 당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던 처절한 심경을 책 속에서 고백한다.

지범 스님은 대자암 무문관서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이 무문관서 죽으리라' 고 굳게 다짐한 뒤 입실한다. 밤늦게 고향의 아버지 묘소에 가서 이별을 고했고, 어머니 집 앞에서 삼배로 인사 드릴 정도로 그 어느때보다 각오가 남달랐다.

지범 스님은 책 속에서 당시의 무문관 생활을 이렇게 묘사한다. "먼저 면도기로 눈썹을 밀고 좌복에 앉아 화두와 씨름했다. 그러나 생각같이 공부가 순일하지 못하고 혼침과 망상으로 두 달 가량을 애태우면서 보냈다. 엉덩이가 헐고 헐어 진물이 나고 진물과 피가 좌복에 붙어 몸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코피가 멈추는 날이 없었고, 이러다간 못 견딜 것 같아 가끔씩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길고 긴 시간을 보냈다"고 토로한다.

몸이 쇠약해지고 지쳐 포기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그 문틈 사이로 짐을 나르는 개미들을 우연히 보면서 지범 스님은 깨닫는다.

"개미들이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기어코 석양 늦게 짐 옮기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세상 미물들도 이렇게 해내는데 장부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나하며 다시 화두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으나, 중생을 위한 자비심이 크게 부족했음을 느끼고 이 날부터 매일 천배씩 하면서 화두를 들었지요.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화두가 들리기 시작했고, 좌복에 앉아도 몸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화두에 힘이 붙어 몇시간을 금방 보내니 환희심이 절로 났지요."

그해 추석날 아침, 문없는 문이 열리고 죽으러 간 무문관이 오히려 지범 스님을 살린 것이다. 스님은 책 속에서 대자암 무문관의 기적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책은 크게 4부로 나눠져 있다. 제 1부 〈선원의 추억〉은 40년 수좌가 출가 초기 정진한 추억의 선원서부터 최근 수행한 선원에 대한 솔직하면서도 담백한 기록이다. 백련사 각화사 월명암 쌍계사 칠불사 동화사 태안사 봉암사 해인사 망월암 대자암 진귀암 고운사 대흥사 등 이 땅의 대표적인 선원의 풍경과 그 곳에서 수행하는 수좌들의 치열하면서도 때로는 낭만적인 모습을 담았다.

제 2부 〈선방생활〉에서는 출가 인연과 속가 인연을 간단하게 밝히고, 선원에서 해제와 결재를 맞는 다짐, 용상방을 짜고 죽비를 내리는 결제해제 모습 등 선원의 일상을 담았다. 나아가 지대방, 객실, 대중공양, 해제비, 객스님, 토굴 등 선객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짚어보고 현재 수행문화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화두로 던진다.

제 3부 〈선원을 지켜온 수좌들〉은 저자가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면서 만난 올곧은 수행자들에 대한 정직한 기록이다. 서옹스님 서암스님 성철스님 월하스님 무여스님 고산스님 오현스님 적명스님 능엄스님 명정스님 통광스님 봉철스님 월용스님 인각스님 무문스님 법연스님 종안스님 고우스님 보선스님 등 평생 수행과 중생제도를 해온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지식들과의 인연담과 덕화를 기록했다.

제 4부 〈선원은 살아 있다〉는 한국불교의 위기와 출가자의 수행풍토에 대한 우려가 공공연하게 회자되는 있는 요즘 전국 선원과 도처에서 묵묵히 정진과 포교에 힘쓰는 수좌들을 소개한다. 특히 화가 강행복, 황남채의 작품을 표지와 본문에 실어 선원의 정취와 선객의 기개를 잘 드러낸다.

책속의 밑줄 긋기

▲그 해 여름은 무척 덥고 뜨거웠다. 하지만 몸에서는 늘 시원한 바람이 불고 화두가 순일하여 앉아 있는 것이 가볍고 시간가는 줄 몰랐다. 대중의 정진 열기가 뜨거웠기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거칠고 도전적이던 성정도 많이 부드러워 졌다. 칠불선원은 나를 사람으로 만들고 수행자로서 거듭나게 했다.

▲이번에 끝내지 않으면 무문관서 죽으리라 수없이 다짐하면서 밤늦게 고향의 아버님 묘소에 가서 이별을 고하고 어머님 집 앞에서 삼배로 인사드렸다. 대자암으로 들어가는 길, 봄날의 꽃들도 나무들도 모두 다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무문관 문이 닫히고 드디어 결재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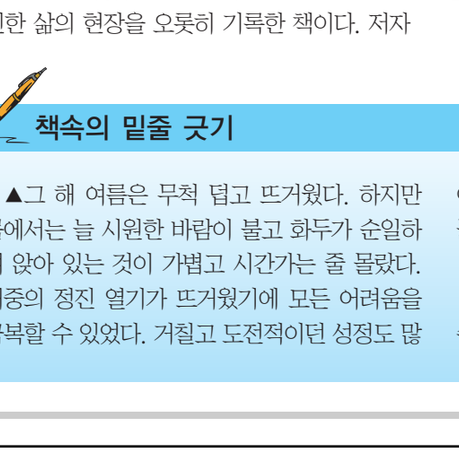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으레 좌복서 승부를 걸면서 몸을 던졌다. 그 때는 간절했기 때문에 화두가 들렸고, 간절했기 때문에 하심이 되고 불보살의 가피가 있지 않았나 싶다. 이 공부는 간절해야 하고 하심하지 않으면 이어갈 수 없다.

▲선방에서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화두다. 화두는 쓰러져가는 나를 살렸고, 방황하는 나를 살렸고, 죽고 싶은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그 화두가 필경에는 생사가 없는 부처님을 출현시킨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 · 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 강의장소 : 1호선 종로 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바람 부는 숲에서 '마음'을 보다

이종송 '숲의 춤(Dance of the Forest)' 展
한벽원미술관 4월 5일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산수화·조형·영상 등 50여 점
느낌·사실성 모두 충실
흙벽화와 프레스코 기법 점목
나무·숲 움직임 춤으로 표현


이종송 作 'Dance of the Forest' 91×95, 2018

한국 산수화의 지평을 넓혀온 이종송의 전시가 한벽원미술관에서 4월 5일까지 열린다. 이 작가는 전통 흙벽화와 서구의 프레스코 기법을 30여 년 동안 연구하여 자신의 현대적 기법으로 표현해왔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은 이전 작업과의 연결성이 뚜렷한 작품들로, 드로잉과 조형물, 판화, 영상물, 새로 작업한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종승은 1990년대 초부터 '움직이는 산'을 테마로 한 산수화의 창작에 매진해왔다. 1990년대 중반까지 그의 작품은 지금의 그림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추상성이 매우 강한 그림이었다.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운 기하학적 형태, 먹의 농담과 번짐의 활용, 입체적인 나무판을 이용한 부조적인 화면 등은 당시 그의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그의 작업은 보다 자연주의적으로 변모했다. 실제 풍경에서 받은 감흥을 편안한 시각과 필치로 그리기 시작했고, 이를 특유의 흙벽화 기법에 접목시켰다. 이후 그의 작품은 자신의 마음 한 부분을 풀어낸 듯이 편안해졌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담기 시작했다. 온 우주의 이치와 원리를 함축하고 있는 자연을 끊임없이 접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이를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정형화되고 박제화 되지 않은, 살아 숨쉬는 또 다른 자연을 재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의 출품작 역시 이전 작업과의 연결성이 뚜렷하다. 주변의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작가 특유의 긍정적인 시각으로 질박하면서도 화사한 벽화 기법으로 그려내고 있다. 자연에서 받은 감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면서도 시각적 사실성만을 지향하지 않는 이 작가는 겸재 정선의 그림과 닮아있다. 정선 역시 실제 경치를 다루되 그 경치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루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느낀 바에 따라 강조할 것은 강조하고, 생략할 것들은 생략했으며, 변형시켜야 할 것들은 변형을 시도했다. 이 역시 이종송의 그림과 궤를 같이 한다. 그 느낌을 최대한 살리되 실제 경치를 그린다기 보다는 경치로부터 받은 감흥을 산과 물, 나무의 모습을 빌어 표현하는 것이다.

"난 느낌이 없으면 사생하지 않습니다. 느낌이 나로 하여금 스케치북을 펼치게 만들 뿐이죠.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현장에서 사생할 때입니다."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 작가이지만 그는 자연의 원래 형태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한 생각은 그의 그림에 그대로 투영되는데, 그의 작품이 꼼꼼한 세필로 그린 풍경화나 천연색의 사진보다 더 자연답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이번 신작에서는 춤추는 자연의 모습이 새롭게 등장한다. 과거 그의 작품은 '움직이는 산', 즉 순환하는 자연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작가의 시선과 감흥이 응축된 것이었다. 이번 그림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의 춤이 테마로 등장한다. 작가는 바람 부는 숲의 움직임에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작가는 나무의 움직임과 숲의 움직임을 함께 표현했다. 산이 숲이 되고 숲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사람이 되는 생명의 순환 고리를 보여준다. 화면 속에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듯한 나무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흥겹게 춤을 추는 나무는 나무가 아닌 사람으로도 보인다. 시각적으로 남성, 여성의 실루엣이 느껴지기도 한다. 작가는 어느 날 현장에서 자연을 관찰하고 사생하던 중, 묘하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오랜 시간 자연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덕분에 상당 부분 동화가 된 듯하다. 실제로 그의 곁으로 야생동물들이 별 두려움 없이 다가오기도 했다고 한다. 일종의 '자연과의 합일'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춤추는 나무, 춤추는 자연의 모습은 바로 작가의 이러한 당시의 감흥의 표현이다. 이제 자연에서 받은 느낌을 그리는 것을 넘어서 자연과 하나 된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춤추는 나무의 모습은 자연의 모습이기도 하고, 작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종송 화백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회화과에 재직 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초·중·고 미술 교과서에 그의 작품이 수록되어있다. 40여 회의 국내외 개인전과 200여 회의 국내외 단체전에 출품했다.

동산불교대학 불화전

'미래의 빛 붓다' 展 4월 4일~10일 경인미술관


문미영 作 '책가도'.

동산불교대학(학장 법산)은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제6회 불교학과 불화전시회 '미래의 빛 붓다' 전을 인사동 경인미술관 1관에서 개최한다.

동산불교대학의 불교미술학과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서 문화부 장관상 수상을 비롯하여, 불미전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명실공히 실질적인 불교미술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미래의 빛 붓다'라는 제목으로 19명이 불심으로 그린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4m가 넘는 대형 괘불과 불미전 수상 작품들도 함께 전시된다.(문의-733-4448)

한편 동산불교대학에서는 불교미술학과 3년 과정 외 15주 과정의 문화강좌 '궁중민화반'을 개설했다. 기초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단계별(120시간/년) 지도하며 수료증을 발급한다. 내용은 ▲초급반/ 연화도, 모란도, 수복글씨 등 ▲중급반/ 어해도, 송학도, 책가도, 봉황도, 십장생도 ▲고급반/ 일월곤륜도, 산수도, 운룡도, 십장생도이다. 대상은 민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며, 4월 6일(금) 개강한다. (문의/ (02)732-1206) 박재완 기자

카메라 앵글에 담은 '경주풍경'

4월 15일까지 엑스포문화센터


한명래 作 '칠불암과 행자승'

(재)문화엑스포는 경주엑스포공원 2018 시즌오픈을 맞이해 '경주 사진작가들의 경주풍경전'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엑스포문화센터 1층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경주 사진작가협회 및 예당사진동우회 회원 등 경주지역 사진작가 25명이 참여해 첨성대, 불국사, 반월성 등 경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과 명소들을 찍은 풍경사진과 함께 화엄사, 주산지, 안면도, 회룡포 등 전국 명소의 풍경사진을 더해 총 5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재)문화엑스포 이두환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이번 전시는 엑스포공원이 지역 작가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외지 관광객들에게 경주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시의 의미를 밝혔다. 박재완 기자

봉축음악회 '스님이 부르는 부처의 노래'

4월 22일 오후 4시
국립중앙극장 KB하늘극장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은 불기 2562(201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음악회 '스님이 부르는 부처의 노래'를 4월 22일 오후 4시 국립중앙극장 KB하늘극장에서 개최한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음악원이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는 음성포교 일선에서 전법에 진력하고 있는 스님들이 꾸미는 음악회로 불교음악원의 5번째 기획공연이다.

1부는 불교의식음악을 주제로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스님과 어산작법보존회가 출연하여 범패와 작법을 시연한다.

2부는 시인이며 복지로 포교하고 노래하는 원경 스님의 무대로 시작하여 실험적인 문화포교를 지속해온 자명 스님, 수화포교에 앞장서온 해성 스님, 30년 이상 찬불가로 음성포교에 나서고 있는 정율 스님, 노래를 통해 대중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도신 스님이 출연하여 찬불가를 선보인다.

박범훈 원장은 "불교음악은 스님의 음악이며 불자들의 음악이다. 지금까지 불교음악은 스님이 중심이 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원효 스님의 '무애가', 균여 스님의 '보현십원가', 진감 스님의 '범패', 백용성 스님의 '찬불가운동' 등 불교음악의 역사는 스님들이 만들어낸 것이다"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정운문 스님을 비롯하여 많은 스님들이 찬불가를 부르며 교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는 이러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고 공연의 취지를 밝혔다. 김회경 불교음악원 음악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연주는 봉은국악합주단, 합창은 불교음악원 혼성합창단과 부다스합창단이 공연한다. 문의/(02)3218-4866.

박재완 기자



세계불교도의 정법수호연대 발족
한국불교의 380여 종단 최고 고승 및 지도자
대종사. 종사들의 법석

한국불교 지도자들 중에 종단을 불문하고 대종사. 종사 품수를 받은 모든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불교 최고 지도자들의 법석을 통해 서로 상호간에 상견례와 대의를 위해 한국 대종사. 종사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구촌 중생교화, 교육, 중생구제, 인간방생을 통한 세계가 하나 됨을 실천하며, 세계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정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정각회 국회의원님들과 미얀마 대사님을 모시는 뜻 깊은 법석에 큰스님께서 자리를 함께하시어 지구촌을 밝히는 빛이 되고 중생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옵길 두손 모아 합장하며 청하옵니다.

명예총재 : 금산 큰스님. 총재 : 목탁 대승정
재가자국제교류불자회 국제붓다평화봉사단
준비위원 : 혜승. 혜선. 성각. 정오. 청운. 심오. 법산. 상운. 대공. 법운. 송운. 송몽. 묵하
봉행위원장 혜정 대종사
대 회 장 인경 대종사

■ 일 시 : 2018년 4월 24일 10시 30분 정각 ■ 장 소 : 용산 백범기념관

주최 : 한국불교정법수호연대. 한국불교 대종사, 종사 연합협의회 | 후원 : 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문의 : ☎ 02)733-5665. 010-3618-6061 / 팩스 02)733-5615

※ 자리 배석 관계로 미리 참석여부를 문자 및 전화로 신청바랍니다.

"신라 도래인, 日불교 형성에 큰 영향력"

마이클 코모 교수, 3월 30일 동국대 초정 강연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라 도래인들이 일본불교 형성과 쇼토쿠(聖德) 태자 영웅화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종교학 전문가인 마이클 코모(Michael Como, 사진)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는 3월 30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이 개최한 제30회 해외석학 초청 강연서 이 같이 주장했다.

'쇼토쿠 태자의 불교 의식에 보이는 신라의 영향과 일본불교의 뿌리'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코모 교수는 고대 일본에서의 불교경전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초기의 일본 불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쇼토쿠 태자의 역할과 시텐노지(四天王寺) 창건, 그리고 신라 도래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를 풀었다.

일반적으로 쇼토쿠 태자는 호류지와 연계된 연구들이 주류이지만, 나니와(難波,현 오사카)의 시텐노지를 코모 교수는 주목했다. 그 이유에 대해 코모 교수는 "수 많은 백제계 씨족과 관련된 호류지와 달리 시텐노지는 신라계 도래인 부족과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이들 관계들이 일본불교의 도래와 전설의 형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서기〉에는 '야마토 조정이 불상을 숭배했던 소가 씨 일족을 지지했고, 이와 대립한 모노노베 씨 일족은 결국 전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쇼토쿠 태자는 소가 씨를 대신해 사천왕에 기도하며 친불교 측의 승리를 빌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코모 교수는 이 같은 기록이 '불사창건설화', 즉 연기 설화라고 규정했다. 쇼토쿠 태자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연기설화의 사찰이 시텐노지라는 것이다.



쇼토쿠 태자 관련 설화들 분석

'일본서기' 제작에 신라계 참여

韓日 사천왕사 연기설화 유사해

신라 세력 높아지자 사절 보내고

日사절들 사천왕사 설화 배워와

쇼토쿠 태자 '영웅만들기' 일조

이에 대해 코모 교수는 "신라 도래인들의 집단들이 나니와의 시텐노지와 밀접히 연결돼 있었을 것"이라며 "〈속일본기〉에도 시텐노지와 연관된 씨족으로 신라계인 키시·히타·마야케 무라지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시텐노지에서 연례 행사로 춤을 공양했다'고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신라계는 백제계와는 달리 내전을 거쳐 집권한 텐무천황을 지지했고, 〈일본서기〉 편찬에도 관여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해 갔다. 7세기 국제관계에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등 세력이 강화되고 있던 부분도 신라계 도래인들이 일본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던 요인이 됐다.

코모 교수에 따르면 신라가 당에 승리한 직후 야마토 조정은 사절단을 신라로 보내며, 이를 이끈 것이 신라계 일족들이다. 이들은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이 경주 사천왕사에 기인한다고 봤고, 관련된 연기설화를 배워가게 된다. 실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천왕사의 연기설화는 '재앙 예견- 풀로 사천왕 이미지 구현- 승리시 사찰 창건 기원- 사찰 창건'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서 코모 교수는 "사천왕사의 전설이 일본 불교 전통에서 연기설화에 기초가 됐다"면서 "야마토로 돌아온 신라계들은 일본불교 연기설화를 수정해 쇼토쿠 태자를 전투에서 승리하고 호국 사원인 시텐노지를 창건한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쇼토쿠 태자에 관한 설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역사적 인물로서 쇼토쿠 태자는 금방 잊혀졌지만, 태자의 전설은 1000년 넘게 전승되며 일본불교 발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신흥사 극락보전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27일 지정예고… "역사·문화적 의미 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의 극락보전〈사진〉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속초에 소재한 '신흥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외설악에 자리한 신흥사는652년(신라 진덕여왕 6년) 자장율사(慈藏律師)가 향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이후 1642년(인조 20년) 화재로 사라진 사찰을 1644년(인조 22년) 원래 터에서 아래로 10리 떨어진 곳에 신흥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진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설악산신흥사대법당중창기(1749)〉, 〈신흥사극락전중수기(1770)〉 등의 자료를 통해 1749년(영조 25년)부터 1821년(순조 21년)까지 4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공사 기록 등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문헌 기록을 갖고 있어 건물의 역사가 잘 남아있는 편이다.

극락보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多包)식 팔작지붕 건물로, 세부의장과 공포형식이 우수하고 기단과 계단, 창호 등 높은 품격의 요소들도 잘 보존돼 있다.

특히, 기단의 모란, 사자 문양과 계단 난간 소맷돌의 삼태극(원을 3개로 분화한 태극 형태), 귀면(鬼面), 용두문양 조각들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사례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신흥사 극락보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고성 옥천사 나한상 조성시기는 1707년"

김요정 충북대 연구원

옥천사 학술대회서 주장

4구 나한상 연륜연대분석

연대 비교통해 시기 확인

"벌채 후 바로 존상 조성"

'연륜연대분석'이라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경남 고성 옥천사 나한상에 대한 조성연대가 1707년으로 밝혀졌다.

김요정 충북대 목재연륜소재은행 책임연구원은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고성 연화산 옥천사의 불교문화재' 학술대회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 연구원은 옥천사 목조 나한상 4구에 대한 연륜연대분석을 시행해 존상의 수종과 제작시기를 분석했다.

조사연구는 나한상 몸체에서 자연탈락된 부분서 시료를 채취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목조나한상의 수종은 소나무임이 확인됐다.

나무의 나이테 패턴을 관찰해 문화재 등의 연륜연대를 측정하는 '연륜연대분석법'을 통해서는 조성시기가 확인됐다.

김 연구원은 "연륜연대분석을 위해서는 대상 유물에 포함된 연륜의 수가 50개 이상돼야 한다"면서 "4구의 나한상에서 측정가능한 연륜의 수는 49·57·59·68개였고, 연륜패턴은 모두 동시대로 일치해 72년간의 나한상연륜연대기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3월 24일 열린 옥천사 학술대회에서 김요정 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옥천사 나한연륜연대기는 표준연륜연대기와 비교를 통해 마지막 연륜에 1706년이 부여됐다. 마지막 연륜에는 수피부에 해당하며 만재가 형성됐다"면서 "이에 따라 1706년 늦가을에서 1707년 초봄 사이에 벌채가 이뤄졌고, 나한상 제작 시기는 1707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불상 제작을 위해 목재 건조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에 대해서는 "완주 대원사 명부전 불상과 고흥 능가사 응진전 불상의 복장연대 및 연륜연대 비교연구에서도 벌채 후 바로 제작됐음이 확인된 바 있다. 옥천사 나한상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고성 옥천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구 길상사 주지 도해 스님의 '〈옥천사사적기〉 번역과 의미'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고성 옥천사 대웅전 석조불상 연구' △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장의 '고성 옥천사의 지형과 인문학적 해석' △김미경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의 '고성 옥천사 소장 1737년작 지장보살도 검토' 등이 각각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내소사 아미타삼존불 등 전북도문화재 지정돼

부안 내소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상〈사진〉 등 4건의 불교 성보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라북도는 3월 28일 전라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보는 부안 내소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제 255호), 완주 수왕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제256호), 정읍 무량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257호),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과 건칠관음보살입상(제258호)의 4건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이제 전북 몫을 당당히 찾고 자존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우리 고장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소중한 성보문화재들의 전북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불교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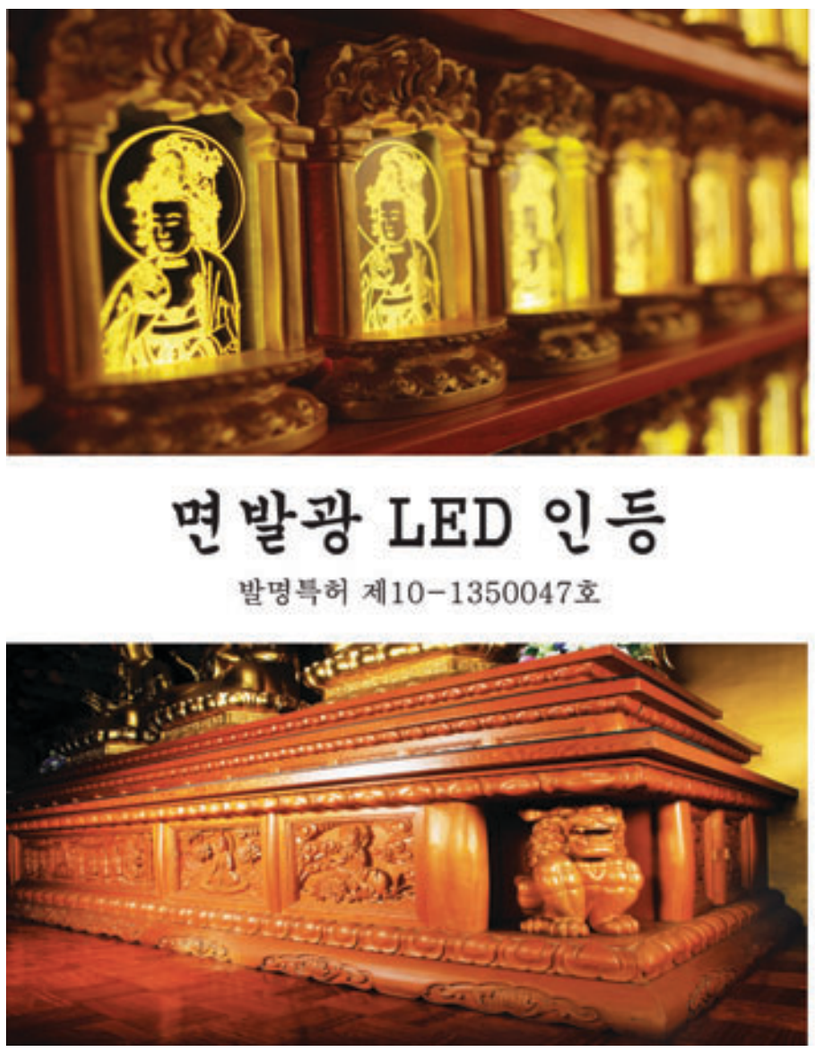
원효사상과 화성 당성 조명 학술대회 열린다

화성문화원 4월 7일 개최

원효사상과 화성 당성의 정신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화성문화원(원장 고정석)은 4월 7일 서화성농협 대강당서 '정신문화 유산으로서의 원효사상과 화성 당성'을 주제로 제2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희경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의 '원효 전기 자료의 재검토'를 비롯해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의 '원효의 오도처 화성 당성' △김경집 진각대 교수의 '원효의 정토사상과 대중불교: 그 현대적 의의'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현대문학 속의 원효' 등이 주제 발표된다. 이에 앞서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 원장의 기조 강연도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빙의(귀신들림) 치유 상담 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빼내는(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 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 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목매어,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박재완의 PhotoEssay



지는 꽃

지는 꽃이 어쨌다고
이 길을 못 지나가나

지는 꽃이 어쨌다고
추억들
모두 이 길에 있나

피었으니 지고, 왔으니 가야 하는 것을
언제는 몰랐나
아플 때마다
한 번씩 새삼스럽게
그 길을 못 지나가고

지는 꽃 한 송이 한 송이
천상천하유아독존
그 오래된 숙제를 또 풀고



성낙윤의 불교매듭

⑦ 가락지 매듭

약방의 감초같은 매듭, 염주도 만들어

가락지매듭은 작품의 조형미를 더하거나 공간을 메울 때 자주 쓰이는 약방의 감초같은 매듭이다. 대부분의 매듭은 같은 색상의 실 두 가닥을 종으로 엮어 가는 방식인데, 가락지매듭은 중심으로 교차하며 크기를 늘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매듭 자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염주 등 독립된 작품을 만들거나 매듭작품에서 중간에 색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매듭으로 활용된다.

준비물

1. 송곳, 가위 외에
2. 대나무바늘(뜨개질 용) 가는 것 – 용도에 따라 굵기가 달라진다.
3. 스카치테이프 – 실 끝을 감아서 매듭할 때 힘들지 않도록 한다.
4. 무독이 본드 – 가락지매듭 절단 후 마무리 하는데 사용.
5. 스텐레스 또는 양은 주전자



노리개실 1m를 준비하고 그 끝에 스카치테이프로 감아 단단하게 한다.

1. 왼손으로 대나무 바늘과 실을 함께 쥐고 그 실로
2. 대나무바늘을 한번 휘감아 제자리에 오면 사진처럼 'X' 자 가 된다.
3~4. 다시 한 번 휘감아 제자리로 와서 실 끝을 사진처럼 위로 끼워 뺀다.
5. 대나무바늘과 실을 함께 돌리면 2가닥의 실이 나란히 되는데 여기에 송곳을 넣어
6. 위의 실을 밑으로 끌어내리면 사진처럼 밑의 실이 위로 올라가고 위의 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양쪽에 'X' 자가 생기면서 공간이 생기는데
7. 그 공간으로 실 끝을 밑으로 향해서 넣어 잡아 뺀 후 다시
8~9. 'X' 자 옆 공간에 실 끝을 위로 향해 넣어 잡아 빼면 가락지매듭이 완성된다. 먼저 했던 방법대로 따라가며 송곳을 넣어 공간을 만들면서
10. 실 끝을 넣어 빼고 당기는 과정을 8번 하면 사진과 같이 두 번 엮어진다. 두 번 가락지매듭이 완성된 것이다. (보통 사용하는)
11. 3cm 간격을 두고 다시 가락지매듭을 엮는다. 사진처럼 계속한다.
12. 세 번 가락지매듭을 하고 싶으면 계속해서 엮으면 된다. 엮는 과정에서 공간을 넉넉히 해주어야 엮을 때 쉽다. 너무 힘주어 잡아 빼면 엮는데 힘들다.
13. 만든 가락지는 하나씩 잘라놓는다.
14. 완성된 가락지매듭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www.btn.co.kr
#봄에는 정목스님 #내인생필템
정목스님의
나무아래 앉아서
목 09:00, 14:00 / 토 16:00 / 월 23:00
BTN 은 케이블TV(아날로그/디지털), 스카이라이프, IPTV 모든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skylife 181번 olleh HD 233번 tv HD 305번 TV HD 185번
케이블TV 채널안내 : BTN홈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02.3270.3300

20년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조계사앞 대불광빌딩2층
YESGOOD.CO.LTD
성지순례는 역시 마하연 입니다!
미얀마
찬란한 불교문화를 간직한
천불천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부처님의 탄생지부터 열반지까지
인도 8대 성지순례 11일
인도네팔 "품격 성지순례" 출발 확정!
인도성지순례의 정석,
마하연과 하면 역시 다릅니다.
신비스러운 불교왕국 부탄
파로-탐푸-푸나카-파로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6일
하롱베이-씨엠립
티베트 8일 성지순례
하늘길 '칭짱열차' 체험
인천-서안-라싸-암드록쵸-장체-시가체-라싸-칭짱열차-서안-인천
마하연 특별기획
백두산 성지순례
[4박5일] 북파+서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4대불산 중국 대만
오대산 아미산 보타산 구화산
북경-운강석굴-오대산-석가장 5일
구채구-아미산-황룡 6일
구화산-낙가산-보타산 5일
백두산(북파-서파)-고구려유적지
압록강유람선 6일
대만 불광사 공승 대법회(4박5일)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5박6일
성지순례와 휴양을 동시에
족자카르타-발리
태국 3박5일
방콕-아유타야-파타야-방콕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이흐탈레-담불라-시기리야-캔디-콜롬보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두



대공 大恭의 난 亂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처 : 02)2004-8216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